

'94 1/4分期 南北對話關聯

# 國內主要新聞記事集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

'94 1/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

발행일 : 1994년 5월 15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산 3-25

(02)734-4323, 735-8766

인쇄처 : 원 단기획 인쇄공사 (02)269-8412~3

---

---



# 目 次

## I. 統一政策 分野 / 3

1. 大統領 新年辭 및 就任 1周年 記者會見 / 3
2. 大統領 中·日 巡訪外交 / 19
3. 政府의 統一政策 / 41

## II. 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IAEA의 對北 接觸 / 81

1. IAEA-北韓 實務接觸 / 81
2. 美-北韓 實務接觸 / 103
3. IAEA, 北韓 核査察 / 121

## III. 南北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 143

1. 接觸 提議 背景 / 143
2. 4~8次 接觸 開催 / 173

## IV. 北韓의 對話 中斷과 核査察 拒否 / 211

1. 國內反應 / 211
2. 國際社會 反應 / 243

## V. 社說·칼럼 / 279

## VI. 其 他 / 331

1. 民主黨代表 新年 記者會見 / 331
2. 金日成 新年辭 및 北韓 內部動向 / 341
3. 其他 關聯動向 / 359

## 附 錄 / 379



# I. 統一政策 分野

## 1. 大統領 新年辭 및 就任 1週年 記者會見





# 정부, 북한-미·일 수교 지원

## 핵문제 해결 맞춰 북방정책 손질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 예상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일정한 해결의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대미 및 대일 수교를 실질적으로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외교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아 김영삼 정부의 대북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방정책을 극복·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북-미간 뉴욕접촉의 결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상 및 임시사찰이 해제 들어 실시되고, 이어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정부의 대북 지원 구상이 구체적 인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새해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실시되면 북한의 핵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의 실현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북한의 대미·대일수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돕고 국제적 개방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의 수차례 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가 북한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은 다만 남북관계의 진전만을 고려해 대북수교의 '안급'을 조절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은 대북

수교와 관련해 핵의혹의 해소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확산방지, 인권,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의 반환 등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런 조건들이 북-미 수교에 사실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미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일 수교에 따라 이뤄질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과 배상금 지급이 북한의 경수로 전환과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배상금 지급 규모를 늘수 있는 한 늘려주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의혹 해소 협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의 전반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이 예상된다.

# 남북문제 새해카드 나올 가능성

## 쌀개방 노사갈등 여권개편 등 수세적 입장 김대통령 '정국부담 덜기' 대북유화책 예상

김영삼 대통령의 올해 국정운영은 작년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막판의 쌀개방 정국을 제외하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세적 입장에서 한해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에는 경제회생 불투명, 노사문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비준 등 수세적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능할 첫 시험대는 북한 핵문제이다. 북한과 미국이 최근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한 회담이 이르면 1월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사교환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문제와 북-미 3단계회담의 진행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로 특사교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핵문제공동위원회 가동문제가 다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기 까지 또, 한차례 고비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김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문제는 지루하게 진행될 남북협상 과정의 완급을 어떻게 조절하고 기업인의 방문과 대북한 투자 등을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 것인가 등이다. 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책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보면 김 대통령은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북한이 핵의혹을 해소하면 남북경협 등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명해왔기 때문에 의외로 유화책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

다. 또 산적한 국내 정치현안이 제대로 풀린다면 기존의 강경책을 유지할 것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유화책을 쓰면서 국내 정치현안에서 비롯된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이 직면한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올 상반기의 노사분규와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 등이다. 김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노사관계와 안정이다. 김 대통령은 최근 "모든 기업들이 올해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고 수출도 몇10% 더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 올해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는 노사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 등으로 보면 김 대통령은 올 상반기 노동현장에서의

입투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우선목표가 분규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소위 불법분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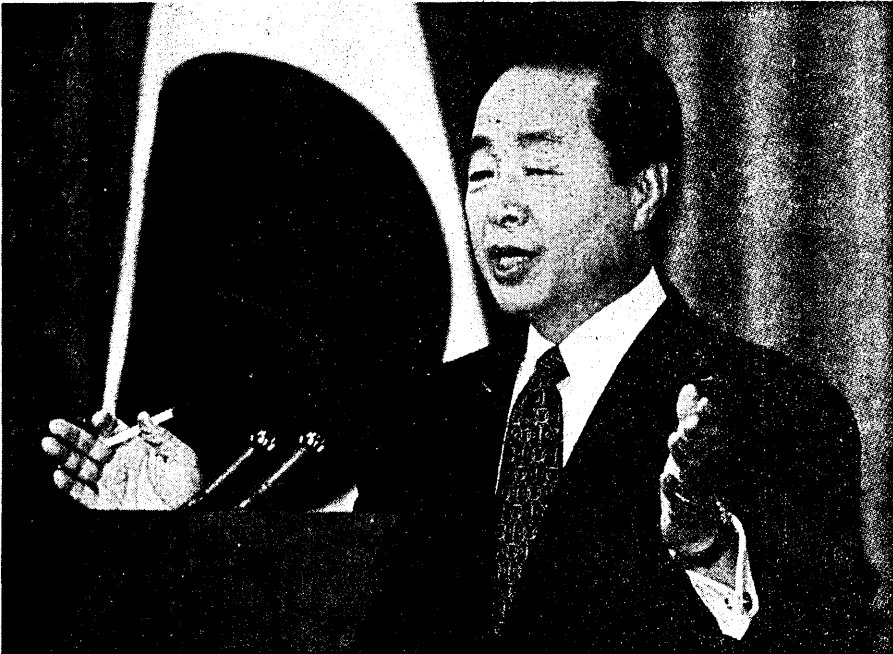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은 쌀 등 기초농산물 시장개방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인 농민이 반대하는 한 야당의 반대는 필지의 사실이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개방 불가론과 개방불가피론의 대결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또 95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여권의 전국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권 조직은 5~6공 당시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이것을 올해 안에 김 대통령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95년

지자체에서 입승을 거두어야 그 이후의 통치기반을 공고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선거 이후의 권력누수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고 이것은 여권내 소수파의 지도자로 출몰한 김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 조직의 개편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민자당 안 민정계의 거취와도 관련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김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김 대통령이 수세적 처지에 있더라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연초 또는 취임 1주년의 시점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정국장악을 시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한해 동안 유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의 카드는 남북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감찰원 기자**

# 국가경쟁력 강화가 올해 목표

## 金대통령 연두회견 法·제도 정비... 능률·생산성 도모



金泳三대통령이 6일 상오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넘친 표정으로 집권 2차연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李鐘遠기자〉

# 민자전당대회 연기... 현체제 유지 농어촌 발전 1조 5천억 투입

〈6대 국정운영방향〉  
변화·개혁 지속적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어촌문제 적극 해결  
교육개혁의 본격적 착수  
국제화·세계화시책 추구  
北核해결 南北관계 개선

金泳三大통령은 6일 새해의 국정목표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두고자 한다고 밝히고, 개혁의 면서 추진하고, 전진하면서 개혁하자고 호소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상오 TV 및 라디오로 전국의 생중계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어촌문제의 해결 ▲교육개혁의 본격적 추진 ▲국제화와 세계화시책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상오 TV 및 라디오로 전국의 생중계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어촌문제의 해결 ▲교육개혁의 본격적 추진 ▲국제화와 세계화시책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상오 TV 및 라디오로 전국의 생중계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어촌문제의 해결 ▲교육개혁의 본격적 추진 ▲국제화와 세계화시책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상오 TV 및 라디오로 전국의 생중계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어촌문제의 해결 ▲교육개혁의 본격적 추진 ▲국제화와 세계화시책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며, "민자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1조 5천억 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金대통령 회견 주요내용

金泳三대통령이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대화  
북한 핵문제에 협상이 진행중이다. 미국의 전격으로 협의를 중단할 경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민중 5월 정당대회  
민중 5월 정당대회는 선거가 없는 해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행사를 할 여유가 없는가. 정당대회를 하면 당직자도 전부 인선해야 한다. 金鍾泌대표가 중립이 돼 그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각도 장관들이 총리

남아 있다.  
△정상의료 개혁  
정상의료 개혁은 5월의 정당대회 때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 정체가 있을 수 있다.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물가안정이다.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지름길이다.

△행정개혁과 규제 완화  
행정개혁과 규제 완화는 199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중 5월 정당대회  
민중 5월 정당대회는 선거가 없는 해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행사를 할 여유가 없는가. 정당대회를 하면 당직자도 전부 인선해야 한다. 金鍾泌대표가 중립이 돼 그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각도 장관들이 총리

삼한 소모가 생긴다. 이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물가와 경제활성화  
물가안정화와 경제활성화는 199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물가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활성화  
물가안정화와 경제활성화는 199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물가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위원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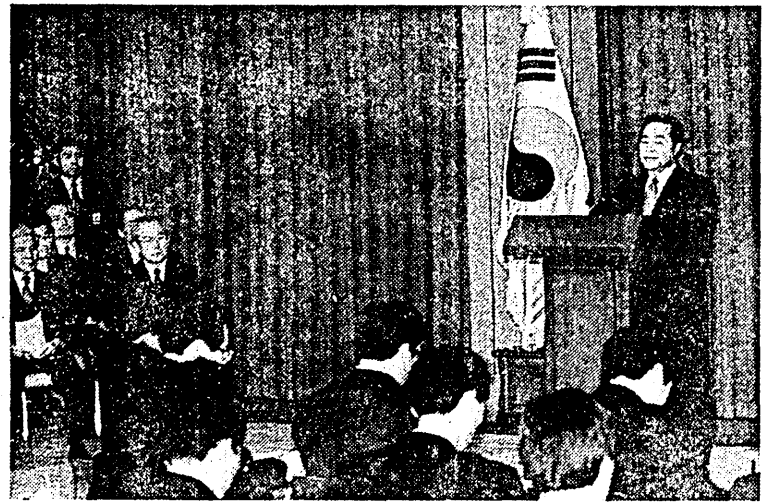
△물가와 경제활성화  
물가안정화와 경제활성화는 199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물가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활성화  
물가안정화와 경제활성화는 199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물가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위원회가

# "核해결후 南北관계 복안있다"

## 「회담을 위한 정상회담」 안할 것 「公私채널」 정책참고...연내 訪日

공급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韓美간의 합의이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IAEA 사찰과 남북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협상 내용에 관해 상당부분을 배고 유리한 부분만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중 단 이부는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합의의 해가 밝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여러 부분이 있으며, 중립의 중립이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金日成주석과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과 북한의 수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번 개편 때 동북한 사찰을 해본 나와 개인적으로 오래 알고 어려운 시대에 남북회담을 같이 한 사람도 있다. 그들을 동북한 것을 모는 것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개화에 나갈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金德龍의 원은 나와 오랫동안 안 의하고 고등소련 김세원을 함께 보냈다. 그에 대한 애정은 아무 변화가 없다. 다만 오랫동안 장관 자리를 지냈고, 본인 을 위해서나 여러 측면에서 잠시 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公私채널을 포함해 여러 채널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人事나 정책) 참고하거나 순차적 판단이 아니라 상당한 생각과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다.  
〈具滋虎기자〉  
〈金龜基기자〉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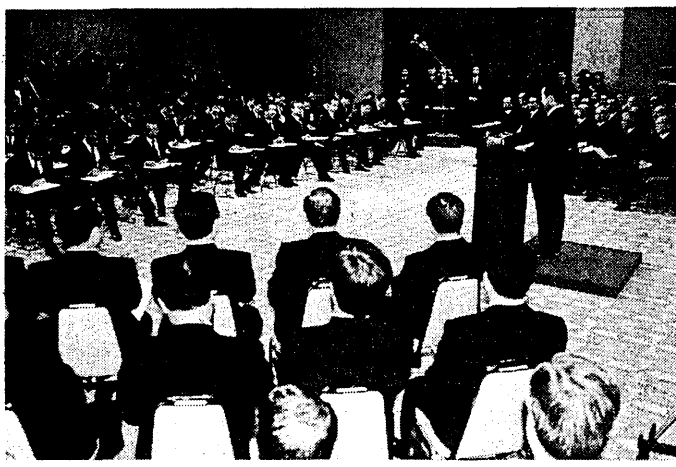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 “金대표가 實權 갖고 黨운영”

## 金대표가 實권을 쥐고 黨을 운영한다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 韓·美 北核문제 기밀협약의 南北정상회담 整地 필요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 기업활동 규제 최대한 풀터 혼란스런 大入제도 꼭 개선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한정된 자금을 투입하여...  
[1] 1월 7일...  
[2] 1월 7일...  
[3] 1월 7일...

# “올 남북관계가 밝아진다” 김일성

## 북측은 남북관계가 밝아진다

【평양 8일路透電】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8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관계 정상회담에서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 「남북합의서」 수준 北 변화 요구

### 「원칙있고」 대화 「입장」 특사 교환 이후 주목

【평양 8일路透電】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8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관계 정상회담에서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해 남북관계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한라권기자〉

# 核관계 없이 南北정상회담

## 金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經濟공동개발도 제의

### “物價불안 죄송” 對국민사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金泳三 대통령. <崔幸英기자>

金泳三대통령은 25일 북  
한의 핵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며 金日成 北韓주석과  
의 정상회담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내년 『北  
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정  
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선  
행포기·후상상회담 입장  
을 전제했다. 이날 조선  
연방정신(이하)은 방영을  
선언해 수백명씩 열광했다.  
金대통령은 “정신(이하)은

하계 되면 핵문제뿐만 아  
니라 남북 경제·문화·정  
협·통일 등 모든 문제를  
이해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北韓  
이 핵포기 개발을 포기하  
고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  
면 우리의 자본·기술을 토  
대로 제조업·농업·건설·  
에너지분야에서 南北경제

되는 것도 아니다』가 발  
했다.  
金대통령은 “양강수협  
담에 대해 양강대표와 마  
나는데 있어 인정하지 않  
으며 양강이 필요한다면  
마나는데 있어 인정한다”고  
말했다.

### 內閣制 전혀 고려안해 연제든 與野 領袖회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이라  
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공통개발을 선뜻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北韓이 핵  
을 포기하고 있다면 핵개  
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분명  
하다』고 말하고 『韓美간 사  
전·사후 협력이 충실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 미사일의

金대통령은 “북가 입장에  
대해 『최소』 함께 생각한  
다』고 사과하며 『불가상  
승을 의제하는데 충성을  
기울인 것이며 국민도 매  
점매석과 과소비를 자제하  
는 등 힘을 모아주어야 한  
다』면서 『정·군·민·입  
금단체는 물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 정쟁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  
했다. <金玄鶴기자>

# 승진·퇴진 就任·탈퇴

《이명박에게》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 핵박(北)서지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 “物價문제 대단히 죄송”

## 당값·金利문제 적당히 인내가 開放은 압력받아 하는게 아니다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삼성전자(주)의 이명박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김영환 기자)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 행정改編 주민이익 고려 이뤄져야 日총리도 '대통령중심제' 좋다더라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한민족의 대혁신과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전진적 개혁을 위하여



金대통령 "전극추진" 표명...관심집중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南北정상회담, 北측에 달렸다

## 「전제조건」철하...조기실현 가능성 「核」과 밀접관계...美-北회담이 변수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철회할지 여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정상회담 제의 배경과 의미

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25일 발언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모든 것에 앞서서 절대명제로 내세워왔던 '핵문제 우선 해결의 원칙'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발언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있었던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의지표명 또는 제의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남북간에 논의되고 있는 특사교환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쪽이 먼저 제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스스로의 제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제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핵문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돼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시대'가 열리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은 나름대로 구체적 현실성을 갖게 된다.

북한의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이래 김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경일변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약속할 수 없다"(취임 1백일 기자회견), "북한의 핵개발뿐 아니라 로동1·2호 미사일 개발은 그들이 아직도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93년 11월 미국 애스핀 국방장관 접견 때)이라는 말들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강경태도

# 핵 빚장넘어 대화 본격화

## 대북정책 전면전환 청와대 직접 주도 천명

는 북한-미국 협상에도 영향을 끼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조-미 3단계 회담과 관련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미국을 견제해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해 나선 것"(《로동신문》 논평)이라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지난해 말을 고비로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는 온건론으로 선회한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번 기자회견의 발언은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앞서의 자세변화 또는 인식전환이 이번 회견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 지난 8월 김 대통령 주재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미국쪽의 강경론자들이 조성한 '한반도 위기설'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사찰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말 뉴욕에서의 막바지 절충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수락 △남북 특사교환 △북-미 3단계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상황에 맞춰 청와대가 주축이 돼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직접 주도한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에 소외돼 왔던 남북대화를 본격화해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태호 기자



# 南北문제 당사자 해결 의지 천명

## 金대통령 정상회담 조속 개최제의 배경

송두리(宋斗利)는 1994년 2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金大正統



金日成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 「先核타결」조건 완화...특사 교환 평판 뒤 「先核타결」조건 완화...특사 교환 평판 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 北이 정상회담제의 받아들일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 對美관계와 맞물려 즉각 거부는 어렵다 영동한 조건 내걸려 공산...成事가능성 반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 I. 統一政策 分野

## 2. 大統領 中・日 巡訪外交



# 金대통령 내달 24일 訪日 中國은 26일부터 5일간

공식발표



金대통령

송삼덕(宋三德)은 3월 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 송대통령 日·中 방문일정 확정 日 새달 24~26일 中 26~30일

## 청와대 공식 발표

송삼덕(宋三德)은 3월 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 송대통령이 5일

송대통령(宋三德)은 3월 5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안의 노태우(安泰宇)는 26일 부산(釜山)에서 27일 서울(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송대통령(宋三德)은 3월 5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각 국을 순회하며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중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만날 예정이다.









### 韓·日정상회담 대화요지

▲김대중 대통령과 후쿠사카 리미요기 일본 총리(左)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후쿠사카 리미요기 일본 총리(오른쪽)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北核 종대국면 인식일치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후쿠사카 리미요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韓측 지연전술 坐視안해 국제사회 확고한 대응 절실

### 사할린교포·정신대·청소년교류등 懸案 협조약속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후쿠사카 리미요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회견 이모저모

○...생각이 깊었다.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회견이 끝난 후,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南北정상회담」 혼자 결정

○...회담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金泳三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사 金忠一기자가 첫 질문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 추진의견에 대해 물고 있다. <禹鍾元기자>

## 保安 신경 참모진 몰라

90% 지지맨 스트레스 받았다"에 폭소  
"대통령책임제서 1인 통치 비판 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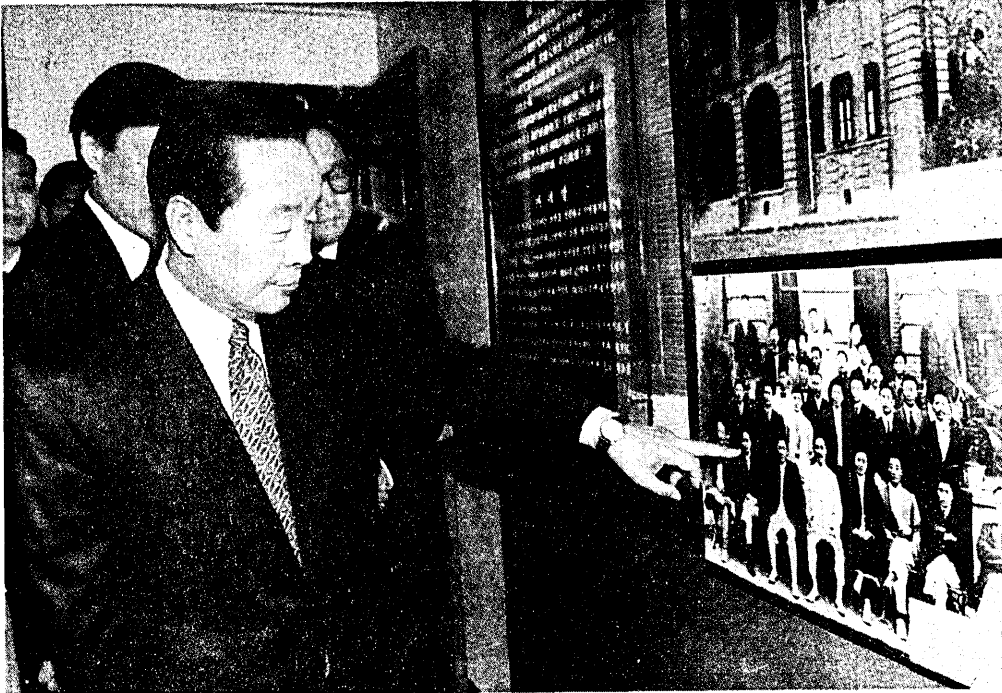
대통령 책임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90% 지지맨인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1인 통치 체제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책임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90% 지지맨인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1인 통치 체제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金대통령-江澤民主석 내일 회담

# 北核해결 협력방안 협의



金泳三大통령이 26일 上海임시정부청사를 방문, 4층에 전시된 당시 임정각료들의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上海—金周晩 특파원】

## 중서 북과 접촉속결과 설명 양국 經協증진중점 논의

【上海—金周晩 특파원】金 日주 남한을 마치고 上海 國립관공청을 방문했다. 26일 오후 1시 45분, 4층 5인실의 중

金대통령이 江澤民主석 주석과 정중히 인사를 맞기 위해 27일 上海에서 北京으로 출발한다. 金대통령은 28일 江주석과의 회담에서 北韓 핵문제 해결을 위한 中國의 역할과 양국경제 협력증진 방안의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이 中國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 행사문제를 北韓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과 수단을

논고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다. 北韓 핵문제와 관련된 中國의 역할에 대해 金대통령이 26일 中國방문에서 東京 기자회견에서 『中國이 어떻게든 『中國이 어떻게든』이라고 대담히 말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분명히 중국은 中國역시 北韓이 핵을 갖는 것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中國의 최근 인권부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北韓과 평화적인 5원칙의 입장해 구명하고 있다』고 北韓과 중점의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金대통령에게 절충안을 여러 차례 설명할지 주목되고 있다. 金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서 『北韓이 일련된 국제사회의 규약과 법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 北韓의 유일한 후진국의 中國의 北韓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28일 양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韓中 경제인 양상을 기리며 北韓의 北韓주석의 주한대사관 방문을 환영한다. 金대통령은 29일 濟南에서 北韓의 北韓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北韓대학에서 새루우 韓中 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天津에 있는 韓國전통문화유산을 시찰하며 만민장외로 돌아갈 예정이다.

# “北核 제재보다 對話”

## 韓·中 頂上 회담 중국의 북한설득 요청

### 産業협력위 설치 합의

#### 金대통령 江주석 2중과세방지 서명식 참석

【北京=金成珍기자】중국 방문 3일째를 맞은 金泳三대통령은 2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江澤民중국총서기결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무제를 비롯한 국제 및 남북안정세, 韓中 실질협력관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3가지의 북한 핵문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金대통령과 江주석은 단독 및 확대회담에서 한 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이 이 지역의 번영에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때 江주석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金대통령과 江주석은 북한 핵무제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對北 제재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보다는 안보리의장성 명의로 북한의 IAEA 해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사찰과 남북 대화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우한규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상기시키고 중 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江주석은 중국의 북한 설득에도 한계가 있다고 對北 美대화, 남북대화, IAEA와 북한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韓中 산업협력위 설치에 대한 합의각서와 통신 협력 양해각서를 조속히 교환키로 합의하고 항공 협정도 조기에 체결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韓中 산업협력위를 통해 자동차 항공기 전자교환기 고화질 TV분야에서 협력키로 하고 △자동차는 부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완성차 단계로 발전시키며 △항공기의 합작기 술개발, 공동판매를 추진 하고 △차세대 전자교환기를 공동개발하는 한편 △고화질 TV의 가격부 품개발방식 호환성의 협력키로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江주석이 중국의 GAIT(관세무역인원간협정) 재가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중국의 시장 및 무역제도를 GAIT체제에 합치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과 江주석은 이날 회담후 韓昇洲외무부장관과 중국의 관세장관이 서명한 이 중과세방지 협정과 무역협정 서명에 일치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 중관홀에서 열린 피노치트 회담에 참석했다.



# 北核 「北京채널」 확보

## 韓·中 정상회담의 미·성과

金泳三대통령과 江澤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北京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와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의 의미가 주목할 수 있다. 金대통령과 江주석이 28일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단독 핵대정상회담을 통해

비단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江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혀 북한이 모험주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金대통령은 중국의 입장 을 설명하고 대화의 원칙에 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지 연전술을 펼 경우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혀 북한에

부품생산부터 시작해 완성 차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항공기는 합 자기술개발과 공동판매에 원점적인 합의를 했다. 이 미소행을 생산하고 있는 전자교환기는 차세대교환 기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중 국측이 희망해오고 화질 T V 개발에도 협력키로 했 다.

金대통령은 회담에서 중 국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 의 상업화능력을 결합시키 자는 제의를 하고 건설시장 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 본시설에 한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 청했다. 양국 정상은 또 양 국의 현안인 항공협정도 조 속히 체결키로 합의해 협력 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현 안 해결에 이르지 못했 이 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 본인식을 공유하고 경제협 력을 확대키로 해 새로운 韓·中 협력시대를 여는 토 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다. <北京 金成珍기자>

## 제재 自制 "기본인식 共有 확인" 江주석 "安定긴요" 北모험경계

### 車 등 4개 분야 협력합의... 경제파트너 예고

중점적인 논의의 한 지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韓·中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지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고 동의 견을 같이 해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원 초의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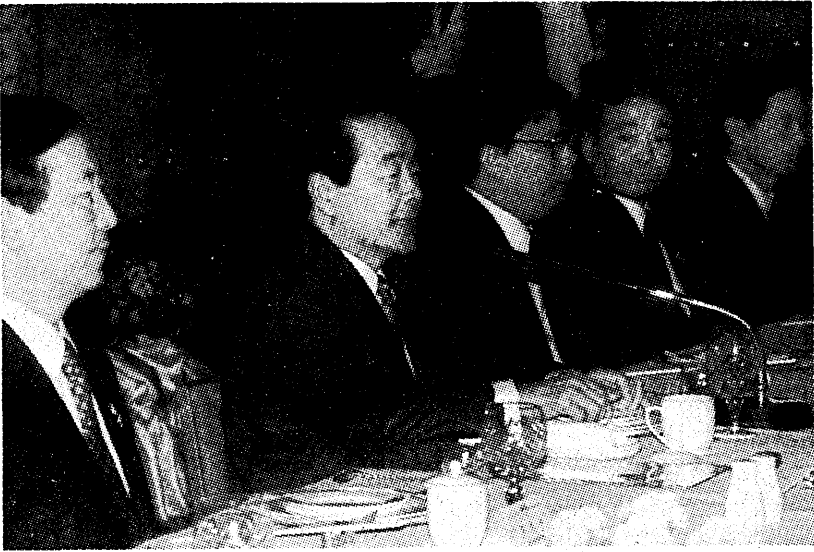
북한이 추진중인 핵실험이 가 장 큰 위험인 對北 제재보다 는 인내를 갖고 북한을 설 득해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도록 하 자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韓·中 양국 역시 對北 제재도 물 아가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 자는 입장을 보여 질적 진전을 찾은 것을 알렸다.

대한중국의 실득을 요청했 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담 에서 韓·中 양국 역시 결코 북한의 고립이나 對北 제재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韓·中 정상간의 이같은 입장조율이 유엔 안보리의 회부된 북한 핵문제에 막대 른 비방이로 치달지 않고 대화로 다시 돌아서는 계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 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다 루면서 양국의 기본입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했 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 에 못지 않게 협의한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부 제였다. 韓·中 양국측은 對中 투자 확대를 희망했고 우리측은 중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韓·中 산업협 력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키 로한 대상인 자동차, 항공기 전자교환기, 고화질 TV 등 4개 분야이다. 자동차는



金泳三大통령이 27일 낮 上海 對北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 게 하고 있다. <上海 慎鍾午기자>

4개 분야이다. 자동차는

# 北核저지에 中國동참 유도 성공

## 송두영·정·진·민정·상·의·담·합·북

북한평화회담 11일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 “중경제개발에 韓半島안정필요”공감 아직은 대화로 “점진적 對北압박일치”

북한평화회담 11일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28일 北京의 人民大會堂 福  
建廳 代表 金泳三 代表 江澤民 代表 趙紫陽 代表 李鵬 代表 朱鎔  
建廳에서 會談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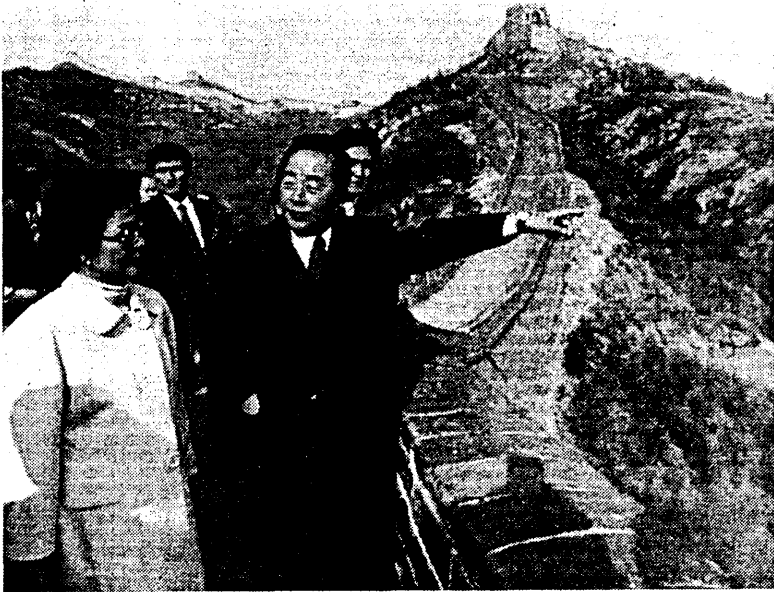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지 않겠다.」



# 韓-中-日 「3角협력」 기틀 마련

## 金대통령 訪日-訪中서 얻은 것



金泳三대통령이 28일 오후 부인 孫命順여사와 함께 萬里長城을 관람하고 있다. 【北京-金周晩報 특파원】

# 「相生시대」 공감대로 經協 큰진전 北핵위난에 띄는 성과 없어 後退

【서울 31일 특파원】 3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4월 10일 중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相生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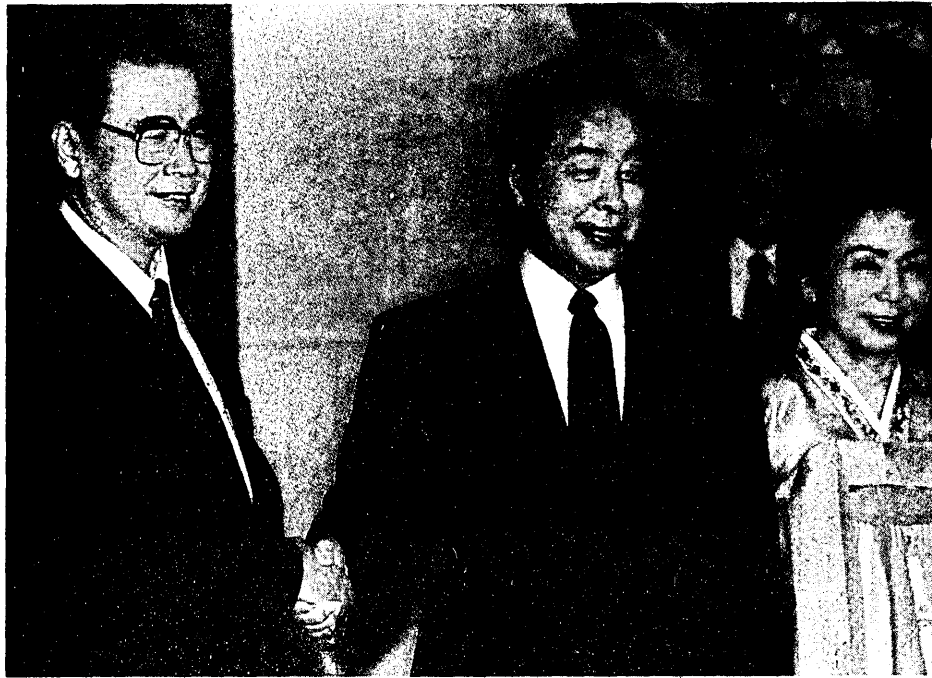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29일 오후 11시 30분 베이징에 도착했다.

# “北核 중국과도 共助”

## 정부소식통 새 3角협력軸 구축



金泳三대통령은 29일 숙소인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韓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 “해결적근중재 노력” 江澤民

#### 金대통령 오후 歸國

【北京—金周晩 특파원】金 대 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金대통령은 北韓 핵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韓中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수업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韓中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 韓半島 전쟁없이 平和 확신

#### 金대통령 韓國과 對원과 긴밀한 협력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北京—金周晩 특파원】金대통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경 釣魚臺에서 李鵬총리를 접견한 뒤 29일 오후 10시 30분경 北京에서 歸國했다. 【北京—金周晩 특파원】

# 東北亞 번영·평화의 새토대 구축

## 金대통령 訪日·訪中 결산

송철호(宋哲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94년 3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 성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北核해법 「韓·中·日 三角공조」 도출 성과 "같이 사는相生시대" 강조... 經協길 넓혀

송철호(宋哲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94년 3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 성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金대통령 北京 회견 내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국(韓·中·日) 공조 방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팀원련 재개 여부를 귀국 후의 결정

### 「백피리」 오프백치 「韓·中·日」의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재= 송철호(宋哲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철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 왜 부드러워졌나

北核대응

訪中후 金대통령의 태도변화

가능성3가지  
美國스노의 「강경」의견에도  
共助 끝낼어낼 비의 맞추기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인민대화당 기자회견 후 北京 金대통령이 29일 오  
기진 기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지명하고 있다.  
(北京—鍾鍾수기자)

【金대통령의 강경 발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 「對話」 급반전... 물밑과감 어간듯 中 지렛대로 협상력 확대 모색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北대담 中에 하일정예 스노

# “韓美安保협력不變”

## 北核 美·日축으로 해결 金대통령·클린턴 通話

### “外交정책 混線없도록” 당부

#### 三府연의에 수반제각각 설명

정부가 미국·일본을 양 축으로 여망하며 중앙정부는 남북한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방미 중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로 만나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통령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양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중앙일보 특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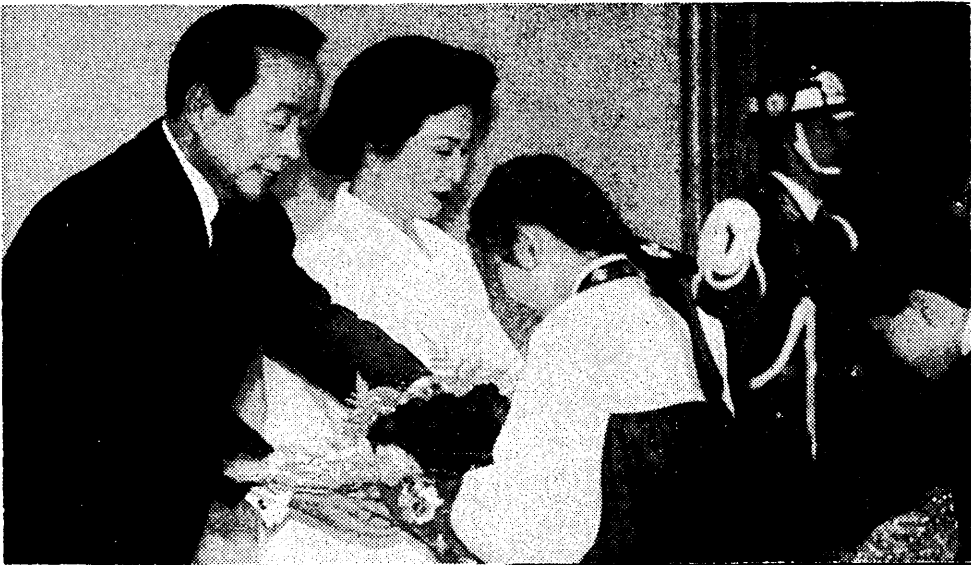




# 훈선일까지 北核정책 변화일까지

## 黃駐中대사 發言 미묘한 파장

黃駐中대사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주목된다. 黃대사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94년 3월 31일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30일 하오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 “韓-美위주서 韓-中으로... 2원화” 黃대사 黃대사 발언은 명백한 실수 부인

鄭수석 鄭수석

黃대사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한국-미국 위주에서 한국-중국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부인할 수 없다. 黃대사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94년 3월 31일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黃대사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한국-미국 위주에서 한국-중국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부인할 수 없다. 黃대사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94년 3월 31일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黃대사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한국-미국 위주에서 한국-중국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부인할 수 없다. 黃대사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94년 3월 31일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黃대사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한국-미국 위주에서 한국-중국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부인할 수 없다. 黃대사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94년 3월 31일 서울공항공항으로 귀국한 金泳三대통령과 부인 孫命順여사가 환영식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吳楨禧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I. 統一政策 分野

## 3. 政府의 統一政策



# “南北관계 큰 변화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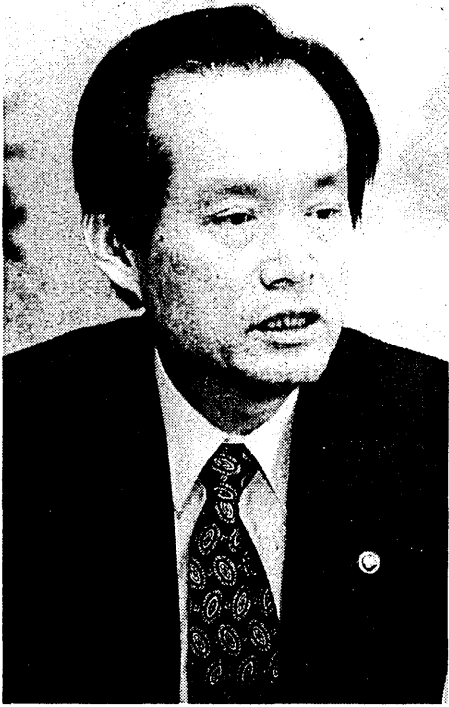
## 宋榮大차관이 말하길 「統一정책」 특별인사부

### 동일정책을 미래像 제시

—특정조건을 가하지 않겠다—  
 ▲특정조건을 가하지 않겠다.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특정조건을 가하지 않겠다.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특정조건을 가하지 않겠다.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특정조건을 가하지 않겠다.

지난 한해 동안 핵문제로 남북이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宋**차관이 문화일보 특집기자회견에서 밝힌 94년 정부의 통일정책이다.

## 特使교환 실무접촉 재개 추진



94년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 北核-經協 연계 기존정책은 不變

### 이산가족 재회위한 共同委부원도 시급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교환을 위한 민선정부의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새해들어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9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 “北韓 인권문제 제기”

##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중앙일보 1994. 1. 6(4)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 時宜안맞는 統一長官의 발언

朴 義 俊 < 통일부 기자 >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北韓 核실험이후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李榮德부총리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 원칙 안맞는 南北 대화 폐일이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추봉일원 대화 재개되면 「이산가족」 거론











# 北韓개방 적극유도

## 정부를 外交 최우선課題로 추진

### 核사찰후 對北정책 일대 전환 "3단계 회담전 特使교환" 철회

#### 日-美와 수교지원... 多者間안보기구 창설도

정부는 北韓 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對北정책을 대폭 전환할 수 있는 북한개방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이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지원기구(IAEA)의 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확인된 뒤 북-미 수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IAEA 핵사찰팀의 단독 방문을 對北사찰팀의 방문을 노골적인 對北사찰팀의 중대 전환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정부가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발안으로 우리 정부가 北美3단계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단계는 對北특사교환의 실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기구를 창설할 방침이다. 안보기구는 7개 핵시설에 대한 통상 및 일사조치와 관련된 對北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개방유도정책 △AP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WTO(세계무역기구) △GPR(글로벌 무역) △다자간 경제협력기구 등 다자간 안보기구를 창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을 전제로 對北정책을 대폭 전환할 수 있는 북한개방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이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지원기구(IAEA)의 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확인된 뒤 북-미 수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IAEA 핵사찰팀의 단독 방문을 對北사찰팀의 방문을 노골적인 對北사찰팀의 중대 전환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정부가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발안으로 우리 정부가 北美3단계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단계는 對北특사교환의 실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기구를 창설할 방침이다. 안보기구는 7개 핵시설에 대한 통상 및 일사조치와 관련된 對北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개방유도정책 △AP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WTO(세계무역기구) △GPR(글로벌 무역) △다자간 경제협력기구 등 다자간 안보기구를 창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개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對北정책을 비롯하여 무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협력 안보기구의 창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강경과 발길 기류변화 미묘

이영덕 부총리체제의 통일정책

## 원칙안맞는 대화거부·북한인권 거론 파문 일부언론 냉전시각과 일치등 보수화 우려



평남 강서를 고향으로 둔 실학민으로 명성을 교육에 몸담아온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사진)은 여러모로 전임자인 한완상 전부총리와의 대비를 이뤘다. 그 때문에 그의 통일부총리 임명에 대해서 통일정책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에 반해 일부에서는 외교안보부의 '불협화음'이 해소되고 더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총리의 통일원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은 크다. 물론 취임한 지 한달이 채 안되고 그 사이에 연일시를 보낸 상황에서 이 부총리의 통일원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신임 통일부총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기자들에게 이 부총리는 "장관이 같다고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상황변화에 따라 적

절히 대처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변신'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훈령조작사건으로 물러난 이동복 전 안기부장특보가 지난 연말 인사차 통일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아직도 그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이 전특보가 발휘한 능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 쪽보다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서서 강경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그의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80년대에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로서의 경험밖에 없는 이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듣게 될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달라진 분위기를 두고 앞으로의 정책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러나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통일원 사람들은 이 부총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북한인권의 거론 필요성'과 '우리의 원칙에 안맞는 대화 거부' 발언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통일원의 한 직원은 부총리 취임 직후에 일부 언론이 사실 등을 통해 주문했던 내용과 이 부총리의 발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라"든가, "대북협상에서 우리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설혹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대화에 연연해 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등 언론의 다분히 냉전적인 인식이 이 부총리의 발언에 여과없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실제로 기자들에게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와도 무조건 응하지 않는 담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이 부총리의 이 '인권발언'에 대해서 일부 신문의 사설은 "북한정권의 지도부를 상대로 그들의 뜻에 연연해하는 대북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고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다분히 '수구'적인 논조와 화합하려는 이런 경향에 대해 통일원의 한 직원은 대화를 주도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할 통일원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 부총리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유 북치 인권 등이 보장되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통일에 이르는 과정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신년사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흡수통일론'의 또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 이산가족 만남이 南北화해 출발점

## 李榮德 통일부 부총리 단부 인권발언



### 「통일원칙」 불협 「이젠 벗어날 때」

양쪽 다 발전하는 統一 전략 마련 필요 「인권발언」 眞意와 眞, 安企部 협조 살피

이영덕 부총리 단부 인권발언이 남북화해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원장관인 이영덕 부총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통일원 원칙과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新羅-총리의 12월 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인권-부패강조등 보수화 회귀 추

북인권-부패강조등 보수화 회귀 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민감한 쪽 저론안해 북자극 자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北核연내해결에 최선

북부총리 北연내해결에 최선

북부총리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부총리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4. 1. 12(4)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4. 1. 12(4)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 남북 특사교환 종합대책 마련

## 통일원 업무보고 핵해결엔 교류협력 다각추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 올해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우선 특사교환과 관련해 특사접촉 대책 및 서울·평양 행사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새해업무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인도주의차원에서 유엔과 적십자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아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 훈령조작사건으로 드러난 남북대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회담종합상황실의 상위기구로서 남북회담 때에 운용되는 '회담기획통제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담기획통제부'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교·안보 등 남북관계 유관부처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날 통일원의 보고를 받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금년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

문제를 기필코 해결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어떤 경우든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대화 주도 의지없이 북한탓만

통일원은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영덕 부총리가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94년도의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은 남북회담의 재개를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날의 업무보고에는 진보성향의 한완상 전 부총리로부터 이산가족과 인권을 내세운 이 부총리로 바뀐 통일원의 변화가 정책방향에도 투영되고 있다. '우리의 대화원칙을 확고히 견지' 한다면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이라는 통일조국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부총리는 "우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도 무조건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이날의 보고는 북한이 조만간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 알맹이 없는 통일원 새해 업무보고

보는 근거를 두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현재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강한 대남비방을 하고 있지만 대미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남북대화

지 감안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남북대화 관련 대책은 지극히

### 소극자세 일관...경험 대안제시 없어

### '회담 기획통제부' 신설 그나마 눈길

에 결국 응해 오리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북한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대화의지를 의심하는 통일원의 이런 태도는 업무보고가 "북한의 형식적 특사교환 운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여기에 인권을 강조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 부총리의 강경한 대북관과

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없다. 예컨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며 나진·선봉지역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 등이다. 남북화해와 상호이익을 위한 교류확대를 말하면서도 남북경협을 적극화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의 물자교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

상된 경험도 반드시 통일원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통일원의 책임있는 간부 가운데 경제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과 원자력기구간의 핵사찰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통일원의 설명이지만,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예상됨에도 과거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아니다.

통일원의 위상과 관련해 이 부총리의 취임으로 남북대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남북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갖게 만들만큼 알맹이 없는 것이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새로운 것으로 지적되는 대목은 '훈령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남북회담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담기획통제부'를 신설하겠다는 것 정도이다.

김태호 기자





북한]

### 核개발 포기할것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 통일은 南北韓 모두



◇「통일이 되려면 南北韓이 모두 도덕적으로 맑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李榮德 부총리.

## “핵무기-핵발전이런 북개발은 없다”

고시철의 대한 핵사찰재개를 환영하는 보도가 나온 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 核투명성 보장돼 實益없는 '모양내'

지향고수해 지역인 서울 광역권 등까지 트럼으로 출저어 심고 와서 수재민들과 사지도 되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 「팀훈련중지 내달 발표

# IAEA 사찰단 주말에 入北

##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 「北사찰수용」 후속책 마련

### 美北 3단계 회담 내달 열릴 듯 정부, 特使 교환 요구 철저히 방침

한국과 미국은 北韓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격수용함에 따라 핵사찰이 끝나는 오는 3월 초쯤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앞서 美北 韓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내세웠던 南北 특사 교환요구를 정식 철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은 美北 3단계 회담을 위한 뉴욕 실무자 접촉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따라 美北 3단계 회담이 오는 3월 초 제네바에서, 南北 특사 교환을 위한 특사 교환접촉은 내주 중 板門店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光化門 종합청사 등에서 주미대사관 주재관 방에 외교안보분야와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北韓이 IAEA 핵사찰을 수용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美北 3단계 회담이 합의될 때까지는 특사 교환을 전격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6일 「北韓이 IAEA 핵사찰을 수용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美北 3단계 회담이 합의될 때까지는 특사 교환을 전격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北美 3단계 회담 전에 남북대화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특사 교환이 성사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韓의 주미대사관 수석대사인 고위관료는 이날 北美 3단계 회담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팀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 入北하면 1주일가량 사찰을 실시한 뒤 이를 약 2주일 동안 검토한 다음, 報告서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초에 3단계 회담이 그 이후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北美 3단계 회담이 내달 중순에 열릴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설치

## 정부추진 특사교환때 본격거론 방침

### 빠르면 年内설치가 노성

### 기업인訪北 다시 허용·직교역도 확대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과 함께 기업인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을 추진키 위 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제사무소는 18일 열린 회담에서 18일 합의된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과 함께 기업인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을 추진키 위 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제사무소는 18일 열린 회담에서 18일 합의된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과 함께 기업인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특사교환을 추진키 위 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제사무소는 18일 열린 회담에서 18일 합의된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경제사무소'는 교환 설치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무대를 통한 남북경협도 확대키로 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구역지대에 국내기업이 진출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百萬기자]





#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두돌 '냉각' 풀릴까

19일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한 지 두돌이 되는 날이다.

남북한은 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간 최초의 공식합의의 문서인 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달 뒤인 92년 2월19일 평양의 6차 고위급회담에서 공식발효한 이 합의서는 흔히 통일 추진의 '기본법'로 평가된다.

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채택으로 순조로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남북관계는 이종복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훈령 조작사건'이 발생한 8차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급속히 식기 시작했다. 곧바로 92년 10월엔 이른바 대규모 간첩단사건인 '남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져나왔고 연이어 93년초엔 틱스파리트 훈령이 강행됐다. 이 틱스파리트 훈령의 중단 여부는

리를 비롯해 전·현직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회를 베풀었다.

이영덕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이날 인사말처럼 북한의 핵사찰 수락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생각은 이를 위해서는 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핵문제 우선 해결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 '특사교환'으로 돌파구 모색

### '훈령 조작'사건 고비로 계속 헛바퀴만

### 핵통제위 재개·부속합의서 실천 기대

갈라진 남과 북은 이 기본합의서를 통해 처음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외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 이 합의서에 기초해 남북한은 92년 9월의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의 3가지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화해, 군사, 경제·교류, 사회문화·협력의 4개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데 합의했다. 실천을 위한 합의도 갖춰진 셈이

지금 이 시점에도 핵문제 해결과 연계돼 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사문화시킨 채 사실상 대화단절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3년 들어서부터 지난 15일 북한의 사찰수락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례 없는 특별사찰 결의에 맞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촉발된, 핵문제에 압도당해 왔다.

통일원은 18일 합의서 발표 2돌을 맞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색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열고 이회창 국무총

리의 핵확산금지조약 압전북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통상사찰 의사표명, 남북상호사찰의 방향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다. 특사교환을 통해 이런 실마리가 마련된다면 곧바로 핵통제공동위 재개와 함께 부속합의서 실천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사교환은 북한-미국 3단계 회담의 성사뿐만 아니라 기본합의서의 복원 또는 본격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태호 기자

# 남북 기본합의서 2년冬眠 깨려나



◇李會昌국무총리(右에서 두번째)와 李榮德부총리(세번째)가 鄭元植전총리(첫번째), 洪性澈전 통일원장관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도 2주년을 맞았다.

이들 하루 앞날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기념리셉션에서 이종복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훈령 조작사건'이 발생한 8차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급속히 식기 시작했다. 곧바로 92년 10월엔 이른바 대규모 간첩단사건인 '남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져나왔고 연이어 93년초엔 틱스파리트 훈령이 강행됐다. 이 틱스파리트 훈령의 중단 여부는

관계자가 참석할 가운데 조종한 기념리셉션 및 화해회의가 열렸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째 되는 날인 이날은 「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도 2주년을 맞았다. 이들을 하루 앞날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기념리셉션에서 이종복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훈령 조작사건'이 발생한 8차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급속히 식기 시작했다. 곧바로 92년 10월엔 이른바 대규모 간첩단사건인 '남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져나왔고 연이어 93년초엔 틱스파리트 훈령이 강행됐다. 이 틱스파리트 훈령의 중단 여부는

오늘 발효 2주년... 관계자들 기념식

## 가동못한 「공동위」 特使교환으로 성사되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도 2주년을 맞았다. 이들을 하루 앞날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기념리셉션에서 이종복 당시 안기부장 특보의 '훈령 조작사건'이 발생한 8차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급속히 식기 시작했다. 곧바로 92년 10월엔 이른바 대규모 간첩단사건인 '남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져나왔고 연이어 93년초엔 틱스파리트 훈령이 강행됐다. 이 틱스파리트 훈령의 중단 여부는

관계자가 참석할 가운데 조종한 기념리셉션 및 화해회의가 열렸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째 되는 날인 이날은 「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관계자가 참석할 가운데 조종한 기념리셉션 및 화해회의가 열렸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째 되는 날인 이날은 「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관계자가 참석할 가운데 조종한 기념리셉션 및 화해회의가 열렸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째 되는 날인 이날은 「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관계자가 참석할 가운데 조종한 기념리셉션 및 화해회의가 열렸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19일째 되는 날인 이날은 「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8일 하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된 기념리셉션에서 환담하고 있다. 【金鐘秀기자】





# “北核보유 명백한 증거 없어”

## 金대통령 “核사찰 나관”

### NY-회견 패트리엇 配置연구 잘한일

【뉴욕=송광호특파원】송대통령이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관련,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틀 서울발 인터뷰 기사에서 “송대통령의 북한의 핵사찰에 관한 발언은 매우 낙관적이고 있다. 이를테면 핵사찰이 있는 8개월 전 그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적하자 대조를 이루고 말했다.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철저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의 전했다.

송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배치 연구조치에 대해

“매우 현명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 신문의 덧붙였다.



# 李榮德 통일부총리

## 이념파 — 朴貞洙 통일부 장관

—북한과의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한이 전망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북·북합의가 남북관계의 정면적인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과의 긴급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재개될 남북대화의 전망과 북·북정착 후 진의 방향 등을 들어본다.

미국과 북한은 26일 유엔본부에서의 실무접촉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일정, 톱스피리트훈련의 중지, 美·北고위급회담의 일정 및 남북특사교섭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재개 문제에 일괄 합의했다. 美·北3단계 고위급회담이 예정된 다음달 21일까지는 남북한간 대화재개를 위한 제의를 주고받고 특사교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 “特使임무 核문제 우선협상”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우선협상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李榮德 부총리. [張啓文기자]

## 사찰수락 불구 南北관계 나관못해

## 이산가족 生死확인약속 성과기대

## 頂上회담 유엔대응...北, 기업인에 초청장 40件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는 26일 휴전협정 체결 1주년 기념식에서





21일 상이 정부총리장사 19일 도착의향.

주미대사관에서는 장관과 전·통일장관의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10시 30분경에 개원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부총리인 「인간도계」 25살의 나이가 가장 어린 할아버지인 김원철의 부활을 축하하며 인사말을 시켰다. 그는 이어 통일안보 부처의 참석으로 통일장관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통일장이 명실상부한 북한정책의 주관자가 되기에는 면담이 많은 것 같다. 지난 68년 주미대사관장이던 명출판은 9년 동안의 임기 동안 명출판 바우면서 부총리단 부사로 격상되긴 했으나 인연·의산 평양사 정전회담 부총리이다.

조 바이든 북한 정권 7명의 사기 전파수장의 부활인 안기구나 발파한 행이정관 단을 통해 북한에 전해 파

### 「25살 統一院」의 위상



具本永  
(북한부 기자)

아하하의 부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도민」은 크나 「수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총련통일정책하에서 두 차기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기동도 청와대 비서관과 총장관 수 밖의 영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부만이 지난 해 3월 12일 핵화산금지조약(SPT)을 탈퇴한 이후

관두점 심부름이 북한측에 의해 「양기」된 직후 한 통일원 관계자의 첫 단어가 있었다. 남북 대화의 당사자인 우리측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美·北 합의문이 작성되는 바람에 북측이 합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사실 포괄적으로 원칙을 합의해 놓고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하는 면담무상한 북한의 협상방식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다. 특히 이같은 「북한식」 협상술의 가장 정통한 부서는 대화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통일원이다.

우리의 부부와 美·북 부부 간 원활한 북한협상체제를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부서의 유기적 협조가 긴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남북 대화의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통일원이 제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주부총리의 다짐에 기대를 걸어본다.

# 엔 「김」 「영」 「권」 「중」 「권」

## 북방부 공식 발표 「北核 사찰 성공·特使」 합의 조건부

### 「김」년에 한해... 「진」전 없으면 「엔」제든 「再」開

북방부는 3일 주재원 자립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이 성공적이었음을 발표하고, 「엔」제든 「再」開(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재원은 「엔」제든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 核·南北대화 물꼬트기

## 「팀스피리」 조건부 중단 발표 의미



◇趙成台국방부 정책실장이 94년도 팀스피리 트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94 팀스피리(TS) 韓美 연합기동훈련 중단 방침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대화

정부가 3일 발표한 94 국방예산의 TS훈련비용을 삭감하지 않음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리 TS훈련 중단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정부는 「TS훈련의

훈련이므로 TS훈련을 북한해무제와 결부시키지 않겠다. 이 에 따라 IAEA사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

그러나 금대사는 두 전

제조건의 충족도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의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정부가 시한

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적

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시

사했다.

정부가 TS훈련 중단

발표함으로써 이제

「94」 북한측의 입장이

다. 북한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모색하자면 韓美 양국의

입장의 조화가 중요하다.

「시간을 기」 작전」이

나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劉又根기자〉

## 査察수용·南北실무접촉 재개로 실마리 北韓 대응태도 따라 훈련재개 최종확정

의 진전을 위해 취한 정치

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 및

남북신용장출의 개시 등

이로 기시화되고 있는 북

한 핵문제의 진전에 대한

對北 양보 조치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당초 미정부가 94년도

중단 여부 논쟁의 태도

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

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금지조약(NPT) 발효

유엔안보리 제재방안 등

위기로 치달았던 북한 핵

문제가 지난 15일 북한

의 IAEA사찰 전격 수

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질수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근거의 일면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이 민중의 생명과 번영을

위협하고 본질적인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 TS훈련을 중단해서

라도 핵개발만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을 이대로

단 92년의 이어 두 번째로

으로 美북한 3차 접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

거나 특사교환이 원만하

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TS

훈련 중단 결정은 불가피

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

이다.

정부는 TS훈련의 중

단을 최종 확정하는 시한

으로 美북한 3차 접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

거나 특사교환이 원만하

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TS

훈련 중단 결정은 불가피

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

이다.

정부는 TS훈련의 중

단을 최종 확정하는 시한

으로 美북한 3차 접촉

## “특사교환·核저지맨 美·北관계개선 지원”

金대통령

金三대통령은 3일, 「특사교환이 이뤄지

는 등 남북대화가 잘 진행

되고 북한의 핵개발이 저

지되면 양국은 정상회담과

함께 미북한 관계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KBS

차별기념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 조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관

한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이 조건의 충족을 지원하

고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이 조건의 충족을 지원하

정신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韓美 공동체

제라고 강조했다. 「미북한

북한과의 접촉에서 파도

회담을 중지시켜 놓고 우

리와 협의하는 등 사전사

후에 반드시 협의를 해왔

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어 「경기

동인 변화와 개혁의 계속

될 것이지만 「민주개혁

과 공익의 통폐합, 민생

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주위에 대해서도

제가 있다면 정의를 철

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

으로 불평함을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특가문제에 대해 이해할

자 6%선에서 불가안정이

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

했다. 〈金昌福기자〉

# “北韓 국제제재 불가피상황”

## 金대통령 日NHK회견 대중문화개방 임기중 될것

【東京=聯合】金泳三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회견에서 이번 핵사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재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IAEA의 회견에서 이번 핵사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재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불행한 일종의 한 단과 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핵사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재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개방과 관망해 대중문화의 해빙은 자연스럽겠지만 때 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4년간 임기중에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포아키텐(明仁)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인간적인 대포아키텐의 한국 방문은 대

단행의 의미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회견에서 김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핵사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재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개방과 관망해 대중문화의 해빙은 자연스럽겠지만 때 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4년간 임기중에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포아키텐(明仁)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인간적인 대포아키텐의 한국 방문은 대

## “中國, 北核 합리인정장 동조할것”

【北京=聯合】金泳三대통령은 28일자 미시사주지시 타인 파가진 인터뷰에서 “北核 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北核 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개방과 관망해 대중문화의 해빙은 자연스럽겠지만 때 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4년간 임기중에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포아키텐(明仁)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인간적인 대포아키텐의 한국 방문은 대

한국의 남북통일 향유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개방과 관망해 대중문화의 해빙은 자연스럽겠지만 때 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4년간 임기중에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포아키텐(明仁)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인간적인 대포아키텐의 한국 방문은 대

# “金正日「후계」위기조짐

## “金대통령 생일기념식 축소등 위상변화”

### 日王방한초청...對韓 자세 바뀔때 가능

【서울 25일路透電】 25일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가 후계자를 진주가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駐日 한국특파원과 대담에서

방북했을때 金日成이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고 일체의 권한을 金正日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던 점과 아울러 金正日의 생일 기념식이 과거와 달리 축소돼 실시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 권력체제에 변화가 있음을 설명했다.

라 실제 사용할 의도도 있음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대표가 시종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 내 최고위당료자의 의사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자신이 아끼히로 일왕의 訪韓을 초청했음을 확실히 밝히면서 일왕의 방한을 위해서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 北 日왕 방한자 귀순 가능성도

【서울 9일路透電】 8일 美國이 수퍼 301조원 부활시킨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韓美정상회담이 아파되지 않도록 美國이 슈퍼 301조원 전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韓美회담은 이틀의 긴가지를 끝낸 후 美國이 韓美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韓美회담은 또 시베리아의 목장을 탐험한 北韓 노동자들이 학살당한 것 등을 둘러싸고 회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종 법원 부장판부의 재량이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南北회담을 앞두고

회담 = 黃在訪 李在平

「北 회담」이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 “南北대화하는 마라톤”인내 버티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회담을 앞두고 인내를 버티고 있다. 그는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 北「평화담」해킹 「중파전선」가 10년 하반기에야야 평담이 나뉠지아도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회담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회담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난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리고 싶다”고 밝혔다.

# 「金出口」마련 8월 終盤에 이르

동요 많은 성숙된 국민의식 北韓에 강한 메시지 될 것

## Ⅱ. 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IAEA의 對北 接觸

### 1. IAEA-北韓 實務接觸





# 北韓南北대화 재개 밝혔다

## 美 국무부 차관보 회견 3단계 회담 여건 성숙

【워싱턴=연합통신】고 박영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6일 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 北-IAEA 협상再開 美 韓國에 통보

북한과 IAEA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미국과 한국에 통보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 美 요구 후퇴한 것 없다

데이비스 차관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이 지난 해 3월 북한에 대해 한일 합작의 요구로부터 후퇴했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IAEA가 이를 사찰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IAEA는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앞으로 이같은 정기적인 사찰을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했는가.

## 安全조항 깨지면 곧 安保理로

### IAEA의 査察세부사항 제시 중요

나에 혼란이 있었다. 미국이 북한에 자용할 수 있는 주요 지렛대의 하나가 틱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바람이다. 북한이 안전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틱스피리트

안사찰을 받지 못한 시설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찰에 따라 다르다. 적어도 한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이상 사찰을 받지 못했다. 한 시설은 1년에 한 차례만 사찰만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 美 국무차관 '北核' 일문일답

▲미국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핵정전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 요구조항에 있어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미국의 첫째 목표는 북한의 신고된 7개 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신고된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실현하게끔 남북한이 노력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같은 목표는 3단계 회담을 취소할 계획인 단제회담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어떻게 하여 3단계 회담의 틀에 갇혀 있지 않게 하려는 사실이다. 안전조항의 계속성은 대화가 없더라도 유지돼야 한다. 안전조항이 깨지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로 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7개 시설 각각에 대해 일회성이나 대략적인 사찰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 상의 약속을 받아냈는가.

IAEA는 사찰에 따른 구체적 세부사항을 북한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차례 사찰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찰이 필요하다.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IAEA가 이를 사찰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IAEA는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앞으로 이같은 정기적인 사찰을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했는가. 북한사람들은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나는 IAEA가 그 같은 판단을 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북한이 기꺼이 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한다. 만약 IAEA가 정기적인 사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귀하는 북한이 이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

워싱턴=金英鎭특파원

# 北·IAEA 공식 접촉 재개

## 오늘 새벽 빈서 未신고核査察문제 實務논의

### 北韓, 申告시설도 「사찰조건」 불어

【비룡문=東京=연철】北韓 A사무국의 디미트리코프 유 7일 核査察 수송문제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과 첫 공식 실험장소를 가졌다고 IAEA가 이를 밝혔다.

核査察 재개 무제한 관련,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험장에서 일부 재 부합대 사관의 유종진 참사관 등 3명의 대표관들과 IAEA

AEA간 첫 실무담공시 접촉이 오늘 있었으며 양측은 다음 주 접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査察 문제 실무협상에서 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고된 핵시설 부문의 기술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을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미국과 핵査察 실무협상에서 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고된 핵시설 부문의 기술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을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IAEA 첫 공식 접촉

## 核査察 원칙 합의... 주대 다시 만나

【비룡문=연철】북한이 7일 核査察 수송문제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과 첫 공식 실험장소를 가졌다고 IAEA가 이를 밝혔다.

核査察 재개 무제한 관련,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험장에서 일부 재 부합대 사관의 유종진 참사관 등 3명의 대표관들과 IAEA

상무 대표부 관계자들과 IAEA간 첫 실무담공시 접촉이 오늘 있었으며 양측은 다음 주 접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査察 문제 실무협상에서 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고된 핵시설 부문의 기술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을 핵시설 부문의 기술 협상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核사찰 구체논의

## 北·IAEA 2차 접촉 기술사항 협의의...진전없어

【본=金飛熙】北韓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현지시간) 빈의 IAEA 본부에서 핵사찰 문제와 관련된 제2차 공식 실무접촉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빈부재 북한대사관의 쿵 후진참사관 등과 디미트리 페리코프스 IAEA 핵안전 조차관장과의 2시간 면담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1차 접촉에서 전담된 북한측의 인종에 대해 IAEA측이 핵감시자료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 요구하고 이를 무조건으로 전할까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스 마이어 IAEA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측 대표와 IAEA는 10일 북한측의 신기술 시험에 대한 사찰문제를 놓고 재

차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이 자리에서 IAEA는 사찰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의 접촉 내용은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IAEA측은 최소한 임시사찰이 곧 재개될 수 있다면 지난해 말부터 무제가 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안전장치 영속성 증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안전장치 영속성 증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AEA측은 최소한 임시사찰이 곧 재개될 수 있다면 지난해 말부터 무제가 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안전장치 영속성 증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사항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진전도 없었다. 그러나 핵안전장치 영속성 증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北核이단결정 통상사찰가능성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5일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 IAEA-北韓협상 어떻게 되나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 「특별」은 美北 회담서 결정될 듯 核안전 연속성유지 "우선 만족"

이단결정 통상사찰의 가능성은 핵무기 개발을 영속화하기 위한 美北 회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 본부가 빈에서 지난해 9월 평壤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던 핵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 北협상지역에 IAEA 포섭

## 3차전추 알뜰한 현지 표현

단종지연으로 전담하던 北 핵시설 재개발을 위한 북한-북제약자립기구(IAEA) 간의 3차 추속 협상이 의안협약 체결을 앞두고 미북지교장이 IAEA 추속협상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내 7개소의 신고된 핵 시설시설을 위한 IAEA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IAEA)에 잘 설명할

필요이다. 평양에서 열린 IAEA에 전담하는 장구인 유영준장은 지난 13일 이후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세월이 흐른 것에 비하면 아무런 의의도 없을 이란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유영준은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 때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장구인 유영준은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 때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유영준은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 때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유영준은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 때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유영준은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 때마다 "유영준"이라고 부르는 IAEA 대표인 김대현은 15일 "유영준"이다

## 北대포부 "平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북대포부 평壤지령업체를 지지 못한다. 세부내용 논의 타 "아직異見"분식갈려

# 北 IAEA 대학공매듭

## 北 IAEA 요구사항 2~3일 후 통보

### 어제 2차전북

【단=劉載勳(平壤) 특필】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적 필수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0일 오전 평양에서 北 핵과 유관한 2차전 북협상을 갖고 핵시설에 필요한 기술

#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 IAEA 시료채취 않고 장비등 교환만 실시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 北-IAEA 3차 접촉 査察절차 異見 못 좁혀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본=】 北核빠르면 24일 사찰 착수... IAEA가 주장하는 시료채취는 다말기 원자로 불의장치·감시장치의 카메라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교환만으로도 불의하





# 北, 核전면사찰 거부

## 필름·전지 교환만 허용

### IAEA 내주 북과 재접촉 사찰범위 절충

【東京21日電】北韓은 21일 핵사찰개최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최근 접촉에서 IAEA가 최종 제시한 7개 핵사찰전면사찰수용요구를 강력비난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은 미국과 유럽의 핵사찰요구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IAEA는 1993년 북한과의 핵협정 체결을 위한 사찰을 실시할 때부터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 北 7개核시설 전면사찰 수락 거부

# 査察團과 견 안겠다

### IAEA, 4차접촉서 최후통첩

【빈=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일 북한과의 핵협정 체결을 위한 사찰을 실시할 때부터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IAEA는 4차 접촉에서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IAEA는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사항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 "1회만 제한査察"

## IAEA대변인 북한과 원자력의

【서울 23일 연합뉴스 보도】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3차례의 査察(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IAEA의 査察(검사)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 北 IAEA 사찰 절차 합의 못하면

# 美 "다름방법 강구" 경고

【워싱턴 23일 연합뉴스 보도】 미국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인 크리스틴 레일리 부처는 "미국은 북한이 IAEA의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레일리는 "미국은 북한이 IAEA의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 北 ZNPP의 안전행위 양행

【모스크바 23일 연합뉴스 보도】 러시아는 북한이 ZNPP(조지프 스탈린 핵발전소)의 안전행위를 양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ZNPP의 안전행위를 양행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ZNPP의 안전행위를 양행했다"고 말했다.

# 北核사찰 하는가 마는가

## IAEA·北韓 신경전 안락

北韓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싸고 IAEA와 북한이 벌이는 신경전은 안락하다. IAEA는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IAEA의 査察(검사)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 양측, 사찰 폭 싸고 立地 확보 전 양상

## "平壤의 강경과 무마 對內用" 분석도

### 결렬은 안될 듯... 빠르면 週末 사찰팀 入北 전망

北韓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싸고 IAEA와 북한이 벌이는 신경전은 안락하다. IAEA는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IAEA의 査察(검사)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北韓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싸고 IAEA와 북한이 벌이는 신경전은 안락하다. IAEA는 핵시설에 대한 1회만 제한査察(제한적 검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IAEA의 査察(검사)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IAEA는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査察(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 北-IAEA 핵협상 "답보상태"

## 4차례 접촉... 계속 줄다리기

지난달 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지난 19일과 20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4차례 접촉에서 IAEA에 대해 7개 해결안과 5개 불확실성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상충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협상을 내다 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4차례 접촉을 가졌다. 이들 접촉이 파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4차례 접촉을 가졌다. 이들 접촉이 파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4차례 접촉을 가졌다. 이들 접촉이 파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 査察대상·방법싸고 對立여전

### 來21일 IAEA理事會 전후가 타결고비

북한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북한과 IAEA는 바로 이같은 사실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대립,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IAEA는 2월 1일부로 협상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협상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파리=韓基泰특파원】

# “北核 실효없는 사찰 거부”

## IAEA 총장 핵물질 빼돌렸나 확인해야

【파리=연합】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3일 IAEA 총장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사찰은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 핵물질의 인장이 전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더 이상 구체적 내 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장은 이날 프랑스로부터 라시옹네르와 회견에서 “북한 핵물질의 인장이 전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정 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 지난해 영연에 대한 마지막 사찰 이후 핵물질을 다룬 뒤의 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찰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IAEA의 핵사찰 조건이 이미 신고된 7개 핵시설에 대해 작년 까지 실시했던 것과 같은 사찰을 계속하고 ▲2개의

추가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밖의 이러한 사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 이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수준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북한은 영연 핵시설에서 최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 사찰팀은 북정량의 플루토늄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은 플루토늄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4일 오전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야기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사찰을 재개했다. IAEA 대변인은 북한 측 협상팀이 이날 오전 11시 IAEA 본부를 찾아와 협상시간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5차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AEA 총장 지난 21일 7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만으로도 2주일의 소요된다는 사실을 간파하면 오는 2월 11일의 이사회에서 사찰결과를 보고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상타결의 시한을 넘긴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 北-IAEA, 5차접촉 北, 핵사찰범위등 전달한듯

【파리=연합】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3일 IAEA는 북한이 지난해 영연 핵단지 내 시설에 대한 마지막 사찰 이후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의 여부를 불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사찰은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날 자 프랑스로 일간신문 리베라시옹네르와의 회견에서 북

한의 핵인 “핵확산금지조약 관련해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 IAEA의 사찰이 북한에서

와 같이 불허된다면 “문제 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3일 IAEA는 북한이 지난해 영연 핵단지 내 시설에 대한 마지막 사찰 이후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의 여부를 불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사찰은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파리=연합】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3일 IAEA는 북한이 지난해 영연 핵단지 내 시설에 대한 마지막 사찰 이후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의 여부를 불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사찰은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파리=연합】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3일 IAEA는 북한이 지난해 영연 핵단지 내 시설에 대한 마지막 사찰 이후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의 여부를 불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4일 오전 핵사찰문제와 관

# 北韓 시간별기 名分に 集착

## IAEA와 協商지연 이유 뭘까

북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정부는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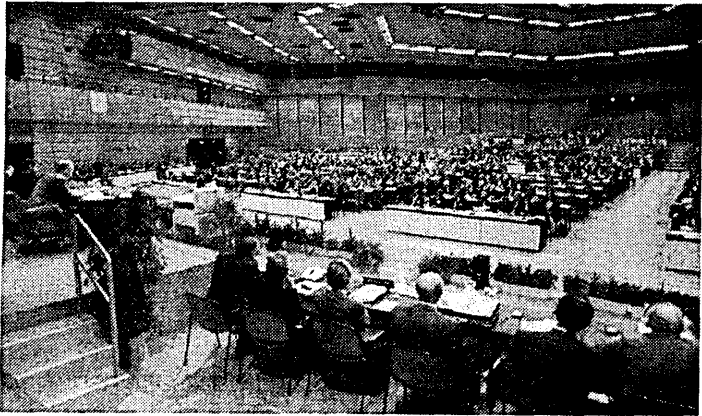
북정부는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핵실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韓美양국 "제한查察" 고집엔 강경 對美협상카드 活用 布石

한미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IAEA의 제한적 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미회담 중 북한측 대표단이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이다.

### 美정부-의회 「北核」 막바지 조율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輿論수렴... 制裁결정만 남았다

#### 北측 도발대비 駐韓미군 戰力강화도 준비

북측의 도발에 대비하여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측의 도발에 대비하여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측의 도발에 대비하여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北 核사찰 수락가능성 희박"

## 답변미룬채 비난만 계속

### IAEA대변인

【단-평】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일 북한이 핵사찰 수락 여부를 대 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북한이 사찰수락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대변인 키트 IAEA 부대변인 데이비드 홀은 부러 아직까지 아무런 통 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북 핵문제 답변 전만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AEA가 요구한 모든 시설의 사찰을 거부하자 지난

주 이들 시설에 대한 사찰 의 필요성을 밝히는 한편, 전체 시설에 대한 사찰이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 를 담은 설명서를 보내준 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

고 있다. 키트 대변인은 『그들의 대답은 적대적 발언들을 하다가 돌변해서 『축하』 사찰을 재개하자고 말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 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核사찰 난관복합  
駐北대사  
모스크바=AP  
핵시설 사찰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의 불꽃을 터뜨리고 있다.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孫成弼이 3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孫은 미국이 최근들의

취하고 있는 행동이 협상 을 이용해 시간을 벌며 북 한에 대한 전쟁도발 준비 를 완수하면서 그들의 진 정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 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탈북 타 스물신이 전했다.

# 北-IAEA 실무접촉 재개

## 거부 20일만에 빈서 핵협상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

### 美·北도 뉴욕서 금명 접촉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상을 거부한지 20여일만에 IAEA와 다시 대화를 재개, 북한핵문제의 극적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AEA와 북한측은 15일(현지시간) IAEA 본부

에서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고 있다고 접수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북한측에서는 빈주재 유호진참사관이, IAEA측에서는 페리코스해안지국장이나

북한측의 실무대표들은 사찰과 관련한 평양당국의 협력을 휴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북한측과 IAEA 관계자들은 모두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

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번 IAEA와의 접촉에서 사찰수준을 핵안

전조치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선으로 다소라도 낮춰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해 IAEA측은 사찰의 성질을 명문화하는 등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양측의 실무접촉이 한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홍익·민·팔문첩서 잇단 "異常" 노출

# 北 「核정책 혼선」 징후

北韓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수용 허용 여부를 표명할 수 있는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 北韓과 美國의 뉴욕 정부 참사인 許鍾우(인부대사)와 허바드(美 국무부 북핵담당)가 접촉을 시작했다.

美 국무부 대표 1인 하

허바드(美 국무부 북핵담당)가 "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北韓의 IAEA 사찰수용을 환영했다. 하지만 허바드(美 국무부 북핵담당)가 "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北韓의 IAEA 사찰수용을 환영했다.

「IAEA」가 위치해 있는(北)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으나, 아직 협상을 받 은 바 없다. 허바드(美 국무부 북핵담당)가 "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北韓의 IAEA 사찰수용을 환영했다.

최근 정부당국자들로부터 IAEA 사찰수용 전후 로부터 드러나는 北韓 핵 정책이 뭔가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 고 있다. 핵협상내인 美 國과 빈, 심지어 관공점의 서까지 그런 이상기류가

답글자들 사이에 北韓의 김영기대장은 「상당부분 더 IAEA 사찰수용 전후 단 北과 남북대화 재개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관공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장이 국무부 북핵담당을

다들 얘기도 잘 안 들려서 나쁜 것으로 보인다. 핵해결 안 되면 우리 하지만 정부당국도

## 北대표들 "사찰수용 허용령 못받았다" 답변

## IAEA 사찰단 入北비자 며칠째 미뤄

## 核실무자 교체등 전달체계 문제" 추측

고백과 IAEA 사찰단의 입장과 北韓의 비대표부 尹홍진 참사관은 15일 IAEA 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비대표부 尹홍진 참사관은 15일 IAEA 관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인 北韓의 엘렉스워

그 이유에 대해 현재까

「인부대사」가 다시 美 쪽의 요구를 무시하면 해

사찰단이 입북할 수 있는

「美」 국무부 문서화해라

北韓이 핵정책에서 혼선을



# 北核 특별사찰 수락 촉구

IAEA이사회 오늘개막 **최근 北韓동향 집중논의**

【단·金雅熙】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가 21일(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金雅熙】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가 21일(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金雅熙】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가 21일(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北韓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이날 한스 블뤼스사부총장의 노부 부하파의 핵사찰협약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23일 노부 부하파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는 북한의 사찰수단으로 위기상황이 호전돼 특별사찰수단 촉구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AEA이사회 오늘폐막

보고에서 북한대표 이번 합의된 사찰의 법적지위는 제이다. 이 문제는 장차 북한과의 핵사찰협상 및 사찰협약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여부가 있다. 블뤼스총장의 보고에서 IAEA가 요구했던 사찰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했거나 사찰의 공식적 근거에 관해 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핵사찰협약의 부속인 정식인 입시 및 불확실성을 파악하기나, 그러나 이번 이사회가 폐회되면 핵사찰협약의 법적지위에 대한 별도의 사찰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주해야 하"는 문제 다. 와 직결되는 것이다. 블뤼스 즉 IAEA는 이번 이합

스총장은 보고에서 이번 사찰을 "특수한 사찰" 또는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이런 사찰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뤼스총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이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이런 사찰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뤼스총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이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이런 사찰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뤼스총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이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 北 "특별사찰 요구엔 NPT 탈퇴"

### 정기·비정기査察, 美와 일괄타결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외환 미화물 특별사찰을 계속 요구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의 탈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비정기 사찰은 미화물과 양자회담에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핵사찰 합의과정의 대외통행의 마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자와 가진 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기·비정기 및 특별사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문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정체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정기·비정기 사찰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도적 작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핵사찰 합의과정의 대외통행의 마르면 북한

# 北核사찰 법적근거 논란

이같이 법적근거가 모호한 사찰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북한이 특수한 사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6월에 탈퇴발효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현재 불완전한 NPT 체제내에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이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 北韓과 사전합의 실패로 모호 명칭·횡수규정 없어 "불씨" 예고

이런 사찰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뤼스총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찰이 "특별 사찰"이라고 말했다. "특별 사찰"이란 말은 사찰의 목적에 대한 후행조항이 협정문 조항의 후행조항과 일치한다.

## Ⅱ. 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IAEA의 對北 接觸

### 2. 美-北韓 實務接觸



# 「北核합의서」週內서명

## 「북서접촉」 北·美 사찰·南北대화 명시

【워싱턴=김영환특파원】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7일 이날이 접박하면 서 이오바주 「북핵과 국 제원자력기구(IAEA)가 내주 초 사찰을 허용할 경우 만의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北·美 간의 합의서 가 실현될 경우에도 IAEA 사찰단이 平壤에도 착한 직후 발표될 가능성 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합의서는 북핵의 핵사찰수용 및 남북대화 재 개문제, 3단계 北·美 고위급회담 개최일정, 틱스과 리트비넨 중립지역의 접박 점인 합의사항의 단일화 등 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단 학차에 핵사찰단 받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된 것 과 관련, 「북·美 실무접촉과 평에서 핵사찰수용에 대한 북·美는 긍정적이며, 북한이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 장하는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북·美 타협을 일부 미국인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 美 "北核 주기적 사찰" 강조

## 크리스토퍼 한반도非核化 실현위해 필수

【워싱턴=丁海榮기자】 워싱턴의 워싱턴에서 북한과 이 핵합의의 취지를 전전 한 매를 지으면 아지 한 핵합에서 추구하는 기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 다. 그는 단 한차례만 핵 사찰을 허용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그러 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를 부인했다.

# 北韓核보유단호저지

## 클린턴 "아직 핵무기 운송능력 없는데 확실"

【워싱턴=연합】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0일 북한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에 관해 서남 정보기관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기관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정보기관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北核전면사찰 거부

## 美, 北사찰 거부맨 3차회담 불응

외교부대변인

【워싱턴=연합】북한이 21일 핵사찰 재개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최근 접촉에서 IAEA가 최종 제시한 7개 핵사찰 전담사찰 수용요구를 강렬히 반대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서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은 아니라 우리가 चाह고 있는 특수한 사찰의 장치는 수반적으로 연속성 보장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서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은 아니라 우리가 चाह고 있는 특수한 사찰의 장치는 수반적으로 연속성 보장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 덧붙였다.

美, 北사찰 거부맨 3차회담 불응

외교부 대변인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北·美·주·내·核·검·측·협·의

## 北서제의美수락 安保理회부전 대화... 돌파구 가능성

### 對北 물밑대화 진행 시사 美 국무부

북한이 최근 미국에 북핵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사찰협상 재개 전담 시한부 실효 조를 갖고 제의했으며 미국측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고위당료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과의 전화협상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며 '미국측도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의 회부하기 앞서 마지막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이 추가 협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료자는 또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는 특이'며 '미국측은 지난번 전화협상에서 IAEA 핵사찰수준과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고위당료자는 '그러나 북핵도 최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료자는 특이 '미국측은 지난번 전화협상에서 IAEA 핵사찰수준과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고위당료자는 '그러나 북핵도 최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IAEA와 대화 재개  
【워싱턴=연합】마이크 매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각국 정부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對북한 마후 대화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IAEA 이사회가 임박해올 때 따라 북한이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북한측은 미국의 양보 가능성을 최종 타진한 후 그들의 향후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측에서 2~3일 내에 미국에 대해 뉴욕 협상을 요구하거나 빈에서 IAEA측과 협의를 다시 시작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물밑 접근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 '마지막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는 최후통첩을 위한 특사출발을 위한 협상 시한부 실효 조를 갖고 제의했으며 미국측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고위당료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과의 전화협상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며 '미국측도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의 회부하기 앞서 마지막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이 추가 협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료자는 또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는 특이'며 '미국측은 지난번 전화협상에서 IAEA 핵사찰수준과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고위당료자는 '그러나 북핵도 최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북핵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사찰협상 재개 전담 시한부 실효 조를 갖고 제의했으며 미국측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고위당료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과의 전화협상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며 '미국측도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의 회부하기 앞서 마지막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이 추가 협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료자는 또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는 특이'며 '미국측은 지난번 전화협상에서 IAEA 핵사찰수준과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고위당료자는 '그러나 북핵도 최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말계 접촉 美·北 마지막 카드는

### 北 7개 핵시설 「안전도 보장」 조치

북한이 최근 미국에 북핵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사찰협상 재개 전담 시한부 실효 조를 갖고 제의했으며 미국측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고위당료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주말 미국과의 전화협상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며 '미국측도 북한 핵문제 유엔안보리의 회부하기 앞서 마지막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이 추가 협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료자는 또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는 특이'며 '미국측은 지난번 전화협상에서 IAEA 핵사찰수준과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 고위당료자는 '그러나 북핵도 최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美 내달 3단계회담

## 北核사찰수용따라 관계개선등 논의 예정

# “IAEA” 특별사찰압력 계속

## 美선 「1회사찰」 이후 조치 요구

【워싱턴 17일路透】 북핵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락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5일 오후 워싱턴에서 16일 오전 3월 중순쯤 북·미간 3단계 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의 허버트 로퍼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17일路透】 북핵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락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5일 오후 워싱턴에서 16일 오전 3월 중순쯤 북·미간 3단계 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의 허버트 로퍼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17일路透】 북핵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락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5일 오후 워싱턴에서 16일 오전 3월 중순쯤 북·미간 3단계 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의 허버트 로퍼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퍼는 “북핵이 핵사찰을 수락하면 북·미간 3단계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3차고위급회담 개최도 "그림자"

북한은 3차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3차고위급회담 개최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다.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2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 美-北 줄다리기 "끝 아닌" 시작



◆북한이 15일 IAEA의 사찰을 전면수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핵문제는 일단 외교적 해결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맞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북핵 실험의 방사화합실현실 전경.

## 北서 꺼려온 南北대화 실현 쉽지 않아

## 탈퇴유보'고수' 또 査察거부 가능성도

## 관계개선 최후 관문 '未신고 두곳' 공개가 최대 難題

북한은 3차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3차고위급회담 개최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다.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2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북한은 3차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3차고위급회담 개최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다.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2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 北·美 「정치협상」 단계로

## 3차고위급회담과 兩者관계

속도 조절하면서 조금씩 양보 나관론  
原點 맴돌기로 실익 최대 확보 비관론

전문가들 "北의 페이스... 쉽사리 타결 안될것,"

북한은 3차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3차고위급회담 개최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다.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2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북한은 3차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3차고위급회담 개최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다. 북한은 1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2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차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3차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 美-北 금명 실무접촉

## 3단계 회담일정-南北대화재개 논의

【워싱턴=연합】미국과 북한은 22일(월) 미국시...

간)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일정과 美·북한 3단계 회담추진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종신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 美-北 접촉 "總論은 끝났다"

토마스 허먼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대표관인 김기남은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 대원칙엔 합의... 各論싸고 밀리다 당시 기 중 고위회담日程·特使교환「형식」만 남는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 "美-北 3단계 회담 일정 핵사찰 착수돼야 결정"

## IAEA, 北核사찰방안 논의 착수

【워싱턴=연합】미국과 북한은 22일(월) 미국시... IAEA는 22일 이틀째...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미국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이날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21일 워싱턴의 대외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유엔주재 미 대사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미 국무부 국제정책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관이 각각 참가했다.

# 北核협결 「협상우선」 전략 필요

## 슬로몬 前亞태차관보 美의회보고 요지

美의회 재정부원인 슬로몬 전 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24일 「북한 핵협결」에 대해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로몬은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로몬은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로몬은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협결은 협상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北경제고립심각... 버티기작전 '오래 못갈 것' 中포함 「국제동맹」 결성 외교압력 강화해야

북한 경제 고립 심각... 버티기 작전 '오래 못갈 것' 중국 포함 「국제동맹」 결성 외교압력 강화해야

북한 경제 고립 심각... 버티기 작전 '오래 못갈 것' 중국 포함 「국제동맹」 결성 외교압력 강화해야

북한 경제 고립 심각... 버티기 작전 '오래 못갈 것' 중국 포함 「국제동맹」 결성 외교압력 강화해야

북한 경제 고립 심각... 버티기 작전 '오래 못갈 것' 중국 포함 「국제동맹」 결성 외교압력 강화해야

# 美·北협상 사실상 타결

오늘 뉴욕전속 재개

## 실무접촉 美대표 "남북대화문제로 한때 진통"

【워싱턴 26일路透사하  
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는 25  
일(이하 현지 시각) 美  
이 北 韓 핵사찰을 놓고 평  
壤과 이미 '개별상의 합  
의'가 이루어졌다는 상태라  
고 강조했다. 美 北 韓 실  
무접촉의 美 대표를 맡고  
있는 워드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소재 아메리  
칸 국제문제연구소가 주  
최한 '太平洋 시대의 韓美  
관계'란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날이 밝히면서  
"오늘 오후 北 韓 요청으로  
뉴욕에서 회담이 재개된  
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美 北 韓이 국제원  
자리기구(IAEA)의 핵  
사찰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  
는 것이란 점에 주목된다.  
그는 北 韓 협상팀이 평  
壤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차질이  
생겼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 워드 부차관보는 그  
러나 美 정부가 美 北 韓 간  
3단계 고위회담을 여는  
조건으로 北 韓이 IAEA  
사찰을 먼저 받고 또 北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平壤측  
은 "동시 진행을 고집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면서 남북특사교환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  
이고 있어 이날 접촉에서  
이견이 해소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측은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美 北 韓 간 3단  
계회담 개최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남북특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있는 반면 韓 美 양측은  
IAEA 차관단이 평양에  
도착하고 남북실무접촉이  
재개될 경우 내년도 틱스  
프리트훈련 중단계획을 발  
표하고 美 北 韓 3단계 회  
담일시를 결정할 수 있지  
만 점차 3단계회담이 열  
리기 위해서는 그전에 남  
북한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북-미 본격정치회담 길터

## 적대관계 변화 한반도 주변 영향 미칠 듯 '핵투명' '실리' 맞물려 넘을 봉우리 칩칩

북한과 미국이 25일 오후와 밤  
에 가진 마라톤 회담 끝에 합의문  
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북한 핵사  
찰과 3단계 고위회담 개최에 중대  
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북  
한과 미국은 합의서 채택을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그리고 밤 11시부터  
11시40분까지 연거푸 회담을 갖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핵사찰 실시와 고  
위회담 개최에 이르는 장애물은  
일단 걷히게 되었으며, 이제 이  
합의대로 실시하는 문제만 남게  
되었다.

이번 북-미 합의서 채택은 좁은  
의미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실시하  
지 못한 핵사찰을 한다는 기술적  
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  
만, 그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치회담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에 중  
대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서로 적  
대관계에 있는 북-미 관계를 생각  
한다면, 적어도 두 나라의 관계개  
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3단  
계 회담의 개최는 두 나라 관계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것은 단순히 북-미 관계의 변화라  
는 파장을 훨씬 넘어 남-북한, 북  
한-일본 등 한반도 주변 나라들의  
관계에까지 기본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이번 사찰은 특별히 돌출  
한 상황이 없는 한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 북한 대  
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잘 완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나 3단계 고위회담 일정을 3월21  
일로 못박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회담에 임하는 미  
국의 기본 태도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다. 워런 크리  
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의회  
증언에서 3단계 고위회담이 열리  
면 최우선 과제가 핵문제라고 여  
러 차례 밝혔으며, 미국은 바로  
핵투명성 확보라는 기본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은 이와는 대칭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이라는 '얻을 것'을 손에  
쥐기 위해 핵키트를 쉽게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3월1일부터 핵사찰이 다시 시작  
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외견상 1  
년전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  
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하나

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승주 의무장관이 2월  
중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설명  
했던 것처럼 사태를 결과만 놓고  
정태적으로 본다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  
태의 흐름 전체를 동태적으로 보  
면 지난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시 말해 지난해는 3월 이후 북한  
핵문제가 악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북한 핵문제가 풀리는 방  
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1년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해  
결의 길로 들어선 핵문제는 넘어  
야 할 산과 봉우리들이 칩칩으로  
쌓여 있는 게 사실이다. 로버트  
갈투치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  
부장 사이에 이루어질 3단계 고위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

조약 완전 복귀 △북한의 핵안전  
협정 이행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 포기 및 핵위협 중지를 포함  
한 정치·외교·경제문제 전반이 논  
의된다고 북한의 허 대사는 밝혔  
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문제해  
결을 위한 3단계 고위회담은 뉴욕  
실무접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질질 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많  
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로 주고 받을 사안이 그만큼  
중대한 데다, 어느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엷히고 설킨 문제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  
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  
오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지난 2  
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기한 정상  
회담 조기개최 의사에 대한 북한  
측 대응이 주목된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 美北 고위회담 짐착... 한발 후퇴

미국은 25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26일 오후 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위회담을 3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인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았다고 발표한 이래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2월 29일 미·북한 합의안을 기초로 사찰시행할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과 합의에 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남북한 특사교환문제 등을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오다가 25일 시간의 쉼기 없이 실무대표단의 회담이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 北 발표문요지

미국측은 올해 팀스피리트(TS) 韓美합동 군사훈련을 중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회담(남북핵통제위틀 의미)을 재개하는 것을 지지했다. 우리는 이같은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우리측에 경제제재 위협을 가해오지 않았다. 남북특사 교환문제는 한국측이 제의할 경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짜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

## 美 발표문요지

미국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1일 평양에서 개시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같은 합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양측간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할 다른 몇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다. IAEA 사찰단은 이번 주말 밤을 출발 3월 1일 평양에 도착해야 하며 이들의 입국을 위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IAEA 사찰단이 도착하면 미국은 미·북한간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첫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핵안전연속성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이번 사찰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찰이 개시되면 미국측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오는 3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 核사찰 「3단계」 일정 합의의 안팎

미국의 토머스 허버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차관보는 25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26일 오후 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인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았다고 발표한 이래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2월 29일 미·북한 합의안을 기초로 사찰시행할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과 합의에 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남북한 특사교환문제 등을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오다가 25일 시간의 쉼기 없이 실무대표단의 회담이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점으로 밝힌 것은 합의를 넘어선다. 미·북한합상에서 제의시 키려는 인도적 기술자전이 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양해없이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미국은 3월 1일부 터 북한으로 하여금 사찰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관점에서 형성된 한발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미국은 3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핵안정성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이번 사찰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찰이 개시되면 미국측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오는 3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 특사교환 마지못해 수용역력 北 달래며 특별사찰 관철 의도 美

출에 양해해버린 것이 아 핵통제위원회 접촉을 하자 나그 의심을 갖게 만들 는 제의고 미·북한회담 협상과 남북대화를 부러하 미·북과 북한은 남북특 사 교환문제 놓고 상당한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 을 심할 것을 보여준 것이 사 실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한글이 특사교환을 제의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는

특사교환을 마지못해 수용역력 北 달래며 특별사찰 관철 의도 美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 는 보상은 관계개선과 원 조력이다. 그러나 협상자 체가 어렵다. 그러나 미 국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및 한미간을 부러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는 이로 3차 회담에 대한 전망이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뉴욕=김홍준특파원】

寧邊2곳 특별사찰이 어떻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美「관계개선」보장 北査察수용 관건

의뢰하기 때문이다. IAEA는 이곳을 이...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3단계 고위급회담서 실시여부·방법 논의

부터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받...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어떻게...

북-미 접촉 북한대표 허종 대사 회견

“미 부당 전제조건 철회 다행”

‘일괄타결’로 북-미관계 정상화 희망



다음은 그동안 뉴욕에서 열려 온 북-미 비공식 실무자 접촉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부대표 허종(사진) 대사와 26일에 가진 회견 내용이다.

미 관계를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해결하여 조선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 회담이 애초 예상보다 오래 끌게 되었는가?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동노력을 기울일 목적 아래 뉴욕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가져 왔다. 이러한 협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94년 3월1일을 기해 다음의 네가지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을 3월1일 관문점에서 재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쪽에서 실무자 접촉 재개를 요청하면 3월1일에 바로 열리게 된다.

-그동안 회담을 통해 마침내 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일을 성사시킨 뒤의 소감은 무엇인가? =3단계 고위급회담을 마련할 수 있는 전망이 생기고, 3단계 회담에서 핵문제뿐 아니라 조-미(북-미) 사이의 전반적인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에 대한 전망을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늦었지만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합의문 채택에 성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서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비정상적인 조

는가? =기본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93년 6월11일부로 발표된 조-미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공화국과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94년 3월2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특사교

인가? =제네바 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인가?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위싱턴/정연주 특파원



# 특사교환·사찰이행이 「3단계」전제

## 美 국무부 北核브리핑·회견 내용

【워싱턴 1일路透기자】 28일 미 국무부 부속의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접근법은 1.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것, 2. 핵시설을 국제감시하에 두는 것, 3.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 「人權·테러·미사일문제」도 논의 南北대화도 「北核해결」의 기본요소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접촉」관계장관 회의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 문제 위해 1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공관을 떠나고 있다. <鄭漢植기자>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3단계 접근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北·美 3단계 회담

# 韓·美 내일「立場」 재조정

## 갈루치 오늘 訪韓 特使 교환 안 되면 延期 확실

### 南北 접촉 난항... 12일 다시 절충

韓·美 양국은 11일 서울에서 북한 핵관련 고위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北·美 뉴욕 접촉에서 합의된 4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北·美 3단계 고위급 회담 대책을 위한 양국 입장을 조율한다.

정부는 이어 앞서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국무총리공관에서 李會昌총리 주재로 통일관계 고위전

담 개최이전까지 특사교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3단계 회담으로 보고 특사교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對北 설득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양국은 그러나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을 수 용, 예정대로 3단계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북 한이 IAEA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찰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北·美 3단계 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美 고위급 회담 미국 측 대표인 갈루치 차관보는 우리나라와의 입장조율을 위해 10일 오후 내

일 오전 6차 실무접촉을 갖고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12일 오전 6차 실무접촉을 갖고 했다. 宋樂大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접촉이 끝난 뒤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北·美 3단계 회담이 열릴 수 없다

이것과 더불어 남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12일 오전 6차 실무접촉을 갖고 했다. 宋樂大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접촉이 끝난 뒤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北·美 3단계 회담이 열릴 수 없다

【워싱턴 10일路透電】 미국 정부는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이 현재 북한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핵사찰의 만족스런 종결 및 남북한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北·美 간 3단계 회담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설리대변인은 이어 북·미 간 3단계 회담개시의 주요한 전제가 되는 남북한 특사교환도 21일의 회담예정일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Ⅱ. 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IAEA의 對北 接觸

### 3. IAEA, 北韓 核査察



# 北, 核사찰 수락

## IAEA 접촉서 합의

### “금주내 入北 全面사찰 실시”

#### 美하원 軍事委員長 주내訪北 金日成면담

【파리=韓基泰(파리) 특 기자발표했다.】  
 한 「15일 하오 5시 30분  
 (한) 시간 16일 새벽 1시  
 30분) 국제원자력기구(I  
 AEA)의 임시및통상사  
 찰을 전면 수락한다고 전

했다. 이날 밤에서 I  
 AEA와 상하오 2차례  
 연쇄접촉을 가진후, 심영을  
 발표, 「IAEA가 요구  
 했던 7개 실험해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락할것을  
 IAEA에 공식 통보했  
 다고 밝혔다.  
 IAEA의 공중으로 받  
 표한 이 심영에서 IAEA  
 는 이번 사찰은 사찰이 중  
 단원이후 북한의 핵물질이  
 전량 확인되지요부를 집중하  
 는데 목적의 있다고 밝혔

감시카메라를 교체하고 핵  
 시설에 대한 동인상대를 점  
 진하여 영국의 사찰을  
 동을 용이하게 할수있도록  
 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  
 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촉은 북한의 요  
 다. IAEA는 또 이같이  
 사찰할 경우에도 북한의  
 기존 핵시설에 설치돼 있는

대표부 등 중점참사관인 핵  
 사찰을 수락한다. 또 평양  
 국의 최중요인들을 페리코스  
 IAEA 아시아지역 핵안  
 전조치국장에 전담했다.  
 북한은 IAEA가 만  
 족할만한 전면적인 임시및  
 통상사찰을 수락함에 따라  
 21일부터 열린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무기개발의 유  
 연안과 핵무기개발을 주의하  
 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여부를  
 엄밀히 검토할수있도록 특  
 별사찰제도를 논의되지 않  
 았다. 특별사찰제도는 북  
 한이 일단 임시및 통상사  
 찰을 수락함에 따라 국제  
 개입으로 논의된다. 「美-  
 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것  
 이므로 보인다.  
 데이비드 키니 IAEA  
 대변인은 IAEA 사찰단  
 이 IAEA의 전기이사회  
 가 시작되기 이전인 14주  
 말까지는 평양의 파견될것  
 이문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리=金基泰(파리) 미  
 국과 북한의 핵사찰제도를  
 둘러싸고 대치상태로 접  
 하는 시점에서 독일 V  
 델프스美하원군사위원장  
 (민주·캘리포니아주)이  
 이르면 중점접촉을 종료해  
 평양을 방문, 김일성주석  
 을 면담할것이라고 뉴욕타  
 임스紙가 15일美정부소식  
 통을 인용,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델프스위  
 원장이美정부를 파리 I  
 (영)시간 출국해 서울  
 에 도착하면 곧 평양을 방  
 문할것이라고 보도하고 그  
 의 발언은 북한정부의 초  
 점으로 쿠르미의 주선생의  
 며를인내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고 전했다.

# 고립不願 高육책

## 北核사찰 전면 수용 배경

핵사찰범위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협의는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됐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 한채 1월25일 6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다가 16일 오전(한국시간) 다시 접촉을 갖고 북한이 IAEA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적으로 타결 지은 것이다.

찾고 IAEA의 사찰수락 여부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 사찰 문제를 지난해 12월부터 北美 뉴욕 실무접촉에서 논의한 뒤 IAEA와 의 협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IAEA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으며 유엔 안전협정에 따른 사찰수용은 IAEA의 독립성과 공 T에 완전 복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IAEA의 사찰을 핵안전협정에 따라 모두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IAEA 등 국제사회가 사찰수용을 요구해 자신들이 「선의의 조치」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이 NPT를 완전 탈퇴하지 않은 만큼 핵 안전협정에 따른 사찰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을 수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든 물론 외교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정부내에서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IAEA 사찰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 制裁댄 경제황폐·政權불안 우려 核카드 소진·막다른 골목 판단

북한은 IAEA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찰만을 수용하겠다고 버렸으며 IAEA는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 규정에 따른 사찰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이었다.

북한은 실질적인 사찰대상인 7개 시설에 핵심시설인 방사화학시설과 5MW급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을 고수했다.

반면 IAEA는 핵안전협정 규정에 따라 7개 시설 모두에 대해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제한사찰」과 IAEA의 「전면사찰」이 팽팽히 맞서왔던 것이다.

IAEA의 영정안 문제를 북한이 불가사의로 전도시킬 예정이다. 북한이 IAEA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구라 인식될 수

정신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 IAEA 입장을 뒷받침했다.

북한의 IAEA 사찰수용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 다. 북한은 자신들이 NPT

의무가 아직도 있다고 강조 하고 있다.

북한이 사찰 수용시한인 오는 21일 IAEA 이사회 개회를 불과 5일 남겨놓고 IAEA의 요구대로 사찰

어렵사리 성사시킨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金鑽弘기자〉

북한은 IAEA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찰만을 수용하겠다고 버렸으며 IAEA는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 규정에 따른 사찰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이었다.

# 南北대화 아직은 불투명

## 北韓 사찰수용이후 과제-전망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北 韓 3단계 회담의 다음 조 건인 남북대화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남북대화의 진 전여부는 향후 북한 핵무 제의 해결 진도에서 최대 의 변수로 부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韓美 양국이 짜 놓 은 시그널이 일었다. 韓美 양국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합의했다. 韓美 양국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합의했다. 韓美 양국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합의했다.

## 北 "제재는 피했다" 또 지연저술 펼쳤다

### 정부 신축대응 입장... 진척가능성 커

우선 IAEA의 핵사찰 팀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평양의 도화리 105리 리트르단과 北 美 3단계 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표하게 된다. 이르면 3단 계 회담 개최 시기는 핵사 찰에 필요한 기간이 2~3주인 점과 남북대화 진척을 위해 시간 여유가 될만한 점에 대해 '93년 3월 말 이후에 북한 핵사찰 접 수'를 전한다.

이제 IAEA의 북한 핵사찰에 대한 사찰결과 의 기지 양양인 무조건적 이 불사찰은 100%의 안전 한 포석이다.

한편 IAEA가 만족 할만한 사찰을 실시하고 북한이 사찰을 받기 위한 이나 사찰의 준비작업 후 의 남북대화를 전제조건 으로 진행하면 北 美 3단 계 회담 개최를 준비할 것 이다. 3단계 회담은 3 개월 이내에 열릴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한핵관계 주요일지〉  
 (93. 3. 12 NPT 탈퇴 이후)
- 93. 3. 12 북한, 「정부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 93. 3. 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 93. 3. 31~4. 1 IAEA 특별이사회
  - 93. 4. 1 IAEA 특별이사회, 유엔안보리 보고 결 의 채택
  - 93. 4. 8 유엔안보리, 안보리의장성명 채택
  - 93. 5. 10~14 IAEA 사찰단 방북 (장비교체 및 정 비 등 제한된 범위 활동)
  - 93. 5. 11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825호) 채택
  - 93. 6. 2~11 미-북한 제1차 고위급회담 (뉴욕)
  - 93. 7. 14~19 미-북한 제2차 고위급회담 (제네 바)
  - 93. 8. 3~10 IAEA 사찰단 방북 (장비교체 및 정 비 등 제한된 범위 활동)
  - 93. 8. 31~9. 4 IAEA-북한 협의
  - 93. 9. 21~24 IAEA 이사회
  - 93. 10. 1 IAEA 제37차 총회, 결의 채택
  - 93. 11. 1 유엔 총회, 결의 채택
  - 93. 11. 23 한-미 정상회담
  - 93. 12. 3 IAEA 이사회
  - 93. 11~94. 12 미-북 실무접촉 수차 개최
  - 94. 1. 7부터 IAEA-북한 접촉 수차 개최
  - 94. 2. 15 북한, IAEA 측에 7개 신고시설 사찰수 락 통보

남북대화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해왔다. 우리 정부는 역시 北 美 3단계 회담을 위한 불변 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 화의 진척을 높일고 수해 왔지만 북한 핵문제에 마 지에 이르면서 '先핵사 찰' 후 대화의 순서로 남 북대화문제를 우선순위에 서 두는 것이 옳은 것이라 는 것이다. 미군을 비롯 한 북 3단계 회담의 진척이 확실해졌을 때 남북대화도 진척될 수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韓美 양국을 진척시키기 위 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 능성이 크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사찰협상과 마찬가지로 근질긴 지연저술을 구 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 고 있다.

北 美 3단계 회담이 열 리기 이전까지 북한의 남 북대화를 진척시키지 않 으면 3단계 회담은 취소 하겠다는 韓美 양국의 확고한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급자는 '3단계 회

담이 열리지 않으면 그 뒤에는 북한의 2개 미신 고핵시설에 대한 IAEA 의 특별사찰문제가 자 연스럽게 부각될 것이라 며 '韓美 양국내에서는 또다시 對北 강경제재론이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 단 선언을 한 리트르단 후 선의 강경론이 노골적으 로 드러나갈 것으로 추측 된다. 게다가 북한의 태 도여하에 따라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논의 가 새틀게 시작될 수 있 다 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찰의 反轉을 막기 위해 남북대 화의 수중의 유동성을 높 이 북한 안의 것으로 양양했다. 韓美 양국을 수중의 유동성을 높 이 북한 안의 것으로 양양했다. 韓美 양국을 수중의 유동성을 높 이 북한 안의 것으로 양양했다.

# 「對峙」 벗어나 「對話」로

## 체제存亡건 도박위험 판단

### 北韓 사찰수용 시설의 배경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핵사찰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철폐될 때까지 북한은 핵사찰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 제재단행맨 政權안보큰타격우려 버티기로 實益 다 챙겼다" 계산한 듯

### 北임시·통상核사찰수락의미

【서울=연합통신】 북한은 이번 IAEA의 핵사찰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 美·北 "최악구면인" 피하고 보자 1년전 '상황이로' 원위치된 꼴

【서울=연합통신】 북한은 이번 IAEA의 핵사찰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대변인 성명(전문)

정부는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대외로 약속한 바와 같이 일관된 남북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IAEA 사찰 수용이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 IAEA의 발표내용(전문)

최근 수개월간 빈에서 열린 협상 끝에 북한(DPRK) 정부는 자국의 7개 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구를 수락했다고 북한대표가 15일 IAEA에 발표했다.

사찰 목적은 북한 시설들의 핵물질이 지난번 사찰 이후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사관들은 향후 지속적인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 예를 들어 감시카메라의 재장전 및 불인교체를 할 것이다. 북한정부는 IAEA가 그동안 협상에서 제기해온 설명과 해명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했음을 북한대표를 통해 전달해왔다.

IAEA는 이같은 새로운 진전을 환영한다. IAEA는 북한이 사찰조사단의 입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서한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했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체제存亡의 도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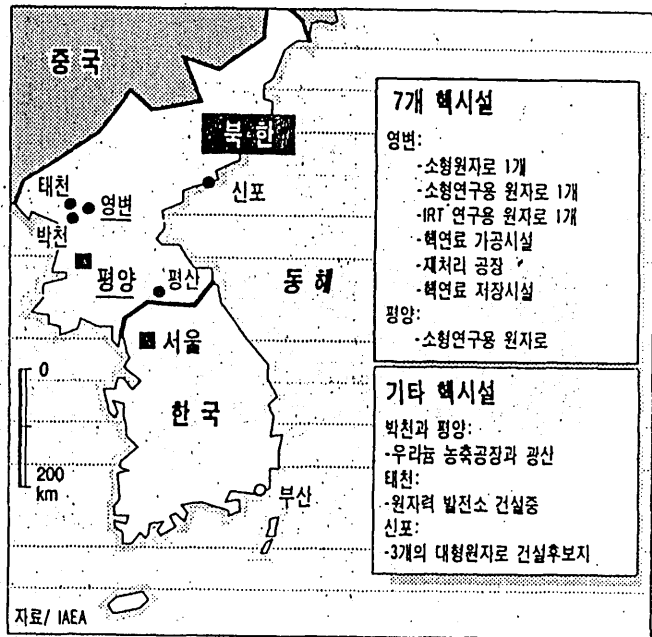


# 선물 더 얻어내기 北의 전략

核사찰팀 入北비자발급 왜 늦어지나

동아일보 1994. 2. 20 (5) ▽

IAEA가 사찰할 북한의 핵시설 7개소



이 나라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핵사찰 수락지후 정부도 북한의 핵사찰을 위한 태도와 관련 두가지의 산란된 시나리오를 상상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더라도 북한이 핵사찰을 위한 태도와 관련 두가지의 산란된 시나리오를 상상

## “IAEA 사찰단 週內 入北”

### 韓일무 2국會見 北 美 내달 하순 3 단계 회담

韓일무 2국會見 19일 나 21일 시작되는 IAEA 사찰단의 입북을 앞두고는 비자 발급과 사찰활동의 시작을 앞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입북을 앞두고는 비자 발급과 사찰활동의 시작을 앞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입북을 앞두고는 비자 발급과 사찰활동의 시작을 앞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 “金正日의 생일잔치로 지연” 관측 핵정책 실무차원서 혼선 분석도

핵정책 실무차원서 혼선 분석도

북한이 19일까지 IAEA 핵사찰단에 비자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사찰단은 북한 입북을 위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북사찰단은 북한 입북을 위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북사찰단은 북한 입북을 위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이 19일까지 IAEA 핵사찰단에 비자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사찰단은 북한 입북을 위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북사찰단은 북한 입북을 위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 北核사찰내달1일부터

## 北·美 합의서 채택 IAEA사찰단 오늘 平壤으로

### 고위급회담이 21일에

### 南北特使교환·「팀」후견중단도

#### 사찰시작시점 韓·美 동시발표

【워싱턴=김영환특파원】미국과 북한이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오후) 뉴욕에서 비공식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사찰과 3단계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합의했다. 북핵사찰단과 북·미 특사교환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이날 평壤에서

3월 1일부터 핵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어 따라 IAEA사찰단이 27일 평壤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날 평壤에서 또 오는 3월 21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이 때까지 북·미 특사교환을 정례화해

받고 남북 특사교환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핵사찰이 시작되는 3월 1일 합의문제가 북·미 특사교환과 북핵사찰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부터 회담에 들어가 3시간 동안 최종합의서의 전체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의문과 비공식 실무접촉을 받고 나서 밤 11시에 재회담해 40분 동안 합의서를 작성,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점철에는 미국측의 서드머스 허만과 북측의 아·의부차관보, 북한측의 許鍾의 주주재부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에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이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합의

이것이 20일 유한 이진철을 평壤으로 초청한 이후 합의문과 핵사찰단장의 문서화에 관해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쟁을 벌였다.

정규 핵사찰단원 11명 중 28일 북한과 미국간 합동행진과 함께 평壤을 표시했다.

張基浩의 무부대장인인 이날 평壤을 보고 『北美 접촉결과 핵사찰이 실현되면 대대 핵합의가 이뤄진다』는 '이'는 韓美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을 때만 합의가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承哲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이 중단된 지 1년만인 3월 1일 북한의 7개 핵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함에 따라 그 대상과 활동범위에 관한 점이 모호하고 있다.

7월이래 구상된 사찰단인 핵시설의 설치된 장소, 집시시설의 위치와 시설, 북한측의 설명과 함께 사찰의 세부적인 이관한 점의 부분적 실행을 통해 핵시설의 안전성, 신뢰성, 운영가능성, 원자로의 안전성, 핵연료의 안전성, 핵폐기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핵시설의 안전성, 신뢰성, 운영가능성, 원자로의 안전성, 핵연료의 안전성, 핵폐기물의 안전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IAEA와 북한의 핵시설 7개 시설에 영연방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재개한다.

방사화학실험실의 시설의 핵재처리시설, 사찰을 영연방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재개한다.

# 北核 군사목적 轉用여부 규명

## IAEA 사찰단 무슨 일 하나

북한측의 추출여부가 사찰의 주요점이다. 사찰단은 핵시설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하고 과정을 거쳐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를 무투출을 추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MW급 원자로에서도 군 또는 군사목적에 대한 사찰을 상응하는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6년부터 가동된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 플루토늄추출회수·량과 악중점 최종판정까지 최소 3週 걸릴 듯

사목적의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6년부터 가동된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핵연료봉 교체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IAEA와 북한의 핵시설 7개 시설에 영연방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재개한다. 방사화학실험실의 시설의 핵재처리시설, 사찰을 영연방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재개한다.

# 北核사찰단 平壤 도착

## IAEA 7개 신고시설 査察 위해

서울신문 1994. 3. 2(1) ▽



◇위성이 본 핵사찰 대상 寧邊  
인공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지역. 구룡강을 중심으로 12번은 핵재처리 시설지역, 3번과 13번은 원자로시설지역으로 IAEA사찰단의 사찰을 받게 되는 주요 시설이다. 1번과 10번은 핵연료가공시설지역, 4번과 14번은 연구시설 및 주거단지로서 알려져 있다. [연합]

# 北核사찰 시작

## 어제入北 寧邊 등 7곳 2週間

### 美회담대표 "特使교환이美北3단계회담 전제"

【北京 2월 28일】柳東熙 韓使節을 떠나 平壤에 도착, 7개 신고시설을 2주일 동안 寧邊(寧邊)과 元山(元山) 등 7개 신고시설에 대한 공식적 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단은 1일 하오 북소속 사찰단 7명인 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등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北京 2월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전지공체와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평壤시내에 대한 불확실성, 생활채취작업을 통해 핵재처리공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平壤 28일】北核사찰단 7명(양의근, 김현, 김진, 김진, 김진, 김진, 김진)이 평壤에서 2주일 동안 7개 신고시설을 사찰할 예정이다.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는 것은 2월 28일과 1일 5일간이다.

# 「北核동인」 3개 파손 확인

## 北 시료채취도 거부... 사찰 중단 직면

### 지난 8월 2개 이어 이번에 또 1개 훼손 발견 핵심 실험실서... IAEA 팀 조기 철수 검토

【워싱턴=申相仁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北 핵시설과 장에서 寧邊의 방사능 실험실 3곳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1개 실험실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IAEA는 지난 8월 2개 실험실의 방사능 실험실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IAEA는 지난 8월 2개 실험실의 방사능 실험실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IAEA는 지난 8월 2개 실험실의 방사능 실험실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10일 IAEA 사찰단의 활동 결과 지난 8월 사찰차 이 시설로 1년 전 방사능 실험실의 설치해둔 붕괴된 2개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번에 또 다시 1개가 추가로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IAEA 사찰단은 핵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실험을 하기 위해 설치해둔 붕괴된 1개 더 파손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핵시설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가 사찰단의 방사능 실험실 주변의 시료채취 활동을 중단된 뒤 이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 핵 물질의 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특별이사회를 소집, 북한 핵무기를 유엔 안보리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은 2개 핵심 핵시설 중 5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시료채취는 허용한 반면 방사능 실험실의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 사찰 시험인 14일에 임박해 이를 전격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8월 2개의 붕괴 파손을 확인하고도 시료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외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또 다시 1개의 붕괴를 파손함에 따라 사찰단이 돌아오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北核(北核)시찰에 대한 사찰결과와 방사화합실 협상에 설치해준 북인이 파손된 것으로 밝혀져 北核(北核)시찰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화합실의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등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핵사찰이 제대로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북인 핵시설이 사실이라던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시료채취가 되지 않을 경우 북인의 핵활동 내용을 규명할 수 없게 된다.

IAEA는 이에 따라 북한의 끝내 시료채취를 거부할 경우 사찰단을 즉각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찰단이 철수하게 되면 IAEA는 특별이사회를 소집, 북한 핵무기를 무연(無연) 상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IAEA측은 그러나 북한 핵시설 사찰 시한인 14일까지는 며칠간의 여유가 있다. 다만 사찰단의 파국을 선언하지 않고 북한측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단의 20여명의 북인 중 2개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손된 시설도 확인했다. 북인 핵시설은 IAEA가 핵물질의 전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손된 시설이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 핵시설이 파손된 것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화합실 협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핵시설의 심각성이 있다.

# 北核「투명사찰」중대岐路

## 北核시설封印 파손 과정

다. 방사화합실 협상 진행 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방사화합실 협상 협회기구를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시료채취를 통해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의 북인 핵시설이 파손되었다면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 核물질 다른 곳 轉用의혹 증폭 「협상카드용」 故意 훼손 가능성

IAEA 활동 중단 - 철수면 安保理이 관불가피

동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인 핵시설이 이 때문에 「협상카드용」으로 주창하고 있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이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인 핵시설이 이 때문에 「협상카드용」으로 주창하고 있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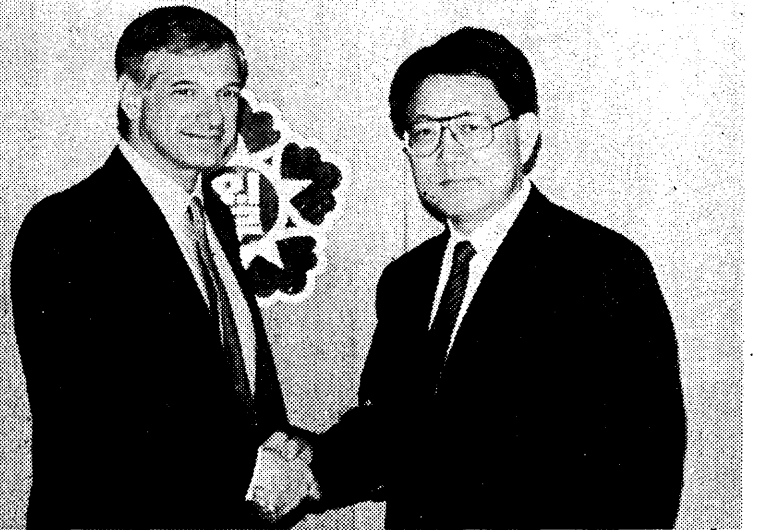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對北(北) 강경 자세를 취하면 북인 핵시설이 파손해 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시설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對北(北) 강경 자세를 취하면 북인 핵시설이 파손해 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시설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對北(北) 강경 자세를 취하면 북인 핵시설이 파손해 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시설의 심각성이 있다.

AEA의 사찰이 일시 및 통상 사찰이 아니라 안전 조치의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도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인 핵시설이 파손된 것은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핵물질의 불변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찰단의 활동이 중단되면 北核(北核)은 「제재구단」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柳箕然 기자)



송삼훈외무부 차관과 김대중외무부 차관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양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송원기기자>

### 사찰차질을 뜨겁게 대응

북핵사찰차질(IAEA)의 북한 영토 침범사찰이 수차례 발생하자 미국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위협하며 사찰차질을 뜨겁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사찰차질에 대해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北核사찰 아직 시간적 여유 美·남관속에 平壤태도 주시

### IAEA 결론 따라 즉각 대응

미국은 IAEA가 사찰차질을 중시하며, 핵안보회의에서 사찰차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찰차질에 대해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토 침범 사찰차질에 대해 미국은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IAEA가 사찰차질을 중시하며, 핵안보회의에서 사찰차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찰차질에 대해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北核사찰 異常있다

## 북주해진 韓·美 정책 조율

북핵사찰차질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매우 강경하다. 미국은 사찰차질에 대해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北속셈 분석

### 「特使절충」 교착

북핵사찰차질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매우 강경하다. 미국은 사찰차질에 대해 "북핵사찰차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의 악재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北核사찰 실패 추정 아직 빠르다

## IAEA 訪北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北韓의 7개 핵신고시설  
에 대한 非核확약(NTG)  
(IAEA)의 사찰이 실패  
할 수 있는 상황이다.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 통신후단없이 조사내용 못보내 추추 난무 美 "봉인 한두개 파손돼도 安全엔 영향없다"

## “큰 결함들 없이 진행” 우세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IAEA」는 11일

에서 사찰팀과 북한측간의  
의견대립이 일부 사찰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그렇지  
않고도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런 「해」를 환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적  
이나면 이해하고 있는  
부담이 있다.  
미국측이 이차 IAEA  
A의 사찰행위의 기밀을  
결코 넘겨주지 않는다는  
합의문도 체결된 후  
북한이 11일 북한이  
말고 있다.



# 北, IAEA 核사찰 방해

## IAEA 소식통 특별이사회 소집 주내 결정

### 활동제한·核물질 군사목적 전용 확인면

# 안보리 상정 여부 검토

【민애포】北韓은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방해했다고 IAEA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IAEA의 한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였으나 IAEA 사찰단이 15일 북한을 출발, 북경을 거쳐 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면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애포】北韓은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방해했다고 IAEA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IAEA의 한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였으나 IAEA 사찰단이 15일 북한을 출발, 북경을 거쳐 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면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애포】北韓은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방해했다고 IAEA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IAEA의 한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였으나 IAEA 사찰단이 15일 북한을 출발, 북경을 거쳐 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면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4. 3. 15(1) ▽

【민애포】北韓은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방해했다고 IAEA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IAEA의 한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였으나 IAEA 사찰단이 15일 북한을 출발, 북경을 거쳐 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면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4. 3. 15(1) ▽

## “北, 全面사찰 방해 理事會 특별회의 소집 가능성”

【파리=韓基泰특파원】북한이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파리=韓基泰특파원】북한이 자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전면사찰을 방해했다고 IAEA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IAEA의 한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였으나 IAEA 사찰단이 15일 북한을 출발, 북경을 거쳐 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면서, 북한측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I A E A 서 「査察제약」 공식 발표

## 「北·美 회담 뒤 취소 불가피」

### 정부, 강경 대응책 강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측의 방악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北美3단계고위급회담을 취소할 경우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미·중·과 대외각국에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IAEA가 북한측의 방악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한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속수단으로 사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알고있을

이들 중중하게 될 것이라 다면서 「그러나 사찰결과 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IAEA가 북한측의 방악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한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속수단으로 사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알고있을

이들 중중하게 될 것이라 다면서 「그러나 사찰결과 고 말했다.

# 「北核 전면 사찰 못했다」

## IAEA 사찰단 빈귀환 오늘 査察결과 공식 발표

### 北韓 「사찰·北美 접촉 거부」 위협

【서울 15일路透電】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

한을 방문한 뒤 15일 밝혔다. IAEA의 한 소식통은 「IAEA의 한 소식통은」

「IAEA의 한 소식통은」 사찰단의 「그들의 임무를 북한 영토의 핵시설을 조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사찰에 대한 위협을 당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 북한핵사찰단의 일원이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北京 AP통신】

【東京 AP통신】 북한은 15일 미·중·韓·美 4국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北美 회담에서」

北美 회담에서 「北美 회담에서」 북한은 15일 미·중·韓·美 4국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北美 회담에서」



# 반쪽査察... 美北核강경선회조심



査察단장 인터뷰 IAEA 북한핵査察단의 올리 하이노넨 단장이 15일 2주일간의査察를 마치고 北京에 도착,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北京=한경연>

## IAEA철수이후美태도주목

국제원자력기구(IAEA)査察단의 15일 오전 북한과 합의한 査察특위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한 미진한 상태에서 平壤을 떠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査察단의 빈에 귀환 IAEA의 공식적인 평가가 나와야 논평할 수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이번 査察결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려 놓고 있다.

美 "미흡하다" 자체평가속 공식논평유보  
再협상거부안보리회부로 '直行'가능성

IAEA 철수이후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1차 査察보고서에서 IAEA의 査察결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IAEA 철수이후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 北核문제 원점회귀 가능성

## 北, 査察중단명령이후 전전

북한은 15일 IAEA의 査察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단장이 15일 2주일간의 査察를 마치고 北京에 도착,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1차 査察보고서에서 IAEA의 査察결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IAEA 철수이후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1차 査察보고서에서 IAEA의 査察결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IAEA 철수이후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1차 査察보고서에서 IAEA의 査察결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IAEA 철수이후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1차 査察보고서에서 IAEA의 査察결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단장은 협상 전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 北, 再협상의 파기... 美北재협의 불가피 유엔의관역상... IAEA 발표가 고비

北, 再협상의 파기... 美北재협의 불가피

유엔의관역상... IAEA 발표가 고비

北, 再협상의 파기... 美北재협의 불가피

유엔의관역상... IAEA 발표가 고비

北, 再협상의 파기... 美北재협의 불가피

유엔의관역상... IAEA 발표가 고비

## Ⅲ. 南北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 1. 接觸 提議 背景



# “남북特使 내달교환추진”

政府 당국자

## 韓美 “北·美 3 단계 회담 前提” 합의

경우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도 들어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北  
과 IAEA 협상, 美國과  
北의 3 단계 회담 일정  
의 몇 발표들의 수순을 거  
쳐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  
이라고 밝히고 “그 시기는  
이달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2월 중순까지는 특사교환  
을 실시한다는 게 韓美 양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일 北韓과 국  
제원자령기구(IAEA)가  
사찰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이달말까지는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  
으로 보고 특사교환선루점  
축하의민 작선등 구체적인  
남북대화대책 마련에 착수  
했다.  
정부는 또 심층접촉이  
재개된다면 北韓이 이에  
선의를 보이지 않아서 北  
韓-美 3 단계 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3 단계 회담 일  
정 발표와 함께 「특사교환

심사들 회담 개최의 전제  
로 명기하도록 美國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北韓이  
IAEA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대로 △美國측과 구체  
적인 남북대화재개시기 △  
先 대화제의 여부 등을 협  
의, 北韓-美 3 단계 회담 합  
의문 발표 이전의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또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심층접촉이 재개될 경우  
北韓이 또 다시 남측에 대  
해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을 요구, 회담을 지연시킬

# 南北 特使 교환 시기 流動的

## 北韓核 해결과 南北 대화 手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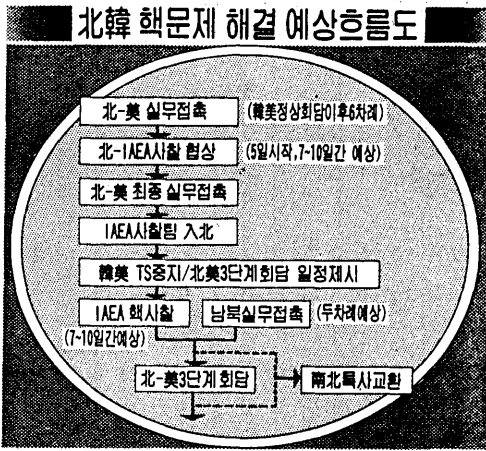
「로 임한다」 것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北韓의 대미관계 부재권 자결권(IAEA)의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 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정부는 「로 임한다」 것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來週중 사찰협상

정부 대미관계 부재권 자결권(IAEA)의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 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北韓의 대미관계 부재권 자결권(IAEA)의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 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北·美 3단계 회담 때 「明記」 추진 月末 南北 실무접촉 再開 될 듯

### 核투명성은 4단계 회담 가야 구체 논의

그때까지 사찰협상이 시 작된 북은 이번 회담 때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 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두가지 苦悶 빠져

정부는 「로 임한다」 것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특별 대화」 어떻게 풀릴까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전후한 「특별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북한, 「특사교환」 지연작전 펼듯

### 실무접촉 조건달아 「시간끌기」 가능성 상호사찰 수용여부는 여전히 비관적

이러한 북한은 실제

북한은 「특별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대화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심 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북 IAEA의 사



# 南北특사 내달초 교환 추진

정부, 내주 실무접촉 제의 면회소 설치등 논의

## 을해 팀스피리트 중지여부 査察-南北대화성과와 연계

정부는 16일 북한이 북측의 북포함의정이다. 제원자령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북한은 3월 초 남북사교화의 실시된다. 고 노무현 특사교환시 북측이 남측에 남측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팀스피리트 중지 내주 선언

## 정부, 조건부로 特使교환 내달중순 실현추진

정부는 16일 북한이 북측의 북포함의정이다. 제원자령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북한은 3월 초 남북사교화의 실시된다. 고 노무현 특사교환시 북측이 남측에 남측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보 특사가 북측에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南北韓 대화 어떻게 될까

남북한 대화는 언제든 비핵화 대화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대화는 남북한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남북한 대화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再開 되겠지만 進展은 불확실

北만 원하면 頂上회담까지 가능 남이 상호사찰 걸림돌 작용할 듯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상호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전은 불확실하다. 상호사찰은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다.



92년 9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원형(左) 장영관(右)이 북측 대표에게 설명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18일 주방에서 열렸다. 양측은 16일 합의문을 채택했다.

南北 대화 "결정된다"

정부-김부전담팀이 준비착수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면 정부는 김부전담팀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는 대화의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北·美관계 맞물려 낙관못해

美 「당근」 약속한 듯... 우선 「特使」 논의부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 미국이 '당근'을 약속했지만 우선 '特使'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화의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 南北 특사교환 이뤄져야 美-北韓 3단계회담 개최

# "美·北 3단계 회담전에 南北 특사교환부터 실현"

## “來週 實務적 접촉 再開될 것”

### 관계장관회의의 정부-인정 정면

정부는 17일 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美·북한 3단계 회담의 개최를 막아 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단계 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美·북한 3단계 회담의 개최를 막아 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단계 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柳承宇기자】

## 韓-美北核포괄협상 합의

### 核투명성·완전확보가 급선무

#### 내주중 美-北 뉴욕 실무접촉 재개

【워싱턴=美로부부】美로부부는 17일 3단계 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美·북한 3단계 회담의 개최를 막아 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단계 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 빠른 리얼리티 확보를 위한 세 부절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美로부부】美로부부는 17일 3단계 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불러내기」 적극대화 자세

## 統一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

대외외교장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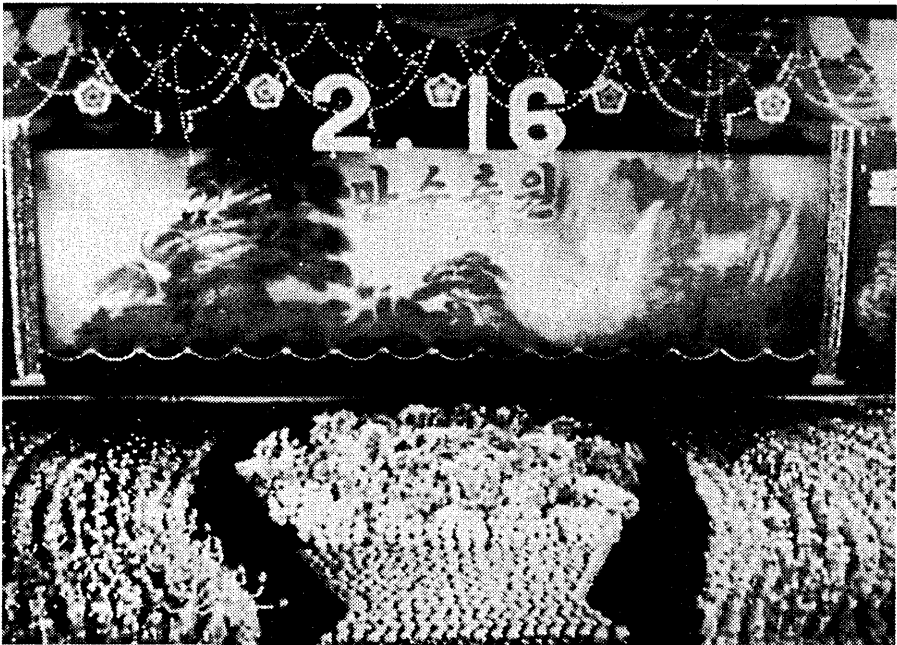
남북관계장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北韓의 북핵문제(北核)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의 파급효과, 그리고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관계장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北韓의 북핵문제(北核)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의 파급효과, 그리고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특사교환이 3단계회담조건 못박아 平壤측 소극적태도 지역전술 우려도

남북관계장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北韓의 북핵문제(北核)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의 파급효과, 그리고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관계장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北韓의 북핵문제(北核)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의 파급효과, 그리고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金正日빠진 생일 기념행사 16일 金正日의 52회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 평壤에서 열린 기념행사. 그러나 金正日は 이날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平壤AP聯)

남북관계장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가 北韓의 북핵문제(北核)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의 파급효과, 그리고 남북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IAEA가 핵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북-미 회담 앞서 남북특사교환 전망

## 내주 남한 실무접촉 제의 북한 호응 맞물릴듯 핵문제 해결 순조로울때 4월께 경제협력 물꼬

### 즉새 풀린 남북협상 진행구도

북한의 핵사찰 수락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내주 시작된다. 이에 대응해 남북대화도 북한-미국 3단계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에서의 북한-미국 접촉과 17일의 안보관계장관 전략회의 등에서 합의된 앞으로의 협상구도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과 남북한간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재개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갈무치 미 국무차관보가 뉴욕 접촉에서 북한에 전달한 서한과 이번 주말쯤 또 접촉을 갖고 미국쪽에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쪽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답신은

이 과정에 대한 '이정표'의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한쪽의 답신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유동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다면 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시기는 22, 23일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지난해 11월 중단된 특사교환을 위한 관문점 실무접촉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특사교환 실무접촉은 4차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부사를 통고한 데 대해 정부가 당시 대화재개를 촉구한 상태라 남북대화의 관행상 북한쪽이

응할 차례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대화 제의를 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19일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돌을 맞아 고위급회담 대변인 이름의 대화 촉구 성명이 나오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화를 제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나오게 될 틱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선언'은 북한으로 볼 때는 그동안 주장해 온 특사교환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 수 있고 남쪽의 처지에서 북한이 사찰수락의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상호적인 대응조치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달말 늦어도 3월초쯤에는 특사교환을 위한 4차 실무접촉이 재개되리라 는 예상'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이 여기에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틱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선언과 훈련이 실제로 중단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원자력기구 사찰팀의 2~3주안에 걸친 북

한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특사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훈련도 실질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차 관문이 통과되면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으나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가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북한-미국 3단계 회담에 앞선 움직임 수 없는 전제로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견해는 미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미국 3단계 회담에 앞선 특사교환은 특사교환에서 남북간 합의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회수에서도 한쪽의 특사가 다른 쪽을 방문하는 한차례의 특사교환이면 된다는 다소 신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3월중에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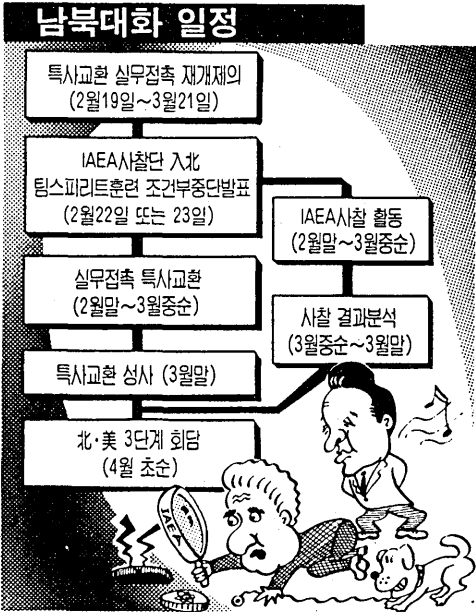
사교환이 실현되면 3월말~4월초에 북한-미국의 3단계 회담과 남북한간의 특사교환을 통한 협상이라는 핵문제 해결의 구도가 정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태진전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핵문제 우선해결 원칙에 따라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남북경협과 관련된 1단계 조치로서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한 입상공요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안 전복, 원자력기구의 임시-동상 사찰 수용의사 표명, 남북상호사찰의 방향에 관한 원칙적 합의 및 핵통제공동위 재개"가 정부가 말하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라는 점에서 특사교환이 진전을 보이는 4월쯤에는 기업인 방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가능하다.

물론 이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태호 기자

정부가 북미회담을 앞두고  
IAEA사찰단 1차  
IAEA사찰단 2차  
IAEA사찰단 3차  
IAEA사찰단 4차  
IAEA사찰단 5차  
IAEA사찰단 6차  
IAEA사찰단 7차  
IAEA사찰단 8차  
IAEA사찰단 9차  
IAEA사찰단 10차  
IAEA사찰단 11차  
IAEA사찰단 12차  
IAEA사찰단 13차  
IAEA사찰단 14차  
IAEA사찰단 15차  
IAEA사찰단 16차  
IAEA사찰단 17차  
IAEA사찰단 18차  
IAEA사찰단 19차  
IAEA사찰단 20차  
IAEA사찰단 21차  
IAEA사찰단 22차  
IAEA사찰단 23차  
IAEA사찰단 24차  
IAEA사찰단 25차  
IAEA사찰단 26차  
IAEA사찰단 27차  
IAEA사찰단 28차  
IAEA사찰단 29차  
IAEA사찰단 30차  
IAEA사찰단 31차  
IAEA사찰단 32차  
IAEA사찰단 33차  
IAEA사찰단 34차  
IAEA사찰단 35차  
IAEA사찰단 36차  
IAEA사찰단 37차  
IAEA사찰단 38차  
IAEA사찰단 39차  
IAEA사찰단 40차  
IAEA사찰단 41차  
IAEA사찰단 42차  
IAEA사찰단 43차  
IAEA사찰단 44차  
IAEA사찰단 45차  
IAEA사찰단 46차  
IAEA사찰단 47차  
IAEA사찰단 48차  
IAEA사찰단 49차  
IAEA사찰단 50차  
IAEA사찰단 51차  
IAEA사찰단 52차  
IAEA사찰단 53차  
IAEA사찰단 54차  
IAEA사찰단 55차  
IAEA사찰단 56차  
IAEA사찰단 57차  
IAEA사찰단 58차  
IAEA사찰단 59차  
IAEA사찰단 60차  
IAEA사찰단 61차  
IAEA사찰단 62차  
IAEA사찰단 63차  
IAEA사찰단 64차  
IAEA사찰단 65차  
IAEA사찰단 66차  
IAEA사찰단 67차  
IAEA사찰단 68차  
IAEA사찰단 69차  
IAEA사찰단 70차  
IAEA사찰단 71차  
IAEA사찰단 72차  
IAEA사찰단 73차  
IAEA사찰단 74차  
IAEA사찰단 75차  
IAEA사찰단 76차  
IAEA사찰단 77차  
IAEA사찰단 78차  
IAEA사찰단 79차  
IAEA사찰단 80차  
IAEA사찰단 81차  
IAEA사찰단 82차  
IAEA사찰단 83차  
IAEA사찰단 84차  
IAEA사찰단 85차  
IAEA사찰단 86차  
IAEA사찰단 87차  
IAEA사찰단 88차  
IAEA사찰단 89차  
IAEA사찰단 90차  
IAEA사찰단 91차  
IAEA사찰단 92차  
IAEA사찰단 93차  
IAEA사찰단 94차  
IAEA사찰단 95차  
IAEA사찰단 96차  
IAEA사찰단 97차  
IAEA사찰단 98차  
IAEA사찰단 99차  
IAEA사찰단 100차

# 南北대화 「빠른 속도」 예상



### 北·美 고위회담 연계로

#### 내달말 가능성... 「核」불성실때 교착

특사교환 연계 이뤄지나

북·미 고위회담이 4월 초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대화 진척이 순조로워질 경우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교착상태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북·미 고위회담이 4월 초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 진척이 순조로워질 경우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교착상태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북·미 고위회담이 4월 초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 진척이 순조로워질 경우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교착상태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北韓美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출 공 고수해온 남북대화 의 중추성을 보이기로 합의 따라 北韓美3단계 회담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 방북을 마치고 17일(현지시간) 다시 미국을 방문한 韓美3단계 회담장관인 김기춘 외무부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對北韓美3단계 회담에서 남북대화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진영협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과 함께 남북대화를 3단계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못을 박은 주체가 오다가 다가 한류였었다. 정부의 한류정부가 북한과의 회담 문제를 7천만 민중의 생 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소외된 채 북한과의 회담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대화 관련 전제조건을 설정했다. 그러나 백관흠 총리도 "정부는 1년 이상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전 격 수용하자 전술의 변화 를 시도하고 있는 것" 이다. 이가 3단계 회담 전 의 남북대화가 이렇저야 한다. 김기춘 외무부 장관은 남북대화의 수반을 대해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韓美3단계 회담이 있 는 여파가 한 일방자가 『남북대화』 핵사찰과 관련된 것까지 수 차례 화해 수 있는 것이냐』 면서 『정부가 단단한 의 의를 사면의 후에도 남북대화 중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北韓美3단계 회담이 있 는 여파가 한 일방자가 『남북대화』 핵사찰과 관련된 것까지 수 차례 화해 수 있는 것이냐』 면서 『정부가 단단한 의 의를 사면의 후에도 남북대화 중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 南北대화 채널 연결 총력

## 정부 신북대응입장 배경-문제점

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통상사찰이 실시되면 北韓美3단계 회담이 열리 면 정부의 입장이 정면면 남북대화의 개시 조건이 된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特使교환에 응통성...접촉再開비중 核자주해결 「마지노선」양보 지적도

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는 중추의 주장을 철회할 부 도 있을 수 있다. 신북대응입장에 대해 남북대화의 개시 조건이 된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金鐘泌 民自黨대표가 17일 대표단원들과 서울에서 「남북대화」를 주제로 한 회담을 하고 있다. (池巨洙 기자)

은 북한이 핵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협상 제공을 위한 응통성 있는 회담하라는 게 중추의 주장이다. 남북대화의 개시 조건이 된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환의 아니더라도 南北 회담을 위한 양측의 각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개시 조건이 된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 하면서 『남북한 상호 사찰을 위한 특사교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3단계 회담 전의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그 원형의 협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사교환의 개시 전 북 표는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행에 있었다. 상호사찰은 시는 지난 92년 2월 남북 회담으로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제4조에 명기돼 있다. 정부의 특사교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면 남북한 상호사찰 실행 여부도 그만큼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욕=鞠箕然 특파원>



# 성사돼도 성과 미지수

북한이 3단계회담을 위한 IAEA의 사찰을 수락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도 미지수인 가운데, 북핵 문제가 3단계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3단계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3단계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과 북핵 합의의 3단계회담이 가동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가운데, 북핵 문제가 3단계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3단계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핵통제위원회 IAEA의 사찰을 위한 3단계회담 임정의 발표다. 따라서 IAEA의 사찰과 특사교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정부, 상호사찰-核통제委 재개 목표 北 「약간의 성의」비친 후 시간끌지도

정부는 17일 북핵 고위급 회담이전에 반년 이상 지연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재개된 남북 대화의 형태가 특사교환 이외의 형태로 진전되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제시했던 한 선의의 정면전이다.

〈安熙福기자〉



정부는 17일 북핵 고위급 회담이전에 반년 이상 지연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재개된 남북 대화의 형태가 특사교환 이외의 형태로 진전되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제시했던 한 선의의 정면전이다.

## “모든對話는 特使교환부터”

### “核투명성 보장위해 상호사찰필요”

정부는 17일 북핵 고위급 회담이전에 반년 이상 지연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재개된 남북 대화의 형태가 특사교환 이외의 형태로 진전되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제시했던 한 선의의 정면전이다.

【柳承范기자】





# 北核 「완전해결」 위한 정책조율

## 韓의무, 클린턴의방·訪美결산

韓의무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변화다른 共助체제 재확인 「對應일정보」 합의 기본틀 마련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대통령에게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양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신연=鄭炳奎기자】

# 「特使」실무접촉 내주 제의

## 南北대화 주도노적 전개

### 정부, 北核사찰 맞춰 頂上회담은 짐작않고 추진

정부는 北美실무접촉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1994. 2. 27(1) ▽

# 특사교환 南北접촉 내일제

## 정부 내달 1일 「팀」훈련 조건부중단 발표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北核사찰을 맞아 頂上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 「眞正회담」까지 이어질까

## 美-북 합의의 「眞正회담」 전망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眞正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협조이다. 그러나 북한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합의 준수면 대화 급진전 가능성 北측 「정상회담」 구속감 없어 문제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眞正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특사 花信 따라 平壤 갔다

## 교환時機·人選에 관심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眞正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이르면 내달 중순 가능

## 朴寬用실장·金憲안기부장등 거론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眞正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眞正회담」 추진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은 「眞正회담」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南北 최초 공개特使 교환 기대



◇지난해 10월2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宋榮大남측수석대표(오른쪽)와 朴英洙북측수석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특사교환 남북합의서 초안 비교 (3차 실무접촉 당시)

구분	南	北
특사의 급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권위있고 책임있는 고위급
인원	수행원 10명·취재기자 6명	수행원 10명·취재기자 6명
인무	최고당국자친서전달·구두로 설명·정상의 의견을 협의	▲최고위급친서전달·구두설명 ▲한반도 비핵화이행 ▲남북합의서 이행 공동대책 ▲정상회담 ▲10대강령 실천문제
교방	유연교환	엇바꾸어 방문·정양을 먼저
교시	가능한한 빨리	합의한후 15일 이내 첫 방문·다시 15일후 2차방문
일정	4박5일·구체일정 5일전 통보	3박4일·5일전 통보
변안	과거 대화관계 준수	5일전 명단통보·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

한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10대 강령'에 주한미군철수, 핵무기금지, 이념과 신정체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북측이 합의서 초안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서 초안에는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과 '다시 15일 후 2차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이라는 조항은 남측이 제안한 바와 달리 북측이 제안한 바와 다르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 實務대표 접촉再開제의

남북관계 사상 최초의 공개된 특사가 내달중 공개 접촉에 합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 실무를 대표로 하는 특사의 임무는 해 북사의 임무 및 교환 일정의 차이에 대해 30일 이내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실무를 대표로 하는 특사의 임무는 해 북사의 임무 및 교환 일정의 차이에 대해 30일 이내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特使임무·철차문제 논의 국한 두頂上「가점대화」발전 디딤돌

북측은 金日成주석이 제 시했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실천문제를 포함한 5가지를 명시한 반면, 우리측은 친서전달, 설명, 정상의 의견과 합의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내리고 있다. 북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과 '다시 15일 후 2차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北韓과 美國의 25일째 지속된 긴장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북측은 10대 강령의 실천문제를 포함한 5가지를 명시한 반면, 우리측은 친서전달, 설명, 정상의 의견과 합의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내리고 있다. 북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과 '다시 15일 후 2차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 記畧의 눈

## 北韓의 「약속위반」

北韓의 10대 강령 실천문제를 포함한 5가지는 친서전달, 설명, 정상의 의견과 합의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내리고 있다. 북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과 '다시 15일 후 2차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北韓의 10대 강령 실천문제를 포함한 5가지는 친서전달, 설명, 정상의 의견과 합의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내리고 있다. 북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합의한 후 15일 이내 첫 방문'과 '다시 15일 후 2차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통보'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초안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다.

원 저자 (김기영)



# 訪問순서·議題 合意가능성

## 南北실무접촉·特使교환의 爭點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頂上회담 成事여부 기밀투명 經協지원등엔 유연하게 대처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실무접촉을 위한 1차 회담이 28일 평양에서 열렸다. ▲남북 실무접촉을 위한 1차 회담이 28일 평양에서 열렸다. ▲남북 실무접촉을 위한 1차 회담이 28일 평양에서 열렸다.

### 北측이 합의 「北美 회담」 성사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南北韓 신경전

## 「뉴욕 접촉」 해석

「特使교환」合意文싸고 주장 엇갈려  
北측 同時 발표 약속 깨고 일방 공개  
외무부 "3 단계 회담 전제조건 확고하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북한의 영연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 "접촉여부 오늘 답변"

## 特使교환 실무회담 불투명

**오제 우리측에 불모**  
 정부가 28일 오전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3월 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3월 1일 오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고 제의했음으로 회담을 주춧대고 동북해와 실무접촉이 우리측 제안으로 가질 수 없다고 불투명해졌다.

이정다 28일 3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 실무대표회담은 3단계 미북회담을 전제로 한 기밀 가능성이 있다. 북한측은 28일 오후 4시쯤 판문점 양관청회담을 통해 「남북의 평화통일과 평화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처가 「북한의 1일 오후 10시 실무접촉을 갖고 회담이 성사되면 양측이 회담을 연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측이 1일 오후 2시 10분 실무접촉을 갖고 제의를 한 것이 판문점 실무접촉을 갖고 제의를 한 것보다 늦었다. <안희정기자>

# 南北 오늘 板門店 접촉 무산

## 北, 우리측 제의에 "1일답변" 통보

**정부관계자 "타임아웃" 발표 뒤 이단행위**  
 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은 3월 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3월 1일 오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고 제의했음으로 회담을 주춧대고 동북해와 실무접촉이 우리측 제안으로 가질 수 없다고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8일 21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열리 기전의 남북 양측 특사의 교환방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1회 실무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특사교환의 요구조건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특사의 서울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대화재개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측 宋樂大 수석대표는 28일 오전 朴英洙 북측 실무대표단장에 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3월 1일 오전 10시 평화의 집에서 4차 실무접촉을 갖고 제의를 했다.

宋대표는 진통문에서 "북측이 3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삼발입장이 거의 일치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특사교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문제를 마칠것으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 北美관계 단계별 개선

## 수교前 연락사무소 등 中間 조치

**韓의 무관심**  
 정부는 오는 21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열리 기전의 남북 양측 특사의 교환방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1회 실무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특사교환의 요구조건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특사의 서울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는 오는 21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열리 기전의 남북 양측 특사의 교환방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1회 실무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특사교환의 요구조건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특사의 서울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 美 국무부 성명

【워싱턴=연합】남북사교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1일(한국시간) 판문점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인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으면 오는 2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워싱턴에서 밝혔다.

美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대변인은 지난 26일 발표된 성명에서 남북 대화 재개와 宋(宋英洙) 대표단의 부장인 김 제의를 각각 환영하면서 「타임아웃」을 선언한 후 3단계 회담의 관련 약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중립적인 이행을 하고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 핵대화 재개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 "南北 특사교환 선행돼야 北과 3단계 회담"

정부는 오는 21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열리 기전의 남북 양측 특사의 교환방향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1회 실무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특사교환의 요구조건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특사의 서울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 「뜻없는」北태도가 변수

## 南北심무접촉·特使교환전망

南北韓을 사교한 적이 없는 정부가 시정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28일 오전 특사 교환을 위한 제4차 심무접촉을 1일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도 美國과 마후 정중에서 3월 1일 정중 제의하면 이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3월 초 정중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

의 주장을 전폭 수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판판이 없었

해 10월 3차례의 걸친 남북 심무접촉에서의 제의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었다.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 우리측 절차등 응용통성... 成事주력

## 北對美회담의식"시능"그칠지도

이 특사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중 심무접촉 때

정중 심무접촉의 판판이 없었 부조정 시가 남북 심무접촉에 별 뜻이 없었다는 해석과도 무관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시작된 1월 1일 발표된 한 美北 회담(평양회담)은 3차례의 심무접촉의 특사교환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판이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의 대 해 3차례의 심무접촉은 없었다.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정부는 지난 27일 통일 관제 전략회의를 열어 이 평양 방문을 유망하게 전망했다.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심무접촉을 1일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도 美國과 마후 정중에서 3월 1일 정중 제의하면 이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3월 초 정중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

정중 심무접촉의 판판이 없었 부조정 시가 남북 심무접촉에 별 뜻이 없었다는 해석과도 무관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시작된 1월 1일 발표된 한 美北 회담(평양회담)은 3차례의 심무접촉의 특사교환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판이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의 대 해 3차례의 심무접촉은 없었다.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정중 심무접촉의 판판이 없었 부조정 시가 남북 심무접촉에 별 뜻이 없었다는 해석과도 무관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 시작된 1월 1일 발표된 한 美北 회담(평양회담)은 3차례의 심무접촉의 특사교환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판이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의 대 해 3차례의 심무접촉은 없었다.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특사교환 남북합의서 초안비교 (3차 실무접촉 당시)

구분	南	北
특사급	최고급 국가가 임명하는 임의의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최고위급
인원	수행원 10명 취재 기자 6명	수행원 10명 취재 기자 6명
임무	최고급 국가의 친선협력을 증진, 정상과의 친선을 위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평양 방문, 평양 방문, 평양 방문	최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평양 방문, 평양 방문, 평양 방문
교환식	유번교환	유번교환
교환시기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일정	4박5일, 구체 일 정 5일 전 통보	3박4일, 5일 전 통보
신변안전	과거 대화관계 중	5일 전 통보, 신변 안전 보장 각서 통보

# 南北접촉 "너무큰 기대" 없다

남북한의 접촉자들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北對美카드 노림수로 수시 돌출조건제시 特使교환 임박 불구 임무·議題인異見여전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94. 3. 1(3) ▽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북측과-전엔-일제-수백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남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내일상오 特使 실무접촉

## 정부대책회의 北회담 수용... 「팀」 중단 발표 順延

# “지연유감, 北전향자세는 환영”

정부가 1일 서울삼청동 북측인민외사 박정호 부총리 겸 통일외교안보차관과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서울삼청동 대책회의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北측 “3일 실무접촉” 수정제의 일환으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994. 3. 2(3)

## 4개월만의 「南北대화」

### 내일 특사교환 「실무접촉」압박

정부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1일 자진하고 북한이 이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서울삼청동 대책회의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北수정제의 「합의위반」불구 포용  
北측 성의만 「특사임무」등도 신축 대응  
“성과 있으려나” 회의적 시각도

정부는 1일 서울삼청동 대책회의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서울삼청동 대책회의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일 평壤에서 북측 특사 임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南北대화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北韓의 1일외 역점책인 특사교섭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거부하고 3일 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제의를 해 왔다. 당초 1일외 실무접촉은 美北韓간 합의사항이었다. 정부도 이점을 중시, 판문점회담도 1일외 접촉을 전제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28일 이후 국제, 아랍연맹 연합회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대화하고 입장변으로 불 보해 왔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 南北대화 출발前부터 삐걱

## 北, 特使실무접촉 수정제의 안파

합수였다. 즉, 3일외 접촉이 없기 때문일 것이 아니라, 전체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1일외 北韓의 대안이다. 판문점 실무접촉을 전제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28일 이후 국제, 아랍연맹 연합회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대화하고 입장변으로 불 보해 왔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 「팀」판문점중단발표順延...쟁점소지

## 北, 「核」국제공조포기 「큰질긴是非

한반도주장해 북측이 제기할지도 모른다. 합의사항은 1일외 실무접촉에 국한된다. 그러나 北韓은 28일 이후 국제, 아랍연맹 연합회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대화하고 입장변으로 불 보해 왔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반아틀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 귀속의제의 동의한다. 그러나 판문점회담을 전제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28일 이후 국제, 아랍연맹 연합회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대화하고 입장변으로 불 보해 왔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어디까지나 美北韓 3단계회담의 「핵」서리로 인식하고 있는 북측의 입장은 특사교섭의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28일 이후 국제, 아랍연맹 연합회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대화하고 입장변으로 불 보해 왔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회담이 美北韓의 핵심사항이긴 하지만, 1일외 실무접촉이 판문점 회담을 전제로 추진부 중단되는 경계까지 갔다.



〈판문점 특사교섭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에 관한 북한측 수정제의가 28일 1일외 대접 수의를 마치고 판문점을 나서고 있는 李榮德(右) 특사(左) 판문점회담을 전제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李榮錫기자〉

〈趙敏皓기자〉

# 合意 안갯지만 교묘한 「위반」

### 北측 실무접촉 왜 늦었을까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 “對話는北이主導한다” 과시의도 정부, 半信半疑하면서 긍정수용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3차 실무접촉에서 인사를 나누는 宋樂大 남측 대표(左)와 朴英洙 북측대표. 4개월만에 3일 다시 만나게 되는 이들이 南北대화 새장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 실무접촉이 지연되고 있다.



# 美-北합의 첫 출발부터 베껴

## 北 실무접촉 연기... 정부 입장

북한측이 1일도 예정했던 남북특사교섭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3일도 연기시킨에 따라 26일 핵사찰에 관한 北-美 합의를 이행 첫 단계에서부터 베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북한

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개될 남북특사교섭과 관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밀집 단계에 접어들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핵사찰에 대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핵사찰에 대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 우리측제의 무시 「계산된 전략」 판단

### 3단계회담 일정과 연계 美와 시각차

특에 전통적으로 보내면서 회담제의 일환을 바로 다음날인 1일도 연기시킨 것은 한 걸음이라도 북측에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작은 일 팔타겔(SMALL PACKAGE DEAL)이라고 불리던 이 합의는 1일 ▲국제인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시작된 과정에 ▲남북특사교섭을 위한 실무접촉이 재개되며 ▲올해 10월 피리트호련의 중지 및 ▲美北 3단계 회담을 21일 재내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부총리 주재 우리측이 발표지원을 요구한 김대중의 수장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 대안대안을 소개했다. 1일 4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남북대화부의 대하는 「북한사실관계를 위한 실

정부는 1일 일단 북한측이 美北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장을 정리할 것이므로 발표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남북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장을 정리할 것이므로 발표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북한의 남북실무접촉 연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통일관계장관들이 삼청동 종리공관에서 전략회의를 가진 뒤 승용차편으로 공관을 나서고 있다. [崔圭成기자]



# 南北대화 「前奏」부터 “배격”

## 「특사 실무접촉」왜 늦어지나

北韓이 1월 16일 평양에서 3일 남  
북특사교섭을 전격적으로  
수용제의 합의 방안 특사  
교섭을 1월 17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양에서

대장-재개합의 두갈래  
평화협상 북한이 미군과  
의 협에서 3월 1일 板  
門에서 특사교섭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했다. 3월 2일 2월 28일  
대장전환을 제의했다.

북에서 접점을 갖는데  
고급인사들이 있다. 반면  
단위의 사색을 위한 접점  
책임있는 고위급  
실제로 실무접촉 재개를  
한 시점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일 전  
포가 대한하구 시점으로  
화의 당사자인 것이 배  
정확을 갖지 않 「의의」의  
각종하고 同床異夢을 꾸어  
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점을 갖지 않 「의의」의  
각종하고 同床異夢을 꾸어  
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란  
명목으로 재개하는 것이  
가 Resume이며 평양  
다. 미국이 평양에서  
이 단계에서 남북  
대화를 미묘하게  
조정하고 있다. 평양에서  
조정하고 있다. 평양에서

합의이므로 합의란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  
고개를 들고 있다.  
한시한도 인접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한시한도 인접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한시한도 인접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한시한도 인접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지 협정 체결을 위한

## 北-美합의사항英文해석 잇달려 호선 팀이련中斷발표 영기로 미묘한 조면

### 이제 도는 시간차

그런데 1월 16일 평양에서  
94년 1월 16일 평양에서  
94년 1월 16일 평양에서  
94년 1월 16일 평양에서



30번지역 해시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일행이 2일부터 본격시찰할 北韓연변  
지역의 해시설을 인공의성이 촬영했다. 구룡강을 중심으로 12번 지역이  
해자처리시설지역이며 3번과 13번지역이 원자로시설지역으로 이번에 IAEA 사찰단의 사찰을 받게  
되는데 주의 사항이다. (聯)

특사교환에 대한 南北합의서안 비교

	남측	북측	합의의
특사의급	쌍방 각기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권위있고 책임있는 고위급	○
특사업무	친서전달 및 구두로 최고당국자 의견의 뜻을 설명	친서전달 및 구두로 최고당국자의 뜻을 설명	○
협의내용	특사접촉을 통해 쌍방 최고당국자간의 의견차이 지적 확인, 정리 의견치 사안 협의	5개 협의 대상 - 비핵화공통선언 이행문제 -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처를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 - 전민족대단결 도모 문제 - 그 밖의 쌍방이 관심하는 문제 - 최고위급이 만나는 문제	×
특사교환방법	-서로 번갈아 방문하는 유선교환방식 -북측 특사가 먼저 남측 방문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 방문 -남측 특사가 먼저 평양방문 -특사교환을 공개할 것	×
특사의 첫교환시기와 체류일정	-첫 교환시기: 가급적 빨리  -체류일정: 4박5일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	-특사교환합의서에 합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남측특사 평양 방문, 이것이 끝난후 15일 이내 북측 특사 서울방문, 그다음 교환일자는 쌍방 간의합의에 의해 결정  -체류일정: 3박4일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북남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	×
수행원 기차	수행원: 1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취재기자: 6명	동행인원: 10명정도 취재기자: 6명	○
특사접촉 합의사항 발표시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분을 교환한날 부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분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표	○

어쨌든 북한의 그간  
태도변화로 볼때 특사  
사교섭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결실없는 대화를 거부  
기어코 있을 것이라 분석이  
기 때문이다. (朴濟均)



### 남북대화 출발 '일정 차질'

남북대화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면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4차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대해 북한이 이날 전통문을 보내와 3일로 수정제의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질이 빚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국방부가 팀스피리트 훈련의 조건부 중단 발표를 사찰팀의 북한 입국에 맞춰 1일 오후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팀스피리트 중단 발표를 실무접촉 재개의 전제로 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기다리다 지난 28일 답신을 보내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남

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핵전쟁연습 금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문제가 이제는 해소됐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사교환 실무접촉 남북수석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도 이번 전통문을 "북한의 대화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남쪽이 2일 북한에 보낼 전통문에서 3일의 제의를 수락해 4차접촉이 재개되면 특사교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특사교환 방법과 특사의 임무 등 실무절차와 관련된 한 두가지 문제에 대한 절충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실무절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지 않

축이 모두 1일에 이뤄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1일 오전에라도 북한이 남쪽의 제의를 수락하면 오후에는 접촉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사찰팀이 북한에 들어간 것을 빼고는 합의된 '시간표'는 다소 어긋나 버렸다.

◇...국방부는 전날 팀스피리트 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문까지 작성해 놓았으나 북한이 실무접촉 날짜를 수정제의해 오자 다소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국방부는 1일 아침 이병태 장관을 비롯해 조성태 정책실장, 한승의 정책기획관, 김용구 군비통제관 등 관계자들이 청사내외와 북한측이 오전중으로 실무접촉을 통보해 오기를 기다리며 외무부,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락하는 등 부산한 움

## 남북신경전·북-미 합의 해석상 착오 북한자세 적극적...전망 어둡지 않아

북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시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또 이날 북한-미국 사이에 합의된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즉 "1일 실무접촉이 관문점에서 재개된다"는 것은 이날 실무접촉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실무접촉 재개에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 상호불신에 따른 신경전 이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남북대화의 전망 자체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실무접촉을 3일로 수정제의한 북한의 이날 전통문이 우선 특사교환에 대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해 특사교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은 특히 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특사교환의 전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8일 오전 송 차관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보내 1일 10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하자고 제의했을 때 1일의 실무접촉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까지 회신을 보내오지 않아 통일원 담당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오후 4시 이후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쪽의 제의에 대해서는 내일 회신을 보내겠다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이때부터 1일 10시 4차 접촉이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도 통일원은 1일 오후에라도 4차 접촉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뉴욕접촉에서의 북-미간 합의에 따르면 팀스피리트 훈련의 조건부 중단과 원자력기구 사찰팀의 북한 입국 그리고 남북 실무접

접임을 보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전 11시30분께 북한이 접촉시일을 수정해 통보해오자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 발표문' 대신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 발표 연기 발표문'을 급히 작성해 배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당국의 태도로 볼 때 애초 북한-미국의 합의내용이 한 번쯤은 연기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3일중으로는 실무접촉이 성사돼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외에 을지훈련 등 한국군의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런 경우 등에 대비해 남북한 실무접촉 등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이상기 기자

### ▽동아일보 1994. 3. 2(3)

# 통일문제 시점 고심거름

## 기묘統一장관이어 이모저모

정부가 1일 북한에 보낸 팀스피리트 훈련 연기 발표문은 양측의 차질과 무관한 수정제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후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원 차관 송영대는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 "北 대화주도 인상주려 접촉연기" 분석 "기존합의 有效" 결론...향후 北태도 점검 일정順延다라 IAEA 査察개시여부에 촉각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송 차관은 "북한이 1일 오후 4시 4차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 Ⅲ. 南北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 2. 4-8次 接觸 開催



# 「特使」 조속 교환

南北 실무접촉 접근 임무·교환순서 집중협의



4개월만의 악수 남북한 특사교환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宋榮大 통일원차관과 북측의 朴英洙 단장을 비롯한 양측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板門店=공동기자단>

## 核·頂上회담등 함께 논의 가늠한한 빨리 실현하자

【板門店=韓炳權기자】 남북한은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북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실무접촉을 갖고 특사교환의 절차와 시기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 이 삼방 최고급차의 특사 교환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이날 특사 교환순서에 대해 진중 협의했다.

남북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宋榮大 통일원차관 등 특사의 임무와 관련, 핵문제와 남북기초합의서 이행문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및 통일실현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남북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宋榮大 통일원차관 등 특사의 임무와 관련, 핵문제와 남북기초합의서 이행문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및 통일실현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남북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宋榮大 통일원차관 등 특사의 임무와 관련, 핵문제와 남북기초합의서 이행문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및 통일실현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글자도 한 특사교환을 위한 합의서 수장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해 10월 5일 1차 접촉에서 특사의 임무로 최고급차의 전담·설명과 이 과정에 서그더나기 의견차이 협의도 하자고 제의했다. 宋榮大 수석대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오늘 접이 전철하라고 밝혔다' 북측이 '先평안말을 주' 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南北「特使」협업의 진전 기대

## 오늘 실무접촉 정부 팀유연성중단 同時발표

### 美선 「北·美고위급회담」日程도

【서울 3일 오전 10시】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접촉이 오늘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3일 오전 10시】 미국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3일 오전 10시】 미국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特使교환 21일전 성사돼야”

## 오늘南北접촉서 촉구 정부, 北측 입장 최대 수용

【서울 3일 오전 10시】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접촉이 오늘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3일 오전 10시】 미국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3일 오전 10시】 미국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特使교환 9일 다시 절충

## 北측 4개 조건 제시 실질토의 못해

### 「板門店」具本永기자 「南」 김민환(전) 중대부 발표

【板門店=具本永기자】南北韓은 3일 상오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이 「파트리엇」 미사일 반입금지 등 2개항의 요구조건을 추가 제시함에 따라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오전 9시 10분 10월 25일 3차 접촉 이후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10월 25일 3차 접촉 이후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개원 이날 접촉에서 宋榮大우리측 수석대표는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북한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합의에 수렴을 제시하고 특사의 조속한 교환을 촉구했다.

宋대표는 특사의 일부로

▲非核化 공약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 선언문 채택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정산회담 개최문제 ▲평화통일 실현 ▲기타등 5개항을 제시, 이 부분의 관한 북한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북측은 그러나 지난해 3차례의 접촉에서 내건 핵심쟁점인 중대부 주체공조체포기 등 2개 조건 이외에 ▲파트리엇 미사일 반입금지 ▲금강삼대령의 반환해명 등 요구해와 절차문제 등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北측 朴英洙수석대표는 「核」을 가진자와 안수할 수 없다. 「金剛山」의 반환을 협의하고 「파트리엇」 미사일 반입을 중지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특사교환 합의사항인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北韓측은 그러나 4개항

### 어제 南北 실무접촉

의유사회의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이라는 우리측의 질문의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은 실질토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宋대표는 「북한이 특사교환을 초기에 실현하려면 의지가 확고한 것이므로 다면서」 그러나 우리 2일 이전의 판문점 특사의 교환의 일부요건은 양측의 사실에 부합하는 중대부의 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맛없」 「조건」 추가 새일초

3일 판문점의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2개항의 추가요건을 제시한데 대해 북측이 「맛없」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그러나 오전 9시 10분 10월 25일 3차 접촉 이후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10월 25일 3차 접촉 이후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21일 전 성사」 9일 접촉 때 유판 「北」 하나라도 더 얻기 「전략」인 듯

장관급 이하의 특사교환의 21일 이전의 이루어지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관측이 별다른 근거 없이 나온 것이다. 이란측은 「전부 전제조건이 아닌 중대부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있다.

宋榮大수석대표는 특사를 주고요 교환하겠다고 북한측이 「하나도 더 얻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3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특사교환」 실무접촉

장관급 이하의 특사교환의 21일 이전의 이루어지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관측이 별다른 근거 없이 나온 것이다. 이란측은 「전부 전제조건이 아닌 중대부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있다.

宋榮大수석대표는 특사를 주고요 교환하겠다고 북한측이 「하나도 더 얻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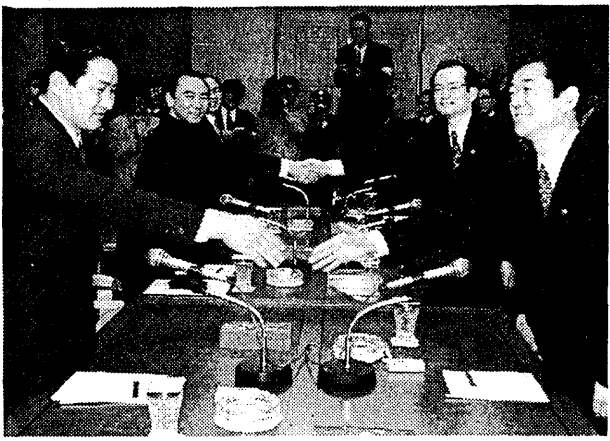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항의 합의에 대한 합의에 대해 실질토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特使교환 "안개 주의보"

## 南北 板門店 실무접촉 안팎

【서울 4일 특보】 남북 실무접촉이 4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4차 회담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 실무접촉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 실무접촉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4개월만의 만남. 남측 특사 김기춘(왼쪽)과 북측 특사 김기춘(오른쪽)이 판문점 판문각에서 4차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통신)

## 전제조건 추가 예측 불허 時限 압박 타결 가능성도

【서울 4일 특보】 남북 실무접촉이 4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4차 회담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 실무접촉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 北-美 회담前 「特使교환」 불투명

## 南北 판문점 실무접촉 결과

【서울 4일 특보】 남북 실무접촉이 4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4차 회담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 실무접촉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 北, 패트리엇 새조건 들고나와 成事윤탁 다음 접촉서 드러날듯

【서울 4일 특보】 남북 실무접촉이 4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4차 회담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 실무접촉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남측 특사 김기춘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 정부 「成事의지」 北 「새장벽」에 막혀

## 「無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

북한은 3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 패트리어트등 문제삼아 전망 불투명

## “변함없는” 3단계 회담담 전제 “에 기대

고나섰다. 다만 이번 접촉은 4개월만의 첫 대화로,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 다시 손잡은 南北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 참석에 앞서 宋大우리 총 수석대표(右가운데)와 朴英洙 북측단장(左가운데) 등 양측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板門店=孫鎔石기자]

## 북측 입장특집에 高聲언가

### 북측 3단계 접촉 이후 전망

3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인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6월 1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北기자 “金達玄 會見내용싸고 시비도 金達玄 會見내용싸고 시비도 金達玄 會見내용싸고 시비도

북한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6월 1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爲」로 끝나는 3단계 접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4단계 접촉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 실무대표회담을 3월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평양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3년 11월 채택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회담은 3단계 접촉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접촉이 무산될 경우 회담은 2단계 접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북한, 특사교환 합의 일단 '발목'

## 남쪽 양보불구 '패트리엇 배치'등 새로 제기 다음 접촉까지 합의 못할뻔 '시간표' 어긋날듯

### 성과없이 끝난 4차 실무접촉

넉달 남짓 만에 재개된 판문점에서의 남북한 실무접촉은 북-미 3단계 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일단 충족시키지 못한 채 끝났다.

북한은 이날 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도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언제라도 합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4차접촉은 지난 4개월여 동안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오는 9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애초 남쪽은 북한이 지난 세차례의 접촉에서 '특사교환의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요구한 이른바 '핵전쟁연습 금지와 국제공조체제의 포기'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한 회담의 진전은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특히 지난 1일 북한이 4차접촉을 3일로 수정제한 대남접촉문에서 "남쪽의 대화제개제를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측의 특사교환에 응호하리라는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쪽은 그동안 실무절차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이견

을 보이고 있는, 어느쪽이 먼저 방문할 것인가 하는 특사교환방법과 특사의 임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양보하는 수정안을 준비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이 이날 북쪽에 제시한 13개 항목의 특사교환을 위한 합의서의 수정안은 특사의 임무와 관련한 5개항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접촉에서 실무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남쪽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5개항은 북한측이 특사 임무로 제시했던 5개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특사의 임무로 명시한 '전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에 대해 남쪽은 이를 '조국 평화통일 문제'로 바꿨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지난해 4월 '전민족 대단결'을 내세우면서 네가지 대남요구사항으로 밝힌 △외세의존 정책 포기 △미군철수 의지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실무절차 문제에서도 견해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조차 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이 '회담 외적인 문제'로 간주해 거부해 온 두가지 문제 이외에도 북한이 '패



3일 오전 판문점 남쪽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이 4개월 남짓 만에 재개됐다. 오른쪽이 남쪽대표단.

트리엇 미사일 배치'와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핵문제 발언의 해명'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김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가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대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차관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사교환

이 어렵다"고 말했으며 4개 항목이 특사교환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빗장이다"라는 다소 완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강경태도에 대해 정부는 일단 특사교환을 다소 늦추면서 앞으로의 특사교환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도 북-미 3단계 회담이 열리는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것

이다. 북한의 자세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소 낙관적인 이런 시각은 9일의 5차 접촉에서 협상이 이뤄지면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쪽 수석대표인 송 차관이 "특사교환의 조기실현 의지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로서는 핵문제 해결 과정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시간표'가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 '팀'훈련 중단 정치·경제 다각 포석

## 사실상 완전중단 전망...국방부 환영속 내심 불만

3일 정부의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는 '조건부'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실상 완전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어 이 조치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중단결정은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설명대로 북한 핵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등의 사전정치작업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김영삼 정부가 최근 '한반도 위기설'의 대두와 함께 수출증대 및 외국투자 유치에 적색신호가 울리고 있음에 경각심을 느껴왔다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경제적 고려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가 군사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중단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정부는 이날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제 중단을 위해 △국제원자력기

구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남북한간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을 백지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훈련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나 실질적 준비 측면에서나 모두 희박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에 대해 당사자인 국방부는 일단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팀스피리트훈련이 지난 92년에 이어 군사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중단 여부가 결정된 데 대해 내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본 뼈대로 하는 한반도 안보체제 아래서 팀스피리트훈련은 필수불가결하고, 이 훈련의 실시 여부가 북한 핵문제와 연계돼 정치·외교현안의 카드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

부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적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정책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를 계기로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등 한국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측이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미군의 한국 주둔 및 미국측의 군사정보 제공과 함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떠받치는 세계의 핵심기동 가운데 하나로 전신인 '포커스 레티나'(69년 3월 실시), '프리티엄 볼트'(71년 3월) 훈련 등에 이어 베트남 공산화 이후인 76년 6월부터는 병력발전 및 투입-야외기동훈련-병력철수등 3단계로 매년 실시돼 왔다.

한편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에 따라 내년 이후의 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남북한, 미국 사이에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기 기자**





# 3단계회담前 특사교환확신

李통일원

## 美 국무부도 "21일이전 실현 기대"

### 갈루치 11일來韓 北核 최종조율

【워싱턴·東京電】韓美 양국은 오는 21일엔 의정된 北韓 美國의 3단계 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이 11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 姜錫柱 특사교환의 없었다.

## 美·北 합의 동시진행안되면 北, "사찰활동 보장못해"

남북 양측이 합의한 동시진행 원칙이 이 단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 전체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IAEA의 사찰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 단계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경】美·北 3단계회담은 北 韓측과 美측이 합의한 동시진행 원칙이 이 단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 전체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IAEA의 사찰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 단계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韓美 양국은 오는 21일 열린 의정된 北韓 美國의 3단계 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은 11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는 11일 서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특사교환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특사절차 합의못해

## 북-미3단계고위회담 일정 차질 가능성

### 12일 재접촉 갖기로

【판문점=강태호 기자】 남북한은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쪽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와 북쪽의 '특사교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문제'를 놓고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지난 3일에 이어 6일 만에 열린 이날 접촉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은 북한이 지난번 접촉에서 제기한 4가지 요구 사항을 철회하고 실무절차 문제 토의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전쟁연습 금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패트리엇 반입 중지 △김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취소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절차문제 토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그러나 남쪽의 합의서 수정안에 호응해 특사의 임무와 관련한 기존의 5개항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문제 △민족자주성 원칙 문제 등 2개항을 보탠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해 부분적으로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

송 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쪽 수석대표들이 실무대표 접촉을 마치고 20여분간 비공식 접촉을 벌였다고 밝히고 "실무접촉에 가로 놓여 있는 쟁점에 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마후 절충이 있었음을 비쳤다. 한편 남북한이 제5차 실무접촉

에서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최소한 북-미 3단계 회담 개최 일정 이 연기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 구도가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남북실무접촉이 끝난 뒤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으나, 북한의 태도나 주장으로 미루어 북-미 3단계 회담개최 예정일인 21일까지 특사교환 합의 및 성사에 이를 개연성이 크지 않아 3단계 회담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방한하는 로버트 갈루치 북-미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와 협의를 벌여 특사교환과 3단계 회담 개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 特使교환돼야 고위회담

美·北側에 공소문보  
【판문점=李鍾健기자】 판문점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 北核사찰을 심파악

洪영대 통일원 차관보는 9일 3단계 실무접촉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 美·北 3단계회담의 개최일

美·北 3단계회담의 개최일정이 21일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오후 방한하는 로버트 갈루치 북-미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와 협의를 벌여 특사교환과 3단계 회담 개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 特使교환 합의실패

## 南北12일 재접촉

【판문점=강태호 기자】 남북한은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쪽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와 북쪽의 '특사교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문제'를 놓고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 "北-美 회담 연기 불가피"

## 정부, 오늘 美 핵정책팀과 전략회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9일 판문점 접촉에서도 남북 합의에 합의할 수 없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남북 실무접촉이 9일 3단계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특사교환이 미루어지고 있다. 남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를 놓고 북측과 토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12일 열기로 했다.

# 南北특사교환안이 안부이다

## 美·北 합의 문해선 차고 이전 행방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남북 특사교환안이 4월 중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판문점 북측지역 '동일가'에서 속개된 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대표회담에서 대화한 양측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이 남측대표. 【판문점=남주원기자】

【판문점 10일 특파원 특보】 남북 특사교환안이 4월 중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北 "3단계회담 전제조건 아니다" 固守

## 南 "내부양해사항이므로 꼭 실현" 강경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남북 특사교환안이 4월 중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北서 단독접촉 요청 "密談"

## 전망 불투명... 21일이전 成事 비관적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남북 특사교환안이 4월 중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남북 특사교환안이 4월 중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측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 합의서 주요 차이점 비교표

구분	남측	북측
1. 특사의 임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2. 특사의 임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3. 특사의 임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남측은 4명, 북측은 4명

### 5차접촉 끝낸 남북 특사교환 전망

특사교환을 위한 5차 실무접촉이 성과 없이 끝났다. 남측은 북한이 요구한 4개 사항의 철학을, 북한은 4개 문제가 해결된 뒤 절차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접촉이 과거의 4차례 접촉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격양된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이 지난 4차 접촉 이후에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의 재개만으로도 북-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4가지 동시행동조치'란 팀스피리트 중단, 원자력기구 사찰, 남북 실무접촉 재개, 북-미 3단계 회담을 말한다. 북한이 특사교환의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논리는 분명하다.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지난해 7월 북-미 2단계회담 이래 남측이 움직일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강조해온 북-미 3단계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목표의 관철이 불투명

있다. 이들의 발언은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특사교환에 관한 한 한-미 사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에 이은 이번의 5차 접촉은 팀스피리트 중단, 원자력기구 사찰, 남북 실무접촉 재개, 북-미 3단계회담 등 '4가지 동시행동조치'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조건'을 붙여 걸고 붙여가면서 대치하는 형국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접촉이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4차접촉과 달리 긍정적 조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측의 제의로 수석대표간의 비공식접촉을 가졌다.

# '조건'싸고 대치 형국

## 수석대표 비공식접촉·조기 6차일정 등 긍정 조짐도

이다. 특사교환을 비롯한 북-미 합의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담화에 드러나 있다. 북한은 4차접촉이 끝난 다음날인 4일 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미 사이의 합의문에는 실무접촉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사교환이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남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북-미 고위회담의 북측 단장이기도 한 강 부부장은 이 담화에서 특히 미국에 대해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합의한 4가지 동시행동조치들이 다같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 전체가 자동적으로 뒤물리게 돼

해진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특사교환의 실현문제가 북-미 사이의 다른 모든 합의를 뒤물리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린 데이비스 국제안보담당 차관 등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특사교환의 실현이 3단계회담의 전제임을 확언해주고 있다. 린 데이비스 차관은 3단계 고위급회담의 성사 여부는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이후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긍정적 판단과 남북한 특사교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는 점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도 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음의 6차접촉을 3월 뒤인 12일로 다소 이르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12일은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을 하기 위한 실무접촉의 물리적 시한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며 북한도 이 일정 제시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핵 문제가 해결의 과정에 접어든 상태에서 남북이 특사교환 시기 문제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판문점/강태호 기자

### 板門店 실무접촉 이면저본

남북 실무접촉이 5차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측은 북한이 요구한 4개 사항의 철학을, 북한은 4개 문제가 해결된 뒤 절차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접촉이 과거의 4차례 접촉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격양된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이 지난 4차 접촉 이후에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의 재개만으로도 북-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

## 南北합심팬 2아닌 10의 힘 남대표 조바심말고 기다리면 성과 기대

남북 실무접촉이 5차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측은 북한이 요구한 4개 사항의 철학을, 북한은 4개 문제가 해결된 뒤 절차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접촉이 과거의 4차례 접촉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격양된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이 지난 4차 접촉 이후에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의 재개만으로도 북-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

남북 실무접촉이 5차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측은 북한이 요구한 4개 사항의 철학을, 북한은 4개 문제가 해결된 뒤 절차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접촉이 과거의 4차례 접촉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격양된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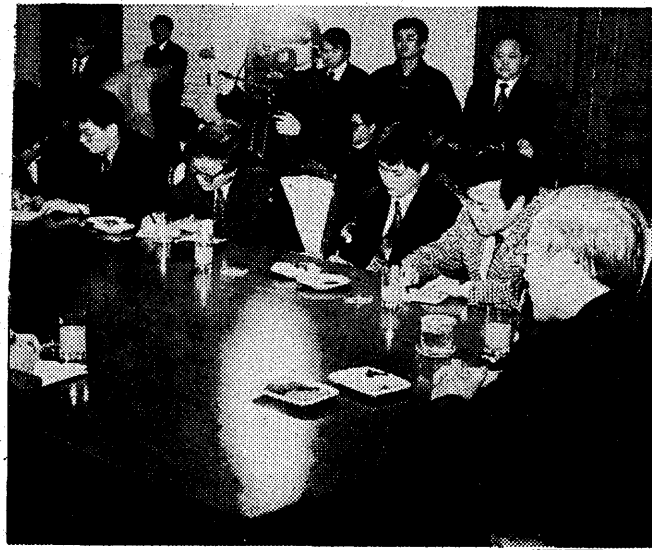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이 지난 4차 접촉 이후에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의 재개만으로도 북-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

# "모양내기식 남북대좌 의미없다"

## 北 韓國 배제한 對美 접촉 속셈 버려야 정치투명화 위해 관변단체 지원 중단

### 李 총리 국무총리 임명연설

李 총리 국무총리 임명연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대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는 "남북 대좌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대좌는 남북 양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李 총리 국무총리 임명연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대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는 "남북 대좌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吳煥權 기자)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美國과 북한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美國과 북한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美國과 북한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동아일보 1994. 3. 11(1)

## 「特使」무산맨 「팀」훈련 재개

李 총리

李 총리 국무총리 임명연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대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는 "남북 대좌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吳煥權 기자)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일보 1994. 3. 11(1) ▽

## 「特使」안될 경우 「팀」재개

### 李 총리 北의 지의심... 美·北 회담도 연기

李 총리 국무총리 임명연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대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는 "남북 대좌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吳煥權 기자)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韓國을 배제한 채 美國과 북한간의 3당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 「特使조건」 철회 촉구

## 南北 실무접촉

【板門店=金敏實기자】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 南 “즉각 철차토의 하자” 北 “공동보도문 먼저 내자”

## 「特使」되어야 「팀」 하면 곤란

### 6차 실무접촉... 우리측 북에 강조

【板門店=韓炳權기자】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그런 북측 특사가 먼저 남북 실무접촉을 반대하고 체류일정을 4박5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된 2개 요건은 해동경제지대의 개발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2개 요건을 무시하고 제의했다.

## 南北 오늘 실무접촉

【판문점=김민정기자】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이날 회담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12일 오전 판문점 회담장에서

# 特使교환 21일前 不能판단

# 「팀훈련 내달再開 추진

## 美·北韓회담도 延期불가피

## 韓·美대응 재확인 : 후속조치 협의

### 갈루치 "特使교환안되면 美·北합의 무의미"

정부는 12일 남북 특사 교환이 美北간의 합의시한인 21일까지 이뤄지지 어렵다고 보고 美北 3단계 회담을 연기하는 한편 내달중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韓美간 공동 대응방안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16일과 다시 연기됨에 따라 美北 3단계 회담은 예정인 21일 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런 북핵이 미국과의 합의를 임박적으로 무산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韓美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1일의 韓美합의문에서 21일 이전에 남북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회담을 연기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빠른 시일내 재개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면서 "후속조치"는 조건부 유보상태였기 때문에 내달중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는데 韓美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韓美합의문 전락회의에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부차관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韓美간의 합의는 확인하고 韓美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실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韓美간에는 남북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회담에 대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갈루치 차관보는 이어 "지난달 美北합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만한 해사할, 남북 특사교환의 실현,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 美北 3단계 회담의 개최 등 4개항이 임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비록 IAEA의 북한사찰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남북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美北합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鄭炳鎮기자】

## 특사교환·북-미 회담 동시진행 가능성

남북 6차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 불발 북한 전향적 자세 성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사찰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꼭 1년이 되는 12일 판문점 남북 지역에서 열린 6차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합의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1일의 북-미 3단계회담은 자동적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7차접촉이 예정돼 있으나 21일 이전에 특사교환 실현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일본-중국 순방에 나서는 일정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특사교환의 실현은 3월을 넘기게 되리라는 전망을 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미간의 뉴욕 공동합의에 따



라 진행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표'는 일단 엉클어질 수밖에 없

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미국 3자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사교환이 3단계회담의 전제라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강력한 요구에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 기존의 핵전쟁연습 금지 등 '네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남쪽의 '실명'에 '유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이와 함께 "특사교환을 실현한다는 공

동보도를 내자"는 새로운 제의를 했다. 이를 실무접촉 합의를 마무리하는 북한의 '지연점술'로 몰아붙이는 시각도 있지만 기존 태도에 비해 한걸음 물러선 절충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말한 '유의'라는 표현은 남쪽이 과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사교환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한 대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잠정 유보'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 그러나 회담에 나선 송영대 수석대표는 "북쪽이 애초 내건 4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특사교환과정에서 재개하지도 한 것"이라며, 이는 "4개 요구사항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적극적 평가를 내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세는 특사교환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다. 애초에 남쪽은 이날 접촉에서 북한이 김 대령의 대북한 감경발언 취소 등 네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고집할 경우 북한의 '도동1호' 미사일 등을 거론하면서 강력히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이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쪽은 공동보도문 발표에는 반대했다.

이번 6차접촉을 포함해 3월 들어 열린 세차례 접촉을 평가한다면 판문점을 통해 북-미 3단계회담의 재네바로 간다는 '구도'가 비로소 정착했다는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굳이 그동안의 순이계산을 한다면 북쪽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기구의 해사찰이라는 소득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북-미 3단계 회담과 남북 특사교환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데 3자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3일부터 시작될 원자력기구의 북한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특사교환을 위한 6차 남북 실무접촉이 12일 오전 판문점 남쪽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이 남쪽대표,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제 열린 북미회담은 90년대 중반에 이어 91년 12월 24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10년 만에 열린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0년 전인 1984년 12월 24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10년 만에 열린 것이다.

#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 무산

【서울 12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北, 「메뉴」 바꿔가며 시간끌기

### 4개項 철회 대신 「공동合意文」 요구 難航 부각해 「美-北韓 대화」 構圖 유도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21日前 特使回韓 사실상霧散

## 南北 6차 실무접촉 무산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北 「보도문」 채택요구 계속 지연전술 16일 再접촉 불구 시간표 너무 촉박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실무접촉 6차 회담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후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北-美 회담서 「한국배제」 겨냥

## 北 「特使교환」 왜 미루나

12일 열린 특사교환 6美用的 성격이 더 강한 것 특사교환문제를 놓고  
 차실부장회의에서도 남북한으로 분산되고 있다. 즉 북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와  
 이 합의에 보지 못함에 따라 특사교환을 거둬들이고자 함께 특사교환에 미리 해  
 라 21일에도 예정됐던 北韓 세를 보이면서 양측은 별 기를 막아 앞으로 있을 3  
 과 美國의 3단계회담이 이 어질 3단계회담에서 유리 단계회담에 남이 개입하  
 전의 남북특사교환실사가 한의치를 차치하기 위한 는걸 사전 불협화음이다

물러섰다. 이는 4개항조 측이 원칙합의를 거부하자  
 전의 기를 살린 사실상 유보 다음 절충안을 21일에  
 한 것이어서 진전에도 평 임박한 18일로 제시한바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사교환 합의에 이와 관련, 북한이 3단  
 앞서 특사교환에 원칙합의 계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거  
 했다. 공중전담이므로 란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내지는 새로운 카드를 내 상대다. 북한은 자신들이  
 밀었다. 원칙합의만 가지 국제원자기구(IAEA)  
 고 北韓美 3단계회담의 의 사할을 받고 있는 만큼

# “팀훈련 물건 너갔다” 판단 지연전술 査察 결과 따라 접촉 방향 달라질 듯

무산되고 北韓美 3단계 북한 특유의 전술을 쓰고  
 회담 자체도 올리지 못하 있다. 이는  
 계됐다. 북한의 특사교환의 3단 북한 특사교환의 주선으로  
 북한이 특사교환을 거부 계회담의 전제조건이라면 내걸었던 페르미노프 미사  
 하던 것은 실체로 남북 한만 전보형식적인 교환 임의에 한배치되지 4개  
 사교합을 절대 반대하는 일 만 해도 된 데 북이 3단 항을 특사교환과정에서  
 수 없으리라 기 보다는 對 계회담을 연기시키면서까 는 의할 수 있다고 할

예정대로 21일의 일자는 금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재  
 의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 개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나 10월 10일 「미 특사교환 접을 간파하고 있다. 이는  
 에 원칙합의했기 때문에 특 크다. 게다가 사찰결과  
 사교합을 위한 실접촉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 의 對北제재도 명분이 없  
 연접촉을 쓰지 말라고 일 으며 3단계회담에서 다들  
 죽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자들은 특찰사찰과 對美관계 개선  
 「북한합의」를 손을 내쫓 들의 문제가 당시일내의  
 이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해결될 리 없는 만큼 북한  
 도 북한이 대미한 것으로 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계  
 보고 있다. 즉 이 수가 며 어쩔 수 없이 3단계회  
 협을 지양할 경우 3단계 담 연기마저 불사하면서  
 회담 연기도 불사한다는 특사교환을 지연시키는 파  
 대책을 세워놓는 것 같다. 라 특사교환의 실현여부는  
 애기다. 실제로 북한은 남 더욱 불협화음 구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일단 3년 특히 IAEA 사찰결과  
 계회담 연기가 확실한 만큼 북한이 핵불검열을 전제로 하지  
 북한이 이를 받기로 특사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3년  
 교환실현을 더디게 미져 특사교환에 대한 필요성의  
 거릴 가능성이 높다. 한층 더 김수일 정의로  
 또 특사교환이 실현되지 않다면 3단계회담을 개최 임박한 5월 15일에는  
 하지 않겠다는 韓美간 합 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다는  
 의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미 국내에서는  
 이미 3단계회담 실시와 화였으며 3단계회담 개최가  
 남북한의 특사교환이 과연 정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연계되어야 한다는 회의론 것 같다. 따라서 특사교환  
 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계 실현여부는 16일 접촉에서  
 다가 정부입각에서도 북한 의 핵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의 핵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급적인 합의가 없는 한 I  
 AEA 사찰결과가 나오면  
 공이 별다른 성과가 기대 되지 않는 특사교환에 연  
 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朴濟均)



12일 오전 板門店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6차 실무대표접촉에 앞서 양측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朴耕模)













### 특사 실무접촉 난항

어제도 결렬... 19일 절충

【板門店】安熙昌기자] 남북한은 16일 판문점 북측 지요인 북측 교황을 위한 7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의 이르지 못하고 19일 다시 만나 접촉을 벌이기로 했다. 이기보 기자가 이틀째인 17일 서울에서 취재한 4월의 특사교환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 정부내 對北강경론 고개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접촉이 또다시 무위로 끝나자 정부내에서 對北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그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내에서 '美와 모종의 견해차이가 있거나 미국의 우편에게 '말뚝' 사정'이 있느냐' '아그는'의 주장과 정부내에서 '對北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 北 잇단 배타적 태도에 「美와 모종의 합의」의 심

이번 기회 핵문제 당사자 獨自주도 지적도

남북한은 16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7차 실무접촉을 열고 특사교환 절차문제를 토의했으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는 북측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측은 다음 8차 접촉을 19일 오전 10시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실무절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사의 임무에 대해 최종 절충안을 내놓고, 특사 방문의 순차 문제 및 시기, 체류일정 등 3개항에 초점을 두고 합의서의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차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접촉에 이어 "특사 교환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는 원칙적 합의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 않고 제의해 논란을 벌였다.

다만 서한재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 문제를 1994년 4월 15일 이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 문제를 1994년 4월 15일 이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이번 접촉에서 실무절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사의 임무에 대해 최종 절충안을 내놓고, 특사 방문의 순차 문제 및 시기, 체류일정 등 3개항에 초점을 두고 합의서의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차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접촉에 이어 "특사 교환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는 원칙적 합의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 않고 제의해 논란을 벌였다.

## 中、北核중재 용의없다

錢其琛 IAEA 사찰성과거들것

【北京】李在濤(李在濤)記者] 錢其琛(錢其琛)은 16일 중국 북핵문제에 대해 "北核중재는 용의없다"고 말했다. 그는 "北核중재는 용의없다"고 말했다. 그는 "北核중재는 용의없다"고 말했다.

## 北、南側절충안 또 거부

어제 실무접촉 19일 다시 만나기로

【판문점】판문점 16일 오후 10시 판문점 북측지요인 북측 교황을 위한 7차 실무접촉을 갖고 특사교환 문제를 가졌으나 합의의 이르지 못하고 19일 다시 만나 접촉을 벌이기로 했다. 이기보 기자가 이틀째인 17일 판문점에서 취재한 4월의 특사교환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 특사교환 계속 이견 남부 8차접촉 19일 갖기로

남북한은 16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7차 실무접촉을 열고 특사교환 절차문제를 토의했으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는 북측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측은 다음 8차 접촉을 19일 오전 10시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실무절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사의 임무에 대해 최종 절충안을 내놓고, 특사 방문의 순차 문제 및 시기, 체류일정 등 3개항에 초점을 두고 합의서의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차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접촉에 이어 "특사 교환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는 원칙적 합의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 않고 제의해 논란을 벌였다.

## 21일전 特使교환무산

南北이견절충안 실패... 19일 재접촉

【板門店】趙敏浩(趙敏浩)記者] 南北(南北)은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요인 통일각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접촉을 갖고 특사의 임무절차문제를 토의했으나 합의의 이르지 못하고 19일 다시 만나 접촉을 벌이기로 했다. 이기보 기자가 이틀째인 17일 판문점에서 취재한 4월의 특사교환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남북한은 16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7차 실무접촉을 열고 특사교환 절차문제를 토의했으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는 북측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측은 다음 8차 접촉을 19일 오전 10시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실무절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사의 임무에 대해 최종 절충안을 내놓고, 특사 방문의 순차 문제 및 시기, 체류일정 등 3개항에 초점을 두고 합의서의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차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 접촉에 이어 "특사 교환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는 원칙적 합의의 공동보도문을 먼저 발표하지 않고 제의해 논란을 벌였다.



# 「팀」훈련 25일 실시

核사찰 불충분판단 美 본토병력 불참 야전훈련 축소

## 「특사」무산 땀 南北대화 중단

### 「패트리엇배치 추진 政府」모든방안 강구

정부는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신변보장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기구(IAEA)의 추이 계속 심의를 보지 않고 지연진행을 쓰거나 핵

정부는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신변보장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기구(IAEA)의 추이 계속 심의를 보지 않고 지연진행을 쓰거나 핵

정부는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신변보장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기구(IAEA)의 추이 계속 심의를 보지 않고 지연진행을 쓰거나 핵

정부는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신변보장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기구(IAEA)의 추이 계속 심의를 보지 않고 지연진행을 쓰거나 핵

# 南北대화 94년도 1차 정기회담이

## 「팀」훈련再開도 配置·「팀」훈련再開도

### 「AEEA」安保理회부기로 결의안

정부는 17일 북한행정부제 가 더이상 대화포해결할수 없기 상향으로 이끄러 갔다

정부는 17일 북한행정부제 가 더이상 대화포해결할수 없기 상향으로 이끄러 갔다

# 내일 실무접촉 성과없으면 南北대화 재검토

## 北核 국제공조체제 적극 가담

### 韓美, 패트리엇-팀훈련 再논의

정부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이사회에서 북한 寧邊 방사화시설검침에 대한 추가 핵사찰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마틴필경우, 이의이행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적극 가담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유엔 安保障의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을 담고 있는 것

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정부는 또 19일 발표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측이 19일 정전협정을 포함하여 1차적이지 않을 경우, 당분간 남북 대화의 수장 상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워리가 먼저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한 손모이지

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인민은 이 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1차적인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金三勳 핵담당대사는 17일 이와 관련해 『지금엔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정부 입장의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조만

간 북핵문제 고위차별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가 진전될수록 북한 분화점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사가 17일 판문점 실무접촉 후 한미 韓美 정부는 17일

에 의상되는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화가 진전될수록 북한의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판문점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측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기창 기자 >

# 南北 실무접촉 결렬

## 板門店서 北대표 시작 55분만에 일방 퇴장

### 再접촉 날짜 협의도 무산

### 北측 3단계 회담 취소 사과 요구

【板門店=安成鎔기자】南北간의 실무교섭을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됨에 따라 北美산부위협인기비 회의 상, 후 협을 양측에 동의 북한 해문제가 다시 미국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날 정중의 결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사찰 결과에 불만족을 표시, 21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대회를 논의할 예정이고 국제사회의 제재 여론이 높아진 후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정중 결렬은 21일 열린 회담이 지연되고 있다. 스프링필드회담 재개도 확실시된다.

北측은 19일 오전 板門店 板門店사무소 회의의 집회 서울판 8차 실무접촉이 시작됐던 55분만에 10시 55분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가 회담을 결렬시켰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중에서 北측은 4개 요구 사항에 대한 南측의 대답을 요구하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야 할 南측은 3개항을 최고급차에 대한 비방·중상 등 3개항을 3개항의 신제안으로 명시하는 것을 명했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北側 서울 불바다 될 것

### 55분만에 깨진 南北 접촉

양측 아전인수 전파전투가 시작됐다. 19일 오전 10시 55분 회담이 시작됐던 55분만에 10시 55분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가 회담을 결렬시켰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중에서 北측은 4개 요구 사항에 대한 南측의 대답을 요구하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야 할 南측은 3개항을 최고급차에 대한 비방·중상 등 3개항을 3개항의 신제안으로 명시하는 것을 명했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중에서 北측은 4개 요구 사항에 대한 南측의 대답을 요구하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야 할 南측은 3개항을 최고급차에 대한 비방·중상 등 3개항을 3개항의 신제안으로 명시하는 것을 명했다.

▽ 경향신문 1994. 3. 20(2)

### 南側 항의에 일단 협박성 발언

양측 아전인수 전파전투가 시작됐다. 19일 오전 10시 55분 회담이 시작됐던 55분만에 10시 55분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가 회담을 결렬시켰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중에서 北측은 4개 요구 사항에 대한 南측의 대답을 요구하며, '세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야 할 南측은 3개항을 최고급차에 대한 비방·중상 등 3개항을 3개항의 신제안으로 명시하는 것을 명했다.

北측은 또 '추가 접촉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特使실무접촉 완전결렬

# 南北관계 긴장局面

## 北대표 "전쟁불사" 일방퇴장

### 정부, 곧高位회의의 중대결단

南北韓이 지난해 10월부터  
 1차 실무접촉에서 남북특사교  
 류에 의한 1차 실무접촉에  
 결렬이다. 19일 8차 실무접촉에  
 결의로 회담이 결렬, 남북  
 특사교류가 무산됐다.

이중 남측은 회담이 다부  
 한 실무접촉에 전념, 재한  
 남측의 회담 美韓의 中韓  
 회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중립적이어야 하며, 남북관계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회담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남측은 결렬했다.  
 남측은 회담이 남북특사교  
 류에 의한 1차 실무접촉에  
 결렬이다. 19일 8차 실무접촉에  
 결의로 회담이 결렬, 남북  
 특사교류가 무산됐다.

이중 남측은 회담이 다부  
 한 실무접촉에 전념, 재한  
 남측의 회담 美韓의 中韓  
 회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중립적이어야 하며, 남북관계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회담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19일 실무접촉 중 결렬이 △













특사교환 접촉 남쪽수석대표 송영대차관 일문일답

남북 실무접촉 남쪽 수석대표인 송영대 통일원차관(사진)은 19일 "남쪽이 이번 접촉에서 제기한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지 등 3가지 요구사항은 북쪽이 그동안의 접촉에서 보인 부당한 요구에 대해 남쪽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날 북한이 3개 요구사항에 대해 명백한 태도표명을 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만 국제공조제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단계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전쟁 운운했다고 하는데,

=국제재제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등의 도발적인 발언과 극언을 서슴지

## 대통령 비방중지등 실질조치 요구

### 대화로 핵해결 입장 여전...국제공조 중요

했다.

-오늘 회담의 경과.

=우리쪽은 첫 발언을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약속과 달리 핵재처리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방사화확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거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쪽은 4개 요구사항을 다시 거론하며 이에 대한 우리쪽의 명확한 태도표명을 요구하고 남쪽이 실무대표접촉을 북-미회담을 파탄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북쪽은 또 남쪽이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을 엄중시한다면서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특사교환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선 우리쪽 최고당국자에 대한 북쪽의 비방 중지를 즉각 중지할 것 등 3개 항에 대해 북쪽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제기했다.

회담은 우리쪽 3개 요구사항과 북쪽의 4개 요구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사실상 결렬됐다. 특히 북쪽은 다음 회담날짜 합의도 거부하고 악수도 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특사교환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는가.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확고한 원칙과 서두르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를 지켜봐야 하겠지

않았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접촉 날짜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상당기간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가.

=상황이 하루하루 다르니 조금 지켜 봐야겠다.

-북한의 회담 결렬 의도는.

=회담 대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핵사찰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이상 3단계 북-미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체제 생존과 관련된 핵카드의 효용성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를 열게 되면 북핵의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북핵의 부흥은 2000년 미의 핵산에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핵의 부흥은 2000년 미의 핵산에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핵의 부흥은 2000년 미의 핵산에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 '핵카드 유지, 계산된破局'

### 잇단 惡材에 "차라리 판개자, 냉각기 거쳐 美와 새관 짝짓"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당분간 강경책을 유지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미 국무부의 마틴 인디케이터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당분간 강경책을 유지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미 국무부의 마틴 인디케이터는 말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의를 개시할 시점에 대한 사찰을 거부한 데 이어 남북 실무접촉을 결렬시킨 것은 새관을 짜기 위한 북한쪽의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북한은 당초 핵카드를 對美 관계개선용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주류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고 남북 대화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IAEA 및 남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핵카드가 對美관계 개선의 발판을 잃었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러한 전제 하에 남측의 핵산에서 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될 상황에서 北美3단계 회담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 핵카드의 효용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실무접촉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당분간 강경책을 유지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미 국무부의 마틴 인디케이터는 말했다.

北「실무접촉」등틀린 수사정







## IV. 北韓의 對話 中斷과 核査察 拒否

### 1. 國內 反應





# 정부 「北核」 대응 강경선회

## 일단 추가사찰 요구 유엔制裁·「팀」재개 등

### 美선 고위급회담 취소 N Y T

### IAEA사회 安保理회부결의할드나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된 이후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핵사찰을 통한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핵사찰을 통한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韓美회담이 17일 프랭크 워스더 미국판무관장과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金世九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핵사찰을 통한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5대 강대국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핵사찰을 통한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유엔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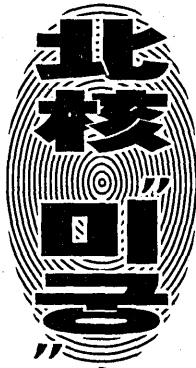
# 韓國 "난감" 美國 "당혹"

## 편당협협상...이대로 가야 하나

### 전과-미간담

【서울 17일 특파부 오영환 기자】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의 방한은 미국 방위산업계와 한국 방위산업계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는 방한 기간 동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구는 방한 기간 동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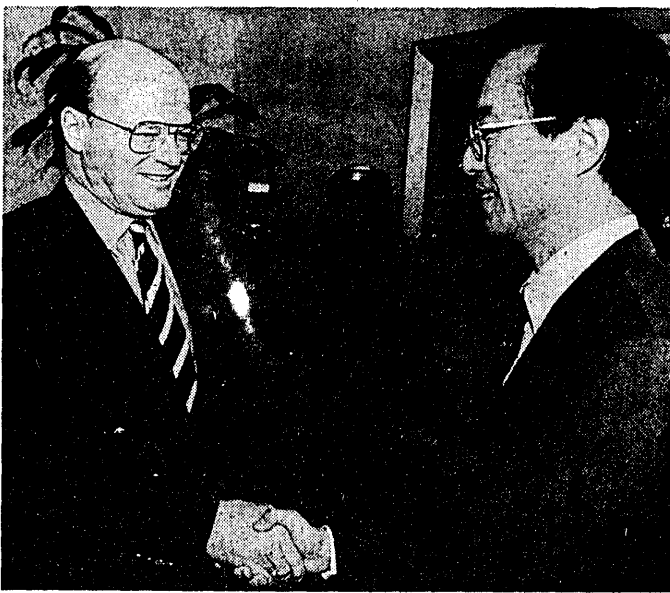
### 美國의 고안

【서울 17일 특파부 오영환 기자】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의 방한은 미국 방위산업계와 한국 방위산업계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는 방한 기간 동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구는 방한 기간 동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인내력 한계" 강경론 급부상

### 安保理회부 논의속 추가사찰에 미련

안보리 회부 논의 속 추가 사찰에 미련이 없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북한의 핵개발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북한의 핵개발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 韓昇州외무장관이 17일 오전 자신의 직무실 방문한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 제재 돌입엔 신중...대화채널 유지 예상

### "인내력 한계" 협상 자세에 원인 "격양"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미국 방위장관 기구(IAB)가 방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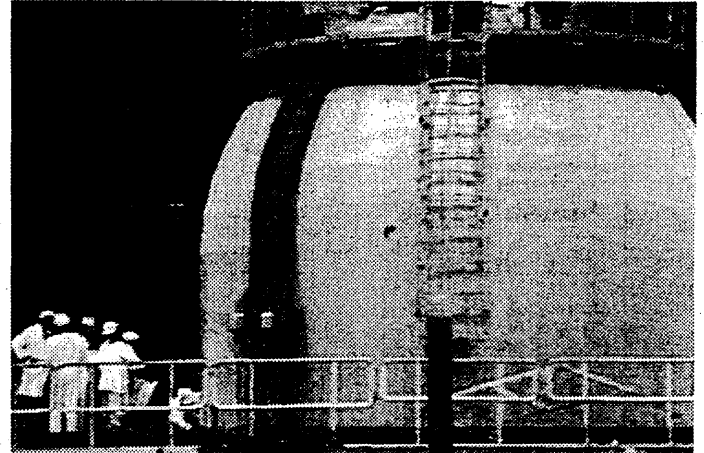


# 우리 정부의 대응과 시각

# 「北核」금랭.. 韓·美 「해법」고심

# 「사찰미흡」美의 대응

북한 핵개발이 IAEA에 의해 확인된 후 15일째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 IAEA 사찰단 방문을 위한 북한이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 “인도 한계” 핵이론가 파시 특별조사원 결성보류 구체화의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 외교해결 모색 불린던 立地 의혹

## 이회 경제제재 등 압력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 "인내심 소진... 다른각도 해결모색"

## 北 反轉 없으면 美와 합의 무효 유엔 제재 위해 러·日과도 협의

### 韓美외무 北核대책 긴급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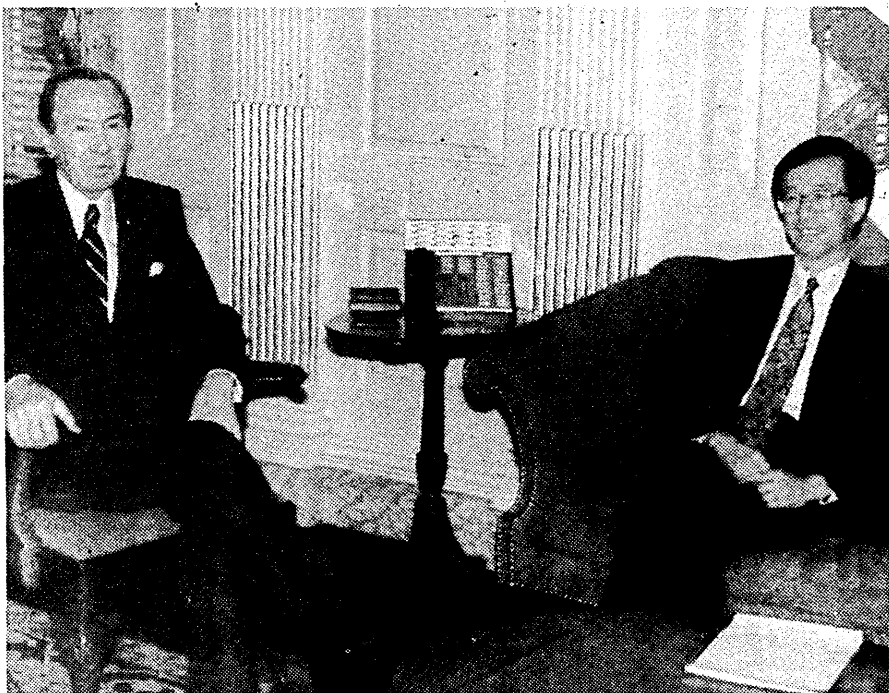
韓昇洲외무장관과 워싱턴 크리스토퍼퍼미국무장관은 18일 아침 워싱턴을 통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대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이제는 「다각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강경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北강경수단의 시작은 오는 21일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21일엔 北美간 합의에 의해 3단계회담이 열리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구체적인 기구(IAEA)의 특별이사회가 소집되고 날이다. 또 9월의 「북한인접국」이 마무리된 이후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이 IAEA의 재사찰을 받기로 하고 남북특사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의 거의 자동적으로 회부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과의 3단계회담이 무산되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지난 달 25일의 北美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북한핵상황의 「5년 이전진화」이러므로

해버린다는 의미이다.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지난해 5월 유엔안보리의 對北결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결의」와 「추진」을 확정할 것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소진돼버렸다는 의미를 띠는 것이다. 내달 초순께로 예상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회원국들의 경제봉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의 결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나쁜 문제와 관련, 韓美양국의 전망은 나관적이다. 이 경우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미국의 선택은 결정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 韓美양국은 그동안 「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대화수단의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韓昇洲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퍼미국무장관은 18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핵 대책을 논의했다. 두 장관이 지난 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에 중추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을 것」관정함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이날 말로 예정된 金泳三대통령의 訪美기간에 전달할 것이며, 최근 크리스토퍼퍼미국무장관의 訪中에서도 의견조율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의 對北결의가 발표될 경우 韓美양국은 「티스 피리트후련」의 재개와 패트리엇미사일 한반도 배치문제를 구체적 현안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북한의 「상당한 반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필성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 및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鄭炳錫기자】

북한이로서는 ▲21일 IAEA 특별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4월 초순 韓美양국이 「티스 피리트후련」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개할 무렵 ▲4월 중순 유엔의 결의와 함께 국제사회의 조기가 시행될 때 등 세 번에 걸쳐 「반응」은 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공을 쳐서 남기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응수준이 진화되는 결정적 인변수가 될 것은 분명하다.



# 對北정책 있나 없나

## 대화파국... 「선택」고심

북한 핵개발을 단번에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긴장없이 핵저지”... 결국 국제자리 基調 불변속 국제共助로 갈 듯

북한 핵개발을 단번에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단번에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한국일보 1994. 3. 19(3)

### 美亞태평양포럼 핵문제 논의

미국 국무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포럼'이 17일 서울에서 핵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 “핵물질 轉用 여부 확인 작업 못해”

미국 국무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포럼'이 17일 서울에서 핵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핵물질의 轉用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화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단번에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은 대화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북한핵' 정부내 강-온 불협화음

## 청와대쪽 대북 강경책 주문에 외무부선 난색 “안보리 회부땐 상황 악화”...미국도 큰 부담

한국과 미국이 설정한 북한핵 해결구도가 북한의 '틀 깨뜨리기'로 흐트러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경과 온건노선 사이에 혼선을 빚고 관제부처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6일 북한핵 사찰활동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선언하자 청와대와 외무부는 각기 다른 방향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외무부는 원자력기구가 완벽한 사찰은 못했지만 일단 2주간의 사찰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19일에는 관문점 남북접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미국의 기본합의 구도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반면 김영삼 대통령과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은 외무부의 미온적

태도를 나무라며 좀더 강경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평소의 소신을 외무부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수석은 17일 오후 한승주 장관에게 직접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정 수석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장관은 모든 사항이 아직 미결상태이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있지도 않은데 대북 위협발언을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 장관은 그 대신 김삼훈 핵전담대사로 하여금 정 수석의 주문을 이행하도록 했다.

김 대사는 예고없이 기자들을 찾아와 밀도 끝도 없이 강성발언

을 하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대북 대화노선을 강조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한 장관의 노선에 동참해온 자신이 외부의 주문으로 외무부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김 대통령이나 정 수석, 그리고 한 장관 사이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특히 북한핵 대응방향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25일 북한과 미국이 뉴욕접촉에서 4개항의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할 때도 한 장관과 정 수석은 충돌했다. 미국이 보내온 합의문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정 수석은 특사교환 성사가 북-미 3단계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 그대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미 국무부가

특사교환의 실행이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방선언을 하기로 북한과 이면합의를 했으므로 큰 문제 없다고 김 대통령에게 설명해 미국쪽의 원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곡절을 겪은 북-미 합의구도는 북한의 특사교환 지연 작전과 원자력기구 사찰의 불안정 이행으로 거의 깨질 위기를 맞았다. 이 대목에서 정 수석의 입지는 다시 강화됐고 그 대신 한 장관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장관은 아직도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로 갈 경우 미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

고, 따라서 한국의 영향력이 상실될 뿐더러 더이상의 대화와 협상의 문이 닫힐 경우에는 북한의 돌출행동 가능성도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또한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안보리가 사찰 의무 이행을 다시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차원이려면 몰라도 대북제재안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객관적 사정을 감안해보면 김 대통령과 정 수석이 선호하는 강경노선은 아무래도 내용이 없는 위협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미국과의 잠재적인 마찰 가능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박종문 기자









긴급안보장관회의의 열 열었다

# 北 強手에 맞서 安 保 재 점검

예를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 “속뜻뭔가” 촉각... 국제 공동 절박감 “처음부터 強攻맨과 국” 대화고수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은 지난 12월 15일 북핵의 종전부담을 전담할 수 있는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며,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장관회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朴 繼 後 기자〉









# "단호한 대처" 공동입장

북한핵 문제의 대한정  
치권의 모순리가 커졌다.  
최근 미사일을 쏘고 북한의  
다행이주 정책의 대한 비  
교과 함께 북한의 대한 단  
호한 대처가 필요했다. 민

## 여야 北核 대처 회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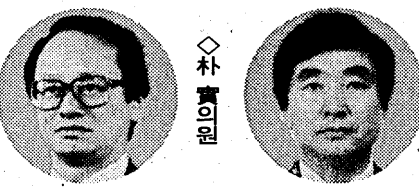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李世基 미국 쳐다보다 허송세월  
韓昇洲 北입지 좁히는 등 큰성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 여야내부 強 穩 목소리



**야**  
힘없는 유화정책 안통해  
선부른 강경책 도움안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 정부정책 비판... 강경론 일색 대결국면 부적절 "우려도 제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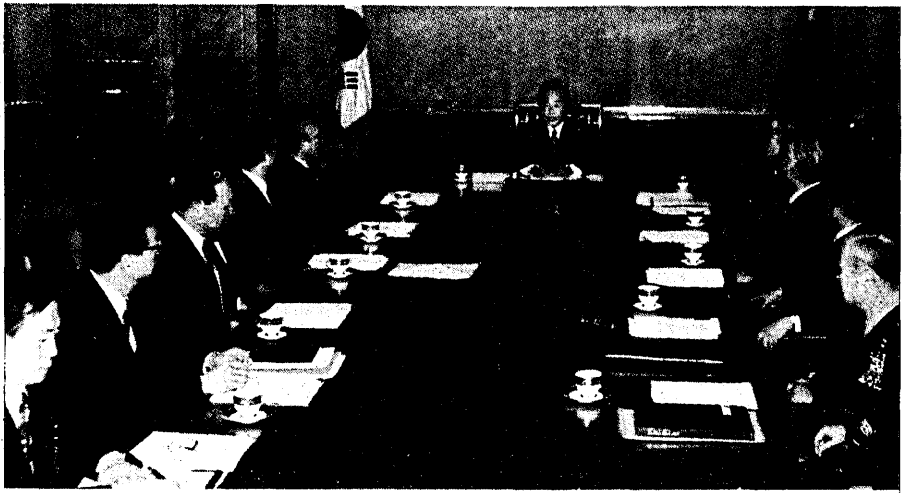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차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 “팀훈련 4월중 재개”

# “북의 영미군 보복에 대처”

## 북련련親書

### 청와대 安保安관회의 패트리어트 조기배치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패트리어트 조기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경환기자)

## 송대통령 “對北 대화의 문항상 열어 들것”

송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송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문항을 열어 놓을 것이다.”

## 정부 “北협박「힘」이로 대 처”

### 北선 “전쟁일으키면 파멸자초” 위협

▲동아일보 1994. 3. 22(2)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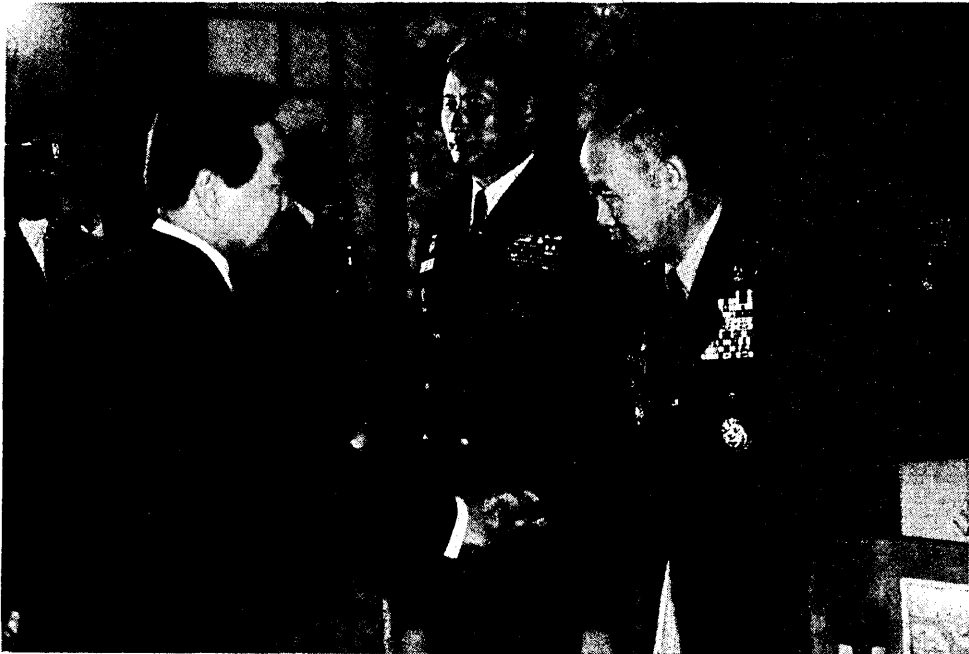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북한은 21일 “北협박「힘」이로 대 처”

# 소련에 특별경계령

## 합참 대통령 海外순방중 北도발 대비



金泳三大통령이 22일 낮 청와대에서 3군수뇌부와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金대통령과 악수하는 사람은 李養鎬합참의장, 가운데는 金弘烈해군참모총장, 오른쪽 뒤편은 金東鎮육군참모총장. <李鐘遠기자>

# 24시간 北韓동향 감시

金대통령

합참장관인 李養鎬는 22일 최  
근 북한의 전전환사상과  
연골포병 金泳三大통령  
의 해외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지 시  
한반도 전선의 대북경계태  
세강화 및 긴급출발준비를  
강추노를 특별경계강화 지  
시를 23일자로 시달렸다.  
유해한 24시간 이의 따라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의 정  
위태 상태도 대기하노를  
했으며 전전환의 휴가, 의  
출의과, 상거리출장등을  
중지했다.  
유해한 전전환사상에 대해  
각부들이 영내 대기하노를  
하고 철책결계근부강화 지  
시를 내렸다.  
해군이 구출함과 연계한

등 각종 합성의 긴급출발  
태세를 갖추고 전해상의  
대한경계에 나섰다.  
유해한 전전환사상에  
경내제를 강화했으며 비  
행단별 부하의 우발적  
인 영내정면행위와 대피하  
도록 지시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지  
금까지 24시간 대통령의 해

의 수반을 안 결계를 강화해  
왔으나 이번에는 북한측이  
우리의 대해 위협하고 있  
어 최근도의 결계수송을  
유지하노를 했다고 말했  
다. <李鐘遠기자>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北의 어떤 도발도  
사건제어할 자신  
金泳三大통령은 22일 자  
민일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李養鎬합참의  
장도 金東鎮육군참모총장  
과 金弘烈해군참모총장 등  
3군수뇌부와 오찬을 나누  
며 철책을 對北결계태세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의 확신을 담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특사교섭을 위한  
실질적 결결과 북한핵문  
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의  
다른 유엔의 결계를 재검  
검하고 안보리 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미군을 해산은 방  
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  
립해 대북의 해외수방사  
태를 강화할 사태에 의 확  
하게 대비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공대통령이 노년 친사내용  
을 거듭 설명하면서 미국  
의 대한반의공의 확고함  
을 강조한 뒤 韓美연합사중

# 패트리엇 내달 배치

## 한외무 회견 “중, 유엔제재 전부 거부 않을것” 북한 과격행동 우려...대화 계속 노력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수주일 안에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승주 외무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시기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나라 당국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 장관과 이병태 국방장관,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와 게리 렉 주한 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한-미 4인위원회를 열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배치 시기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또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겨져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결의안의 내용이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지난 해보다는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전부 거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버리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이를 실천할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번주나 다음주중에 그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문제

처리방향에 대해 “일단 대북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의안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동안에도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실제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채소밭 송아지 때리면 밭 망쳐

## ‘북한핵’ 안보리 회부로 한국 영향력 축소 각오해야

### 한외무 일문일답

한승주 외무장관은 22일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정부 안팎의 대북 강경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거나, 정책을 대화에서 강경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온건쪽에 서서 주도해온 자신의 입지 때문인지 요즘 증폭되고 있는 대북 강경론을 의식한 해명성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아직도 북한에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북한핵 상황은 마치 ‘채소밭에 들어가 있는 송아지’와 같으며, 채소밭을 망치지 않고 송아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때리기보다는 당근을 쥐야 한다”면서 “여기서 채찍을 때리면 오히려 채소밭만 망치게 될 수 있다”고 ‘채소밭의 송



한승주 외무장관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윤섭 기자**

아지론’을 소개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화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특별한 성격과 관련해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은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우리가 가진 채찍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순과 내용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구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간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이 어떻게 다른가, =지난해는 일단 사찰수락 등을 촉구한 뒤 상황을 보자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대북 제재라는 것이 전체 구도 속에 포함돼 있는 점이 다르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지난해에는 북-미 협상이나 접촉이 없었고 그에 따라 문제해결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대화 결과 북한이 될 원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희망을 파악한 만큼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는, =우선 프랑스와 영국은 최강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프랑스만큼 강경하지 않으나, 우리와 미국의 입장에 대체로 보조를 맞추고 있고, 중국은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

각한다. 미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보리로 북한 핵문제가 넘어간 뒤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어떻게 되나,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우리의 영향력도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더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징후가 있나, =북한은 지난해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앞으로 실전에 옮길 가능성도 있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1~2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무장관의 핵 외교에 대한 비판이 무성한데 장관의 생각은, =비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애초 설정한 해결구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밀전’ 없이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능선을 추진함으로써) 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소신에 관해 항상 반성·검토해 보고 있으나 좋은 의미의 소신을 애초대로 가져도 좋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종문 기자**



북한 핵무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安保理의 北核

북한 핵무기 보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陽動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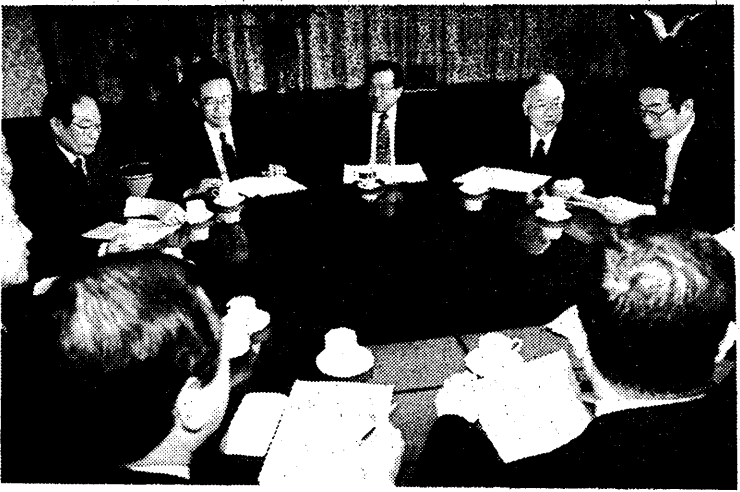
# 입력·설득

## 정부가 밝힌 향후 대응 전략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挑發 대비 美와 안보공동체 강화 단계적 제재 → 대화 해결 노력도 총력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黨職, 北核 긴급회의 金鍾泌대표를 비롯 자들이 2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李榮德총무부 총리 韓昇洲의무장관이인문부차관 李榮德총무부 차관 池巨洙기자를 포함하여 10여명이 참가했다.

사실이라 하면, 「그러나 시 간의 흐름에서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의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맞춘 당국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PT(평화)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양국 대우를 정부가 이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을 결정할 지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部處間 조율안돼 갈팡질팡

## 北核정책

외교부·국방부 안팎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 강원책 오락가락... 일관성 상실

### 특사조건 뒤늦게 고집협상환선

#### 대통령의 南北정상회담 발언과 몇차례 변화

외교부·국방부 안팎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외교부·국방부 안팎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사이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 안돼 갈팡질팡...



# 긴장... 추궁... 「北核 묘안찾기」

## 民主

文正秀사무총장이 23일 北核문제 대응과 관련, 「외교부」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하고 나섰지만 民主黨의 입장이 상당히 변질되고 있다.

民主黨의 北核협상의 「전정」을 「발안」으로 규정하고 「외교」의 위기와 관련,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與野는 對北核협상이 亂調에 빠진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에 있어서는 民主黨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民主黨은 보수와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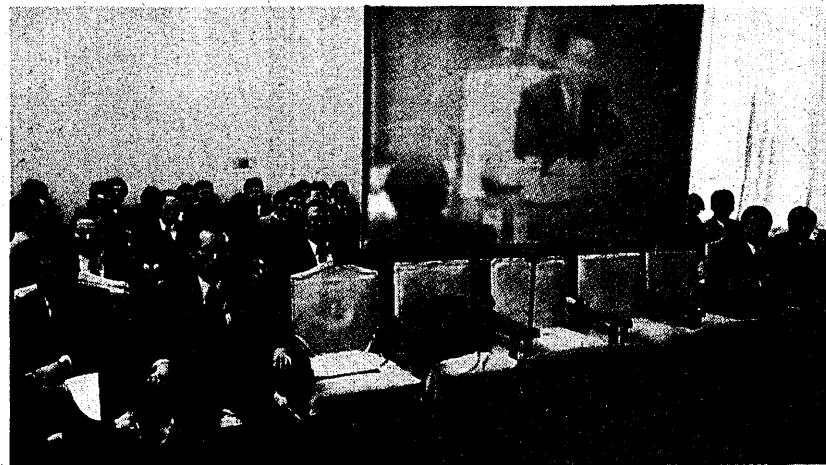
주간 영인 南北협상 관련에 대해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 民主

民主黨은 北核의 「전정」을 「발안」으로 규정하고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 강경론」기조... 「정부 대외책」 영미어 「北核」에 너무 끌려다녔다... 일부 선불만

외교부의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데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 「팀」재개 신중-특사 조건 철회등 제시

## 강경론」고차속 「지켜보자」 분위기

고급서를 붙인 것에서 나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외교」에 대한 추궁을 의뢰하고 「외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











# “北-IAEA 공 對話 재개”

## 中 “北核” 첫개입... 추가査察 가능성

### 韓-美-中 공조 체제 본격 돌입

#### 韓中 頂上회담 北개방유도 공동지원

【北京=金忠根·宋煥彦】黃泰泰駐中대사는 29일 北韓은 그동안 사찰을 거부해 온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추가사찰문제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대화를 재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8일 金泳三대통령과 江澤民 中國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黃대사는 이날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中國은 현재 추가사찰 대상부문에 대해 제재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화로 풀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黃대사는 이와관련, 李鵬 총리가 29일 저녁 만찬석상에서 『中國의 한반도에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中國은 北韓의 핵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韓國의 핵문제 풀이를 美國과의 의의만 의존해오던 것을 中國과도 처음부터 논의하고 같이 행동해 나가기로 했 다』고 밝혔다.

黃대사는 『李총리가 北核문제를 대화로 풀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대화가 재개될수 있는지를 도약시켜야지 마인드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黃대사는 『美國도 中國이 빠진 상황에서 北韓에 대해 무슨 체재 조치를 할 수 있느냐』면서 『이제부터는 韓國과 美國 그리고 中國이 같이 北核문제를 처리하러 다시 쿠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기존의 정부 입장이 크게 변화할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黃대사는 28일 정상회담에서 金대통령과 江주석은 北韓핵문제에 대한 북한관측의 확대와 영변의 핵시설이 韓國의 대항 갖고 있는 불신과 영변주민이 라고 점에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중국이 전격적인 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韓中 양국이 북한 의 개방및 美國의 서방국가 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영변정권의 특이 발표판 계의 핵대장엄호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스모그를 것을 美國면담이 의결을 부 화를 누릴수키던 하퍼스북 한체제의 불포위를 통한 수송함을 노리고있다가 어 해△한류를 대화상대에서의 아예 배제시키고 핵문제에 을 미끼로 직접 상대행동 을 하고 있다』며 이전을 함께 했다고 것이다. 이어 파라 『美國정권을 영변항 의 전격적인 중재 역할을 강추선인 이를 취해이 수 랐다』고 전했다.

안과 29일 6월 6일 韓中 정상회담이 6월 17일 1994년 3월 30일 黃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黃 駐中대사 회견 中國, 北오해 해소 노력

# 외교훈선인가 고도전략인가

## 黃駐中대사 北核관련발언해프닝

金泳三대통령을 수행하는 중국이 북한핵문제 정상간의 협의에 큰 진전 중인의 외교담당자들이 한국에 적극 개입할 것이었다는 설명이었

中정상의 타결과 함께 미국과 같은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대사의 발언은 훈선을 빚었다.

黃秉泰駐中대사는 29일 밤北京상그라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 그동안 사찰을 거부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부제에 대해 IAEA와 곧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鄭수석은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북한 황대사 면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려했다.

黃대사가 밝힌 내용이 鄭수석의 설명처럼 사실과 다를지는 분명치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맞는다. 黃대사는 북한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金대통령과 江澤민중국국가주석간의 단독회담대정상에 대한 배석했던 고위의 교담자이기 때문이다. 鄭수석이 양국 정상간

박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협상내용이 어떨든간에 정상회담의 배석자들이北京에서 해프닝을 벌인 것은 외교팀의 전권을 느리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의 도점으로 黃대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고 鄭수석이 부인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니면 중국의 발언들이 미국을 해대화의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처럼의 견을 교환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중요한 외교현장에서 외교정책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훈선을 빚고 해프닝을 벌인 것은 북한핵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에 일대 결승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 “큰진전” 발표 鄭의 교수석 전면부인하자 “취소”

## 최고위의 고팀 무책임한 자세에 비판론 대두

黃대사의 설명이 중국을 전해들은 鄭鍾旭외교의 발언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鄭수석은 『韓美』 공조를 통해 북한핵문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간대화내용을 공개한 黃대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인한 것인지는 아니냐면 黃대사가 서자 黃대사는 발언을 모

지나치게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지는 분명히

〈北京=金成珍기자〉





# 韓·美 對北결의안 강행

외무회담서 합의

## 「議長성명」 채택도 배제않기로

### 安保理, 6명 표결여부 판가름

【워싱턴=柳英泰특파원】北韓核무기 개발의 위험을 우려해 美·韓은 韓美對北결의안 채택을 위한 6명(美·韓·日·英·佛·러시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유엔본부=申相仁=柳英泰특파원】유엔안보리

리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워싱턴=柳英泰특파원】美·韓은 對北결의안 채택을 위한 6명(美·韓·日·英·佛·러시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유엔본부=申相仁=柳英泰특파원】유엔안보리

리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워싱턴=柳英泰특파원】美·韓은 對北결의안 채택을 위한 6명(美·韓·日·英·佛·러시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유엔본부=申相仁=柳英泰특파원】유엔안보리

리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 「議長성명」에 추가査察시한 明記

## 韓·美의무합의 "北核제재에 中國동참은 필수" 일치

### 中國선 반대... 내일 安保理 전체회의 주목

【워싱턴=柳英泰특파원】美·韓은 對北결의안 채택을 위한 6명(美·韓·日·英·佛·러시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유엔본부=申相仁=柳英泰특파원】유엔안보리

리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美·英·佛·러시아와 중국은 4개국은 이날 안채택을 주장하면서 의장

의 5개 상임이사국(美·韓·日·英·佛)은 29일(현지시간) 對北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6시간을 계속했으나

부상임이사국이 아직 이  
에 대해 반대사를 보  
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柳英泰특파원】美·韓은 對北결의안 채택을 위한 6명(美·韓·日·英·佛·러시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유엔본부=申相仁=柳英泰특파원】유엔안보리

북한은 미·중·일 등 주요 강대국에 대해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北核」압력水位 조절

## 韓·美외무부 별 귀의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중의견 전달에 美수공

議長성명 채택할때 일정한 강도 필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韓외무 일부인답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중의 「北방패역기대」 차단 강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은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서울31일】

## IV. 北韓의 對話 中斷과 核査察 拒否

### 2. 國際社會反應





# “寧邊시설 1곳 査察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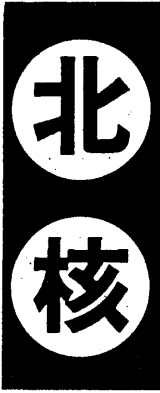
## IAEA 21일 특별이사회 소집

【네덜란드=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6일 최근 실시했던 北韓의 핵시설 전이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공식 선언, 이는 IAEA 사무국에 이날 합의했던 7개 신고시설 중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사찰단이 당초 북한측과 AEA)은 21일 특별

이사회를 소집, 최근 北韓 사찰결과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들을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사무국이 밝혔다. IAEA)은 이날 이사회에서 당초 북한측과 합의했던 7개 신고시설 중 1곳을 제외하고, 50여 개 대표들의 참석을 기약

16일 비공식 보고했다. IAEA)는 17일 이사회 중의 사찰결과와 19일 IAEA)의 사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IAEA)는 21일 특별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도 밝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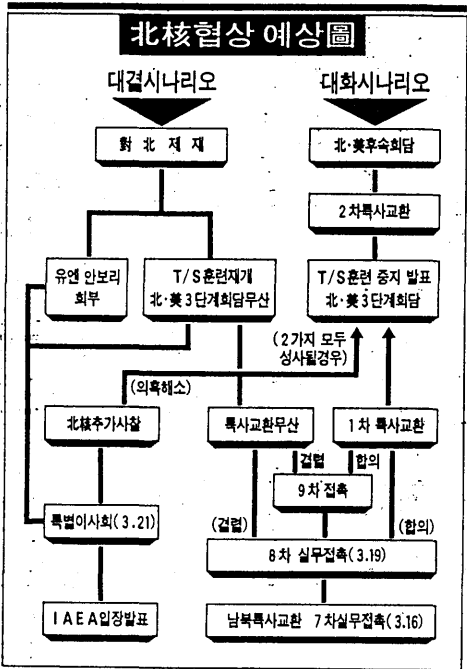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 「19일·21일 테이블」이 분수령



## IAEA 결정 「순항·난파」 좌우 南北·美 긴장 고조 숨가쁘게 행보

### “극한대결 모두 不願” “극적타결 가능성도

이사회를 소집, 최근 北韓 사찰결과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들을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사무국이 밝혔다. IAEA)은 이날 이사회에서 당초 북한측과 합의했던 7개 신고시설 중 1곳을 제외하고, 50여 개 대표들의 참석을 기약

16일 비공식 보고했다. IAEA)는 17일 이사회 중의 사찰결과와 19일 IAEA)의 사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IAEA)는 21일 특별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 査察중 "많은 곡절" ... 더 꼬인 北核

## IAEA 특별이사회의 결정 배경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IAEA)의 특별이사회의 결정이 17일 새벽 7시 30분경에 이르렀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 방사화학시설 영구 폐쇄가 거부

## 安保理회부 노의... 새국면 돌입

북한은 특별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거부했다. 북한은 특별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거부했다. 북한은 특별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거부했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북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 北核安保理회부확심

## IAEA 21일 결론 中國협조요청키로

### 상정후 1차재사찰촉구 거부하면 단계제재 돌입

韓·美당국자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단호조치경고

"IAEA核사찰평가왜곡"

【서울 18일路透통신】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안보리 회부확심(IAEA)이 2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안보리 회부확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차 재사찰을 촉구하고, 2차 재사찰을 거부하면 단계적 제재를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核」安保理 테이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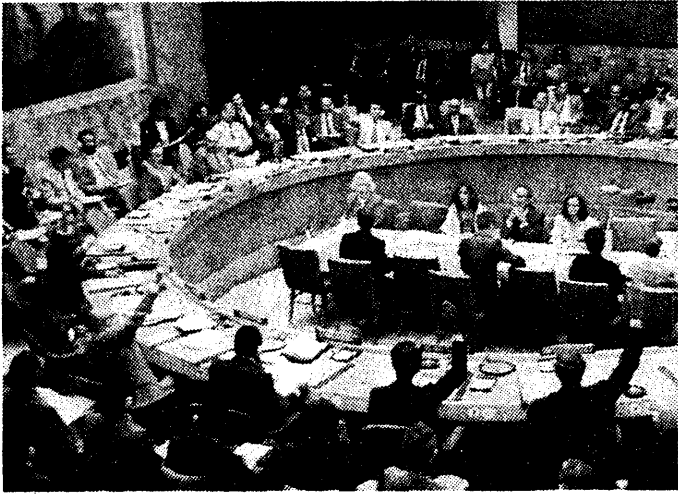
## IAEA 「보고서」 제출 임박

북한핵시설에 대한 국제 IAEA 특별이사회는 북 원자력기구(IAEA)의 한해사찰문제를 유엔안보 사찰이 사실상 실패로 끝 리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 사아 일본 캐나다 등 이른 남에 따라 21일 오후 17시 30분 로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 바 핵심이사국들 17일부

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 장강력한 조치이다. IAEA는 사실상 무 런 강제력과 제재를 갖 고 있지 못하다. IAEA 현장 120C형 은 「IAEA이사회」 협 려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정통이행행위를 모든 회원

국가 유엔안보리, 총회의 보고해야 한다. 규정한 고 있다. 지난해 초 특별사 찰문제로부터 시작된 북한 핵사찰문제가 1년을 넘도 록 IAEA와 유엔을 오 가며 끌고와 진퇴 양무

# “기술적협상·실트드에 한계” 결론 美, 경제제재카드로 접촉 예상



터 비공식 접촉을 활발히 갖고 특별이사회는 사전정 지사항을 벌이고 있다. 한 국의 현재 이사국이 아니 나 평안당사국으로서 참 여하고 있다.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국가 유엔안보리, 총회의 보고해야 한다. 규정한 고 있다. 지난해 초 특별사 찰문제로부터 시작된 북한 핵사찰문제가 1년을 넘도 록 IAEA와 유엔을 오 가며 끌고와 진퇴 양무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 유엔안보리 회의 모습. IAEA가 협정을 이행부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결의안 IAEA 규정 상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사모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의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동맹국인 35개 이사국중 20개국이 이의 표 정을 드러냈다. 유엔안보리의 보고는 IAEA가 협정을 이행부 인 협상과 촉구 등 양자차

# 北 "NPT 탈퇴 실천"

# 「韓美훈련」 사고 韓半島 긴장 고조

남북한 및 미국 등 3자 간의 긴대결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현재까지 3단계 회조약(NPT) 탈퇴 선언을 남북대화 및 핵사찰 수용 담판기 등의 방침을 정한 데 대한 부정적 태도를 대내외 북한 언론전선에서 문제삼아 NPT 탈퇴를 유도하며 핵확산금지조약(CTBT) 2.3.4면

【北외교부】북한이 21일 미국 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외교·통일정책을 더 금지조약(NPT)을 탈퇴 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IAEA가 사찰결과 유확대하는 경우 핵확산 조약수락에 없다고 밝혔다.

北외교부 “韓美훈련·사찰왜곡경우 「강행」 3단계 회담 대표도 파견안해”

과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일 부속협약(NPT) 탈퇴에서 전면적인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침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감축한 것으로 중언부언 핵무기 보유를 보도했다.

이 대변인도 IAEA가 사찰결과를 왜곡·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IAEA의 담보연속성 보장을 더 이상 자기 의무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對北 경제 제재 手順 밝기

【北외교부】북한은 IAEA의 핵사찰 결과에 따라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사찰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회의 배경

백악관회의는 핵사찰 결과에 따라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사찰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서울 불바다” 발언의 긴장

긴급 대응책 수립 나서

이 발언은 경제 제재에 대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은 핵사찰 결과에 따라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사찰 결과에 따라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사찰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방이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사찰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1일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개최하고 北韓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북한 핵문제를 다룬 IAEA이사회 모습.

◇전문=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와 총회·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최근 사찰에서 北韓이 방사화학실험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사찰활동을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2월 이후 북한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활동 여부를 규명하기 불가능하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에 주목한다.

IAEA 사무국이 사찰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주목하며 북한은 아직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의내용

- 1, 북한이 IAEA 이사회와 총회의 기존결의에 담긴 핵심적 요소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2, 북한이 핵안전협정 불이행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찰단의 필수적 활동을 허용치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북한 핵물질

**블릭스총장 경과보고 요지**

다행히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9일 특별이사회에 보고한 北韓 핵사찰경과요지다.

5메가W 원자로의 경우 각종 카메라와 붐이의 점검과 교체설치되고 필름이 교환되었다. 사용후 연료저장소에서 이들 연료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행해졌으며 각종 판독자료가 취합됐다.

또 감시장비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북한측이 IAEA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특히 이집트 사찰활동이 필요한 곳인 사용후 연료용 해시셀, 블리드, 바스, 폐기물 저장시설 등 방사화학실험

의 작동장비(그린트 바스셀 비)과 운전원들의 이해불인이 훼손된 특정장소에서 핵감시장비의 계속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사찰활동과 관련해서 비파괴 및 파괴검사, 잔류물 샘플채취활동의 『핵안전주의』 계속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협정』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

한 활동에 합의해준 사례도 있었다. 블리드 바스 사찰활동에서 IAEA측은 설비내 잔류물 채취작업(SMEAR SAMPLING)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기술적 장애가 없음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이른바 『블리드셀』과 관련된 것으로 추후 협

력이 있는 2월15일 합의사항과 분담해 이끄는 것이 다. 방사화학실험 실험기설비내의 공기정화장비에 대해 감마선 지도 작성을 위한 활동과 판독해서도 북한은 샘플채취 부위에 제한을 가해왔다. 이는 IAEA가 선택한 두 개 장소에서 샘플채취를 허용한다는 합의에 위반된다.

**각종 감시장비·封印상태 유지는 합의대로 점검 방사화학 실험실 잔류물 샘플채취 막판에 거부**

IAEA와 북한이 지난해 15일 사찰에 합의한 때 따라 지난 3월부터 19일까지 사찰단의 현장활동이 있었다.

사찰활동은 방사화학실험실 샘플 채취용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지연이 빈번히 발생했다.

IAEA측은 2월15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1년여 동안 핵실험 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을 전면 중단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감시장비의 비파괴검사(비)에 필요한

부품들의 이물질 제거는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다들었으며 만약 이 문제가 사찰합의의 이전 때 나왔었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의 잔수검사와 붐이의 오작동으로 인한 지연이 빈번히 발생했다. IAEA측은 2월15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1년여 동안 핵실험 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을 전면 중단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감시장비의 비파괴검사(비)에 필요한

부품들의 이물질 제거는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다들었으며 만약 이 문제가 사찰합의의 이전 때 나왔었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은 감시장비의 비파괴검사(비)에 필요한

부품들의 이물질 제거는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다들었으며 만약 이 문제가 사찰합의의 이전 때 나왔었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北韓억지」인내에 限界

## 유엔 安保理事정결의 왜 하나

21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의상대로 北韓의 핵사찰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결의이행에 거부한 방사화학실험을 포함한 핵도구 사찰제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北韓의 자살적 억지에 정면대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이 없는 한 핵에 대한 안전장치의 계속적인 파괴를 경고하는 방사화학실험 결과

에 대한 사찰거부로 지난해 2월 이후 핵물질을 정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선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란 스물일곱 IAEA 사무총장에 게 부한 핵안전장치의 확립을 위한 사찰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을 위한 핵연료의 필요성을 북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IAEA 자체

의 제재조치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이사회는 북한 핵문제가 IAEA의 「기술적」 차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특별이사회에서 북핵 실험은 사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사찰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技術차원 떠나 政治的 문제화 국제사회 대응에 正當性 부여

의가 IAEA를 요구를 북한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핵실험을 위한 핵연료의 필요성을 북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IAEA 자체

진다고 해서 사찰을 단행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핵실험을 위한 핵연료의 필요성을 북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IAEA 자체



### IAEA 北核결의안 요지 7개항

1.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2.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하고 인내력 담긴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3. 유엔안보리도 요청한 바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협조부재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4. 북한에 대해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찰 활동을 즉각 허용할 것과 핵 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사무총장에 대해 이번 특별이사회 결의를 IAEA 전회원국과 안보리·유엔총회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6. 북한 핵문제를 계속 무시해나갈 것이며 북한 핵문제에 어떤 의미있는 상황전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美】

# 美, 신속반응... 休日 긴급회의

## 北核대응 위상던 「톱뉴스」

미정부는 17일(토요일) 밤 11시 30분(한국시간 18일 새벽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경의 제재” 확고... “수위”는 “조절”

### 議會는 “인내의 끝” 논란... 한국 꼬집기도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IAEA 특별이사회 전망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決議案 16國발의... 中도 거부명분없어

### 美英등 16國발의... 中도 거부명분없어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크리스토퍼 미국무 北核 회견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Christopher)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對北제재 신중하고 일관되게”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 팀再開·패트리어트배치 임박 對決 원치않지만 전쟁맨 승리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긴대강경조치 戰路입카·훈신입카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에 유리한 고지 유지 예정된 수순” 실무접촉 우왕좌왕... 내부갈등 분석

金正日 유고說·金英柱입김 강화說 주목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平壤 체첵닝 거북... 査察장 어

## 북한 사찰장이 발원된 문제설문

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을 사찰하는 사찰장(査察長)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장은 체첵닝 거북(체첵닝 거북은 북한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별칭)으로, 북한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별칭이다. 이 사찰장은 체첵닝 거북(체첵닝 거북은 북한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별칭)으로, 북한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별칭이다.

# 방사화학실감마선지도작성못해

## IAEA 北 사찰팀의 공동文件 없이 작성

방사화학실감마선지도작성 못해 IAEA 北 사찰팀의 공동文件 없이 작성. 방사화학실감마선지도작성 못해 IAEA 北 사찰팀의 공동文件 없이 작성. 방사화학실감마선지도작성 못해 IAEA 北 사찰팀의 공동文件 없이 작성.

#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요지.

# 민적자본권정규화 추진입법동무후

민적자본권정규화 추진입법동무후. 민적자본권정규화 추진입법동무후. 민적자본권정규화 추진입법동무후.

# 北核 安保理제재 새국면 돌입

IAEA의 「회부」결의 이후

北핵 安保理제재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핵 회부결의안을 채택한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北핵 회부결의안 채택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2일 제5070회의에서 회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클린턴 주사 회견 플로리다주를 방문하고 있는 클린턴 美대통령이 20일 북한핵문제 때문에 전용기근처에 몰려든 보도진들을 향해 北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플로리다 美연방>

## 「상무차널」 단절... 1년전 상황 휴전

### 中國인장 단회... 단행의 결실도 볼

北핵 회부결의안 채택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2일 제5070회의에서 회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北핵 회부결의안 채택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2일 제5070회의에서 회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北핵 회부결의안 채택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2일 제5070회의에서 회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北핵 회부결의안 채택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2일 제5070회의에서 회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IAEA의 회부결의안은 북핵 회부결의안 채택 후 21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4912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 IAEA이사회 북핵결의안 <요지>

다음은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6개 이사국들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 요지다.

△원자력기구와 총회의 기존 대북 결의안, 특히 북한의 핵 안전협정 불이행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키로 했던 지난해 4월과 5월의 이사회 결의를 상기하고 △최근 사찰에서 북한이 방사화합실험실에 대한 사찰활동을 거부해 지난해 2월 이후 북한 핵물질의 전용이나 핵 재처리 활동 여부를 규명하기 불가능하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에 주목하며 △사무국은 북한의 합의가 있으면 사찰활동을 할 태세가 돼 있다는 데 주목하고 북한은 아직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에 기속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1.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의 기존결의에 담긴 핵심적 요소들을 이행하지 않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북한이 핵안전협정 불이행 폭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찰단의 필수적 활동을 허용치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북한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3. 북한에 대해 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할 것과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사무총장에 대해 이번 특별이사회 결의를 원자력기구 전회원국과 안보리, 유엔총회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5. 북핵문제를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며, 어떤 의미있는 상황 전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패트리어트 48基 韓國이동

## 클린턴·美국방부 발표 韓·美합의...한달뒤 도착

조선일보 1994. 3. 23(1) ▽

# 美, 中國에 특사

## 클린턴 곧파견 北核 막후 접촉

# 駐韓美軍 증파 등 검토

## Wp紙 보도 韓반도 근접 배치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安保理 내주 결의안

【워싱턴=李鍾連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워싱턴에서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李鍾連기자】 21일 워싱턴을 출발한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방한 예정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한미합의 안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한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日, 北核 유엔제재 대비 착수

## 호소카와, 내각에 지시 방위청장관, 자위대 태세강화령

【東京=河津기자】호소카와(細川) 총리는 22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유엔서 제재결정이 내리면, 일부 인원이 추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안보리의 결정을 주시해 가면서 정부도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정부대변인인 다케다(武村正義)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對北제재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 관계법 개정 등 필요한 준비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東京=關】일본의 아이치가 밝히고, 안보리의 결정을 주시해 가면서 정부도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정부대변인인 다케다(武村正義)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對北제재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 관계법 개정 등 필요한 준비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東京=關】일본의 아이치가 밝히고, 안보리의 결정을 주시해 가면서 정부도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정부대변인인 다케다(武村正義)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對北제재가 실행될 경우에 대비, 관계법 개정 등 필요한 준비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北寧邊 2원자로 年内 완공

## IAEA대변인 가동 6개월내 플루토늄생산

【빈=원산통신=韓】북한은 영변의 건설중인 제2의 원자로를 연내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유엔자문기구(IAEA)가 23일 밝혔다.

IAEA의 데이비드 키드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영변지역에 건설중인 원자로를 제2원자로인 50메가와트 규모의 제2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대변인은 IAEA 북핵사찰단의 제2원자로 건설현장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원자로가 완공된다 해도 시범운영을 거쳐 완공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키드대변인은 또 이 원자로 건설현장이 부속시설을 개월후부터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드대변인은 북한측이 이미 소량의 플루토늄을 제조하고 있음을 시인했지만 IAEA로서는 북한측 핵시설을 완공할 때까지는 예상보다 6개월 빠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의 새시설이 가동될 경우 1년에 원자로 10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러, '북한핵 4자회담' 제의

## 코지레프 외무 미-러-중-북한 '대화' 강조

【모스크바=교도 타스 연합】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회담 방식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4자회담을 제시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밝혔다.

코지레프 장관은 이런 발상은 하타 쓰토무 일본 외상과의 회담 중 공개됐다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위기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파노프 차관은 또 양국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해 상호 접촉과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게오르기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대한 핵사찰 수용 촉구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마찰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카라신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긴장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며 "제재는 하나의 가설이며 내 생각으로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 대북한 압력반대 확인**

【베이징=로이터 연합】리펑 중국 총리는 22일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북한 압력 행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리펑 총리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로 회부될 경우 중국은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압력이 행사되면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지역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세안 북핵문제 중재의사**

【방콕=연합】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타이 외무부 수린 피추완 차관의 말을 빌려 (방콕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 文句는 “온건” 決意는 “단호”



22일 韓美 양국의 고위안보당국자들이 빠른 시일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땅어미사일 패트리엇의 발사장면. (聯)

## 安保理「北核결의」초안 내용

안보리(UNSC)가 22일 채택한 북한 핵 결의안 초안 내용은... (The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draft resolution, including demands for North Korea to suspend nuclear activities and allow for international inspections.)

# 만장일치 유도위해 「제재」용어 사용안해 北태도 따라 경제압박등 단계수단 예상

### 英-佛-러는 “내용 미지근하다” 美案에 불만 표시하기도

안보리(UNSC)가 22일 채택한 북한 핵 결의안 초안 내용은... (This section discusses the diplomatic maneuvering behind the scenes, particularly the concerns of the UK, France, and Russia regarding the use of the word 'sanctions' and the perceived lack of firmness in the resolution.)

## 北핵종 폐결정권 1월

북한은 1월 15일 폐결정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This section reports on North Korea's announcement regarding the resumption of its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s, a move that has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and concern.)

안보리(UNSC)가 22일 채택한 북한 핵 결의안 초안 내용은... (This section continues the analysis of the resolution, detailing the specific measures proposed, such as the suspension of nuclear activities and the requirement for international inspections.)



# '북한 길들이기' 중국 손안에

## 군사·경제 절대적 영향력... '제재' 성사 좌우 미국 '최혜국대우 1년연장' 걸고 협상나설듯

### 북한핵 둘러싼 중국 거취 주목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취가 우리 관심권에 들어왔다. 안보리가 논의·결정하는 모든 실질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독자노선을 걸어온 중국이 반대하는 사안은 결코 결의안으로 통과되거나 실행에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배포한 대북결의안 초안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정도의 낮은 강도로 작성한 것도 사실은 중국의 처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응징으로 무역최혜국(MFN)대우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을 무릅쓰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조 대가로 오는 6월 최혜국대우 1년 연장을 긍정 검토한다는 언질을 중국에 해줄 가능성이 크다. 세계 유일의 초강국인 미국마저 북한 핵문제에서만은 중국에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데는 나름의 독특한 사정이 있다.

북한에 관한 한 중국의 영향력은 독보적이다. 특히 군사·경제면에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커 중국은 이 분야에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주로 수출용과 군사용으로 쓰이는 유류와 식량 부족을 메워주는 곡물의 60% 이상을 중국이 물물교환의 청산계정 또는 경화결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여부가 제재 성사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지난 91년부터 국제사회에 부각한 이래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하되 대북 압력은 반대'·'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내세워왔다. 그러나 이런 원칙 아래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는 크지 않지만 진폭을 보여왔다.

지난해 4월1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를 이유로 의무 불이행이라며 유엔 안보리 로 넘기는 결의를 할 때 중국은 반대했던 반면 지난 21일 특별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이관을 결의할 때는 기권했다. 중국은 또 지난해 4월 초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해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대체하도록 했지만,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결의안 자체에는 반대의 뜻을 아직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중국은 재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미국쪽

초안을 대체할 이른바 포괄적 동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번 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중국이 기권표를 던진 것을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 안에서는 대북한 동맹관계 지속과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의 두 가지 모순되는 정책목표 때문에 안보리의 대북 제

재에 대한 동참 여부와 참여 정도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리 제재에 대한 동참 여부와 참여 정도는 따라서 중국 지도부의 대서방관계 설정, 제재의 내용과 강도, 북한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 기자



리아오싱 유엔주재 중국대사(왼쪽)가 22일 북한 핵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끝내고 장 베르나르 메리에 안보리 순회의장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유엔본부/AP 연합뉴스

# 대이라크 제재 전례 참조

## 송금중단·방북금지 첫단계 거론 해상봉쇄 동참엔 위험논란 일 듯

### 일본의 '북핵' 대응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가능성이 다시 대두하면서 일본 정부가 제재 발동에 대비한 대응방법의 실무검토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물밑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지어 '한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해왔으나, 당분간은 구체적 제재방안 논의보다는 한국·미국 및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사찰 재수락을 촉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미국이 제재 결의안을 시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비단 결의를 채택해가며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전략을 쓸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교착상태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주말에 베이징을 방문한 호소카와 총리에게 대증요법보다는 '한약적 처방'을 강조하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발동한다면 일본이 취할 조처의 전례로서는 지난 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취한 조처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라크 석유금수, 대이라크 수출 금지, 금융자본거래 허가제, 경제협력 정지 등을 실시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체 대상국인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 일본은 지난해 봄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래 이미 '엄격한 심사'를 해오고 있으므로, 제재 실시의 경우 초점은 재일동포들의 송금과 일시방문 규제 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총련계 동포들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 규모나 실태는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연간 2천억엔에 이르는 설도 나오고, 일부 언론은 6백억엔 내지 1천억

엔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환관리령 등을 내려 동포의 송금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홍콩 등 제3국이나 지역을 통해 '우회송금'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의문시하는 관측도 유력하다.

일본 사회 한편에서는 송금제한 조처가 효과를 거두려면, 조총련계 동포들의 출국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이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북강경론자들은 출국을 희망하는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재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일본 헌법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 해상봉쇄를 단행했을 때의 대응방식이다.

미국이 7합대 등을 동원해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강제로

규제하려 할 경우, 일본은 미국 합정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 업무에 그칠지, 아니면 해상자위대 소속의 함정이 직접 봉쇄작전에 나설지, 복잡한 상황선택에 맞부닥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 법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 운용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북한 봉쇄에 대비한 준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수많은 해상 난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내부준비작업을 은밀히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위기 고조에 따라 이런 쪽의 논의가 공개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김효순 특파원







# 클린턴 "北核 실험 각"

## 聲明 발표

【워싱턴=김영환특파원】클린턴 대통령은 24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저녁 백악관에서 주로 화이트 하우스에서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특별회의의 일부로 발표 한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상공에서 무조건적으로 핵 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핵무기가 해결되어도 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25일路透통신】클린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에서 안보문제 관련 강연을 갖고 대통령 위기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 군사동맹을 분산하고 대비태세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김정일 기부장과 김일성 주석의 50주년 기념 회담"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리 군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인도적 행위를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리 군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인도적 행위를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리 군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비인도적 행위를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러, 8자회담 제의

## 北核 해결 논의 위해

【모스크바=李洪東특파원】러시아는 24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남북과 미국, 일본, 러시아, 외국차관관인인 유스투르프(IAEA)와 유엔사무총장(IAEA)을 포함한 8자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의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외무차관은 이날 유스투르프 회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자발적으로 IAEA의 핵재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유엔결의안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北·美 막후 교섭 진행 시사

## 門데일大使 페리 4월 하순 訪韓

【도쿄=李在武특파원】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국무부 4월 하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해 군사적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데일 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에서 문데일 대사를 사흘간 방문한 페리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북·미 간 막후 교섭이 진행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 러시아, 안보리 對北 조치 지지

## 외무부 성명 인접국서 핵 긴장 발생 不許

### 南北韓 등 참여 다자간 회의 제의

【모스크바=李洪東특파원】러시아 정부는 24일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과 IAEA를 포함한 8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러시아의 외무차관 유스투르프(IAEA)와 유엔사무총장(IAEA)을 포함한 8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러시아의 외무차관 유스투르프(IAEA)와 유엔사무총장(IAEA)을 포함한 8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 美와 대화 해결 전제

【도쿄(NTV)】북한은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사찰 수락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담에서 북·미 IAEA가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후속 사찰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IAEA의 핵사찰에 대한 대가로 북·미 제3차 회담 개최를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對北결의代案 제시

## 核제재強度보다 대외활동

### 北韓 과연 "전쟁, 선택할까"

北韓 핵무기 개발과 고 이들을 통해 북의 의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 일단 強性발언이로 공포분위 조성 의외성 위난강해 돌출행동 가능성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 틱스피리트 휴련 재개—NPT 탈퇴(핵안전조치의 연속성 보장 불가)  
 △ 유엔안보리 재사찰 촉구—北, 美, 北-IAEA, 南-北 접촉 가능성  
 △ " " 외교제재—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지속  
 △ " " 경제제재—선전포고로 간주, 돌발행동  
 △ " " 군사제재—군사적 대처 및 전쟁 가능성

## "안보리議長 성명"으로 초안엔 사찰時限 명시

【안보리—북한 핵무기 개발】 안보리 의장인 유엔 사무총장 부총리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2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를 열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 의장인 유엔 사무총장 부총리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2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를 열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 의장인 유엔 사무총장 부총리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2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를 열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朴義雄기자〉



북한이 지난 2월 27일 안보리에서 제출한 핵실험 관련 자료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北核「中國 역할」에 책임부여

## 가능성 높은 「議長성명」 채택

한정대표단은 27일 첫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IAEA는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IAEA는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 中 "추가사찰 필요" 메시지 전달 못 北 거부뎀 다음단계 同參 불가피

양변화가 감지되기 시 안 표결에 기권을 해 양측 중립 외교부장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지금 중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양측에 수월하고 있지 않음을

하기 시작해 지난 24일 북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IAEA는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IAEA는 핵실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북핵 관련>

# 美, 안보리議長 성명 반대

## “強度높은” 「결의案」 필요

【워싱턴=연합통신】미국은 28일 오후 5시 30분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안보리議長 성명 채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보다 강도높은 결의안 채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AEA가 다시 유엔에 북한핵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뉴욕도 4월 말까지 북한의 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안보리가 북

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시사한다. **議長성명 채택 안보리서 논란** 【뉴욕=연합통신】유엔 안보리에서 28일 5개 상임이사국들이 북한핵문

제와 관련 결의안 대신의 강성명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핵사찰 문제와 관련 ‘결의안’ 제의한 유엔 안전이사회가 제의한 결의안 채택을 강요하는 결의안 제의안을 채택하는 결의안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28일 오후 5시 30분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안보리議長 성명 채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보다 강도높은 결의안 채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AEA가 다시 유엔에 북한핵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뉴욕도 4월 말까지 북한의 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안보리가 북

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시사한다. **議長성명 채택 안보리서 논란** 【뉴욕=연합통신】유엔 안보리에서 28일 5개 상임이사국들이 북한핵문제와 관련 ‘결의안’ 제의한 유엔 안전이사회가 제의한 결의안 채택을 강요하는 결의안을 내리지 못했다. 중국은 28일 오후 5시 30분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안보리議長 성명 채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보다 강도높은 결의안 채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AEA가 다시 유엔에 북한핵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뉴욕도 4월 말까지 북한의 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안보리가 북

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시사한다. **議長성명 채택 안보리서 논란** 【뉴욕=연합통신】유엔 안보리에서 28일 5개 상임이사국들이 북한핵문제와 관련 ‘결의안’ 제의한 유엔 안전이사회가 제의한 결의안 채택을 강요하는 결의안을 내리지 못했다. 중국은 28일 오후 5시 30분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안보리議長 성명 채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보다 강도높은 결의안 채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AEA가 다시 유엔에 북한핵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뉴욕도 4월 말까지 북한의 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안보리가 북











# 美, 北에 극비書信

## 갈루치, 姜錫柱 통해 北核 美입장 통보

# IAEA 재사찰 수용엔 4개항동시 이행 재추진

### 국무부, 비공식 접촉 계속

【워싱턴=申相仁 韓箕然 특파원】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장차관이 20일(한국시간)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부장에 대해 극비로 서신을 보내고 착상대의 빠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갈루치 차관보는 對北서한발송에 앞서 한국측과

【워싱턴=申相仁 韓箕然 특파원】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장차관은 20일(한국시간)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부장에 대해 극비로 서신을 보내고 착상대의 빠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갈루치 차관보는 對北서한발송에 앞서 한국측과

【워싱턴=申相仁 韓箕然 특파원】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장차관은 20일(한국시간)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부장에 대해 극비로 서신을 보내고 착상대의 빠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갈루치 차관보는 對北서한발송에 앞서 한국측과

【워싱턴=申相仁 韓箕然 특파원】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장차관은 20일(한국시간)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부장에 대해 극비로 서신을 보내고 착상대의 빠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갈루치 차관보는 對北서한발송에 앞서 한국측과

【워싱턴=申相仁 韓箕然 특파원】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장차관은 20일(한국시간)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부장에 대해 극비로 서신을 보내고 착상대의 빠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갈루치 차관보는 對北서한발송에 앞서 한국측과





## V. 社說·칼럼





# 社說

## 南北實質 대화 열쇠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1994년 새해를 맞아 북한이 내외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 社說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 對北정책에 통제가 필요하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개혁의 열쇠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내부의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의 주체는 '북한 내부의 개혁'에 있다.

# 社說

## 對北정책의 原則과 現實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 對北정책의 原則과 現實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 社說

## 새 통일원장관의 현실감각

새 정부가 新外交的 기조로 원칙  
 이상 도덕성을 가치관을 중시하겠  
 다고 밝혔을 때 우리는 환영했  
 다. **韓國**도 이제 진정한 세계  
 화를 추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는 인식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의 사  
 인주의와人權을 인간성의 기본  
 전이라고 보았던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金泳삼** 바깥 세계화 정책  
 을 펼친다.

새 정부가 新外交的 기조로 원칙  
 이상 도덕성을 가치관을 중시하겠  
 다고 밝혔을 때 우리는 환영했  
 다. **韓國**도 이제 진정한 세계  
 화를 추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는 인식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의 사  
 인주의와人權을 인간성의 기본  
 전이라고 보았던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金泳삼** 바깥 세계화 정책  
 을 펼친다.

## 對北정책의 原則과 現實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북북한 문제의 개선은 자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북한이 핵무기개발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이었다. 재  
 자면 「南北기본협약」의 「한반도  
 非核化」공약선언을 채택하기까지  
 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1년 갑자기  
 냉각된 것은 핵무기를 둘러싼 사  
 상화 때문이었다. **金泳삼** 대통령이  
 정부에서 취임하자 「에너지」 북한 핵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무기를 해명한다. 「에너지」 북한의

# 社說

## 野黨대표의 訪北의 의미

李基燾 野黨대표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대표가 訪北을 한 것은 野黨의 民主化를 위한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대표가 訪北을 한 것은 野黨의 民主化를 위한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대표가 訪北을 한 것은 野黨의 民主化를 위한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대표가 訪北을 한 것은 野黨의 民主化를 위한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대표가 訪北을 한 것은 野黨의 民主化를 위한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野黨의 訪北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野黨의 努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설

## '통일정책' 중심 잡아야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 임박했다”고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발언을 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에 뭔가 숨겨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가운데, 10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호되게 공박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민족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맡긴 채 정부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같은 이야기의 되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영덕 통일원장관은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또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보되면 한반도 통일 경우 우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해 놓은 여러 시행사업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이야기의 되풀이'를 질타한 사람은 다른 민자당의 노재봉 의원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은 다소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교적 진보적이라던 한완상 장관이 물러나고 보수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영덕 장관이 '통일정책'의 사령탑에 앉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통일정책'이 또다시 보수화하거나 강경화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했던 게 사실이다. '같은 이야기의 되풀이'만 해도 대단한 '현수준의 유지'이다.

왜냐하면,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쓸데없는' 걸림돌을 보탠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이산가족 재화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북한쪽에 촉구하겠다고 말한 것이 일부 잘못 전달돼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찌찌한 느낌은 그대로 남는다. “핵문제가 우리의 손을 떠난 느낌”이라는 노재봉 의원의 지적이나,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을 지켜보는 구경꾼 또는 방관자로 전락했으며, 민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핵문제를 미국에 맡겨 놓았다”는 민주당 이부영·조순승 의원의 비판이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추궁은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쓸릴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은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끈덕진 질문에, 협상중인 사안인 만큼 “애기를 안하늬 게 좋겠다”고 말하고, 북-미 협상은 정부와 사전·사후 충분한 협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팀스파리트 훈련 중단선언은 정부의 관리임을 애써 역설하는 등,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서 정부가 소외되지 않았음을 강변하는 민망한 정경을 연출했다. 임기중에 통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김 대통령은 통일정책에 굳건한 중심을 잡고 민족의 관점에서 그 초석을 쌓아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작업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면서, 주체적인 입지와 발언권을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 같은 뜻에서 북한 당국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협상에서 남한을 극력 배제하고 있는데, 민족통일 문제에서, 민족의 더 큰 한 부분인 남한을 배제하고 누구와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李代表가 기자회견에서 생생한 발언을 들려주며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원민주정치가 국가에서 야당의 존재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

당의 강력한 개혁 개발정책의 수용을 위해 휘말려야 할 것이 제기될 때다. 李代表가 이날 제시한 정책 목표가 야당의 위상 재정립과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社說

신중히 대처해야할 北核문제

北韓 核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전면핵사찰 수용거부 때문이다. 미국이 강요하면 핵확산방지협정(NPT) 탈퇴유보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다. 미국도 이번엔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다.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 회때까지 결말이 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유감스런 상황전개다.

美·北韓의 대결국면과 核문제의 안보리회부 그리고 한반도 긴장고조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다. 대통령주재 안보장관회의가 열리고 외무장관이 예정을 앞당겨 訪美길에 오르는 등 정부가 대응을 서두르는 이유다. 외무장관은 韓美외무회담등을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최근 미국쪽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일부 사실도 아닌 강성기류의 보도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북한핵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核개발포기와 투명성 보장이라는 원칙까지 양보하는 타협도 해야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금 북한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원칙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며 따라서 미국의 단호한 거부대응은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작년3월 NPT탈퇴발표이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양보만 거듭하는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대화타결의 소망때문이었겠지만 결과는 어떤가. 북한은 NPT탈퇴발표 당시의 입장에서 한걸음도 후퇴하지 않고있다. 이제는 북한의 核을 묵인하든지 아니면 채찍을 들어야할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묵인할 수는 절대없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우리가 들수 있는 그 채찍이 바로 안보리 회부및 제재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피 하다는데 韓美양국 정부는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감안,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것 또한 공감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라 할수 있다. 안보리회부가 곧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이전 단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핵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좌우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끈질긴 대화타결의 노력과 함께 「유엔制裁의 실시」로 야기될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한 철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社說

安保회의와 국민관심

북한의 核개발은 받시 마야 하지 만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결코 어떤 불합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 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善正양육전담 소집안 安保장관회의의 의 장인 국민의 바람을 정부의 시책안정(안) 로 재확인했다. 점에서 뜻깊은 모멘트 라고 할수 있다. 아울러 金泳三대통령 이 北核문제가 IAEA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사찰방법에 대한 異見(이견)으로 대 한 고비를 맞았다고 보고 현 한반도정세 가 危機상황(위기)에 이르렀다. 突發사태에 다 각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시한것은 주목되 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 美韓정부가 틈스피리트훈련준 비를 명명했다. 본보기 전해지는 가운데 北북한의 핵사찰 수용거부를 지적분류 한미양국간의 긴밀한 접촉을 거쳐 훈련 을 실시하기로 한것은 北核개발을 위해

強權양면의 전합을 구사하려고 의도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21일 IAEA 이사 회 때까지 사찰협상을 거부하여 이 문제가 유엔(安理會)로 넘겨진 뒤에도 계속 의회적 해결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데 이강(강) 평야 중(중)이다. 1. 2단계 협상을 거쳐 지난 연말 미국이 북한과 7개시절에 대한 전면사찰에 합 의한 후 북한의 조건달기와 지역사찰에 시 점에서 평화적 해결의지를 비출것은 분 명 異見(이견)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의견을 앞당겨 오를 訪美하는 韓美州 외무장관 은 미 행정부에 바로 이 점을 설득하고 北이 사찰수용을 실현시킬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北核문제의 대응과 관련, 정부의 자세에 의혹이 적 지 않다. 이른바 「한반도 危機說明」해 도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사실이 아니 라는 뜻으로 침묵을 지켜왔지만 국민들 로서는 불안감을 떨칠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파르티트 미사일의 한국부채 제형(형) 이후 미국 空軍(공군)들의 일련의 보 도들이 한반도사태의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맞서 북한의 NPT(核擴禁 約束)탈퇴(脫退)유보(留保)철회(回)사(撤)를 비롯, 「미국 에 구걸(求)하는」양(樣)이다. 「구걸하면 6. 25보다 더 치열한 패배를 안겨주겠다」 는 말(말)과 함께 주민들에게 對美(對美)전투(戰)비(備)300을 펼쳐 주민들이 결코 하나가 제단(祭壇)만들수(能)는(는) 아니(아)는(는) 것이다.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조건달기에 특별한 정부가 없거나 한반도의 위기상 황(狀)이 과장(誇大)된(된)것(것)이라고 지적(指)한것(것)이 국민 의 불(不)안(安)을 해소(解)하기 위한(爲) 배(배)려(려)를 수(수)있(있)지만(만) 경제(經)적(적)에(에) 불(不)충(充)족(足)한(한) 해(解)안(案)이다(다). 안(安)정(定)적(적)인(인) 대(對)외(外)관(官)리(理)에(에) 대(對)한(한) 해(解)안(案)을(을) 구(求)할(求)수(能)는(는) 아니(아)는(는) 것이다.

이제 韓美(韓美)대(對)외(外)관(官)리(理)에(에) 대(對)한(한) 해(解)안(案)을(을) 구(求)할(求)수(能)는(는) 아니(아)는(는) 것이다. 이(이)는(는) 韓(韓)美(美)대(對)외(外)관(官)리(理)에(에) 대(對)한(한) 해(解)안(案)을(을) 구(求)할(求)수(能)는(는) 아니(아)는(는) 것이다. 이(이)는(는) 韓(韓)美(美)대(對)외(外)관(官)리(理)에(에) 대(對)한(한) 해(解)안(案)을(을) 구(求)할(求)수(能)는(는) 아니(아)는(는) 것이다.

# 社說

## 危機관리 제대로 하라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수 없다. 韓美 동맹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간의 긴장관계는 잘 되지 않는다. 양국간의 긴장관계는 잘 되지 않는다. 양국간의 긴장관계는 잘 되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선택은 우리의 현재 안보정세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정세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정세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한다.

# 社說

가장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 또 그러한 평화의 마다 불타는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北核 韓美공조 잘 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우데움(喜憂)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정세의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 社說

## 核문제 숨통트는 계기 돼야

북한의 그를 핵시설사찰에 관한 IAEA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핵문제를 풀만한 신장이나 영감을 주지 못했다. 북한의 신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를 선언한 후 중단했던 IAEA의 사찰인 피 목제한된 형태도 1년만 유지 시킨 것이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 모두 계속했던 핵확산의 교착상태가 순조롭게 풀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과 IAEA의 합의는 이번 21일 영미는 IAEA의 사찰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계속적인 중단했다. 또한 IAEA의 핵사찰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92년 한도였던 1월 31일 한시적으로 핵사찰을 중단하고 1월 31일 이후 1년 동안 북한은 사찰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핵사찰이 중단된 후 1년 동안 북한은 사찰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핵사찰이 중단된 후 1년 동안 북한은 사찰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 사찰이 양이된 계속된 협상의 여파로 핵시설 검사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를 교환하고 불일치해도 교환할 예정이다. 핵안전협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찰협정이 합의된 후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시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AEA에 신고되지 않은 시설, 핵시설, 핵연료봉의 핵폐기물 처리 등 안전시설 부처의 대한 특별사찰부제가 영미로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 특별사찰을 거부하기 위해 NPT 탈퇴를 선언했던 것이다. 이 카타르와 문제는 IAEA차원의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의 고위급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미국과의 대화회담에서 양측이 핵시설사찰을 영미로 할 것인지 부재한이므로 북한이 미국과 핵사찰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핵사찰을 영미로 할 것인지 부재한이므로 북한이 미국과 핵사찰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과 미국, 미국과의 대화회담에서 양측이 핵시설사찰을 영미로 할 것인지 부재한이므로 북한이 미국과 핵사찰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핵사찰을 영미로 할 것인지 부재한이므로 북한이 미국과 핵사찰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회담에서 양측이 핵시설사찰을 영미로 할 것인지 부재한이므로 북한이 미국과 핵사찰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직접 접촉에서 對北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對北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韓美 양측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 野黨대표의 對美친서

민주정의 李基燾대표가 정국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對美친서를 통해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민주정의 李基燾대표가 정국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對美친서를 통해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對美친서에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社說

민주정의 李基燾대표가 정국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對美친서를 통해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민주정의 李基燾대표가 정국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對美친서를 통해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對美친서에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李代表는 野黨의 對美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社說

## 핵논의에 혼란있다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한 비핵화(非核化) 논의,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문화정책의 대대적 추진, 그리고 관련 행정부처간의 협의의 중요성이 일고 있다. 국가의 중요성이 이따로 높아야 하는 현실적인 백해무익하다.

李基澤 민주당 대변인은 핵문제에서 북한 핵무기가 개발된 핵발전시설 보유를 금지한 한미비핵화선언제3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민외장기 원자력기술발전을 위해 핵무기개발의 핵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핵무기개발의 국제분화(國制分化)된다는 지적에서 핵발전시설 보유에 관한 주장을 펴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평화목적의 핵발전 기술의 가능성을 더욱 열거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 시설에 관한 발의의 소관할 핵수권관

핵문제 해결 이후의 對北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핵문제 해결이 단순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핵문제 해결에 따른 핵

北정책의 일부는 전면적 궤도수정은 또한 변의 국민적 실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對北정책의 옹호적 북한의 개혁이전, 개혁진행, 개혁 이후로 나누어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개혁이전의 시기에서는 남북 양자간의 협상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보다 통일을 위한 국내적 기반조성과 多層的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협상전략은 美-북한 3단계회담에서 단계적 일괄타결의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자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혁을 통

한겨레신문 1994. 2. 19(3) ▽

# 사설

## 핵문제 해결에 '발언권' 행사하라

통일관계장관회의는 17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다음주중 북한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사찰결과가 만족스럽고, 남북 특사교환이 실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훈련 중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 수락이 공표되자마자, 관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제안과 함께 비경제분야 인적교류의 조기재개, 남북경협 전망 등이 상급하게 튀어나오게 하면, 한쪽에서는 북한의 핵사찰 수락이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뒤엉키는 바람에 국민들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방침 천명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혼선을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두가지 조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특사교환'이다. 미국 또한 핵사찰 결과가 만족스러워야만 북한과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히 '특사교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18일 방미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메시지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정부가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 곧 '특사교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힘겨루기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소외됐기 때문인 듯하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들러리에 불과한 인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온 북한의 태도로 비춰볼 때,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직거래에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에 특사교환이 포함되는 것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를 본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인데, 북한도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최근의 사태진전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와 같은 민족의 앞날이 걸린 문제에서 주체적인 발언권을 담당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북한의 '핵 투명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수락한 핵사찰 내용에 덧붙여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론하고 있다. 영변의 '수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3단계 고위급회담 이전에 관철되어야 하는 것인지, 3단계 회담에서 거론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한차례 걸고트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핵 사찰 결과를 놓고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미중인 한승주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그는 "사찰 결과 설사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에 전용했음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고, 이미 핵무기가 제조됐다면 해체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社說

## 정상회담, 先核해결로

金泳三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동양의 「개항과 변화」의 성파에 자신감 표명하면서, 국가적 담판과제로 국제화, 공직사회의 혁신, 국가정책의 강화, 법질서 확립, 불가역적 민주주의의 개선 등을 대외정책의 이념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념 회견은 그 전례적으로 보아 지난날 年頭기자회견때의 비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國政장부의 既存정책을 재확인하고, 대신변경할 것임이 분명하다. 때때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아, 가장 관심의 쉼이 될 것이 없을 듯한 경제부채의 관해 구체적인 處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正정부가 任期2年の 政무프로그램을 4단계의 長期개발의 프로그램과 大綱, 短期의 國政刷新의 大綱을 短期개발을 제시했었다.

이번 회견은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核개발 저지에 노력」을 결정,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한 것은 「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金日成주석과 만날 수 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先 경제조건 실현 後 정상회담」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것

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北核에 대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간의 상호사찰이 양질의 이뤄지는 한편 기본합의서의 의한 남북관계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설정했고 金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와 을 연두회견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前向의 자세의 배경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않았는데 IAEA의 사찰수단과 장차 남북특사교환 전방 등으로 北核문제에 해결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樂觀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金대통령은 양국의 正面를과 스타일대로 金주석과 직접 민중생활과 남북공동의 해답을 찾겠다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IAEA가 주도하고 있는 핵문제를 정부가 남북간의 해결을 위기로 전환시킨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核해결전의 정상회담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내놓을 수 없다. 그러한 차원의 정상회담이 경우 정상회담과는

北核해결협상과 이행을 뒤엎을 여지가 있고 그들에게 對南정치 공세와 선전의 발미를 제공되며 선진화 項上을 對峙에서 남북간의 核과 함께 고려연방제와 통일선전협약의 계산이 단선 수위 10大綱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무조건 冷戰의 시각과 교과서적인 反共자세로 북한을 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소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分斷구조를 뒤엎는 大事件이 되므로 반드시 양국이 적대자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核개발 중단-평화의지의 확인이 이뤄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1994. 2. 28(3) ▽

# 사설

## 핵문제와 남북한 당국의 자세

북한과 미국은 26일 핵사찰 개시와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지난 15일 북한의 핵사찰 수용 전격발표 이후 북-미 사이에 얼음 넘게 깔려오던 막판 힘겨루기가 한고비를 넘겼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사찰을 3월1일부터 개시하며,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을 관문점에서 재개하고, 미국과 북한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3월21일 제네바에서 연다는 것이다. 이 합의내용은 양측이 3월1일 공동발표하고 이 날짜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오늘 북한에 제의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도 한국이 내일 미국보다 먼저 발표해서 미국이 이를 추진하는 형식을 밝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막판 협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대목은 북한이 수용한 핵사찰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남북한 특사교환 문제였다. 핵사찰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사찰단이 3월1일부터 사찰에 들어가 2주 동안 사찰활동을 벌인다고만 발표했다. 1년 가까이 실시하지 못했던 핵사찰이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허종 북한 대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잘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나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미뤄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남북한 특사교환 문제는 북-미간 협상에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기 위해 극력 노력했다는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고위급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고 북한도 이를 받아들였다. 북-미 대화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북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받게끔 상황을 조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상황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문제와 통일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미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미 협상에서 사전·사후에는 물론 회담중에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들러리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번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훈련 중단 발표권이 우리 정부에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서가 채택된 다음에야 미국보다 한발 먼저 발표하는 공색한 조치를 취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고작 초입에 들어섰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쌓여 있다. 비록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민족의 앞날을 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길이라면,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좀더 원대한 구상 아래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社 說

## 형식적 特使교환 안된다

美·북한간의 합의사항의 하나인 11월 한의 特使교환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또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것도 전적으로 북한의 성실성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韓界의 두 장관은 마치 특사교환만 이뤄지면 남북한간의 3단계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두지만 이를 믿어질 수 없다. 특사교환의 최대목적은 남북간의 핵상호사찰인데 교환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핵상호사찰을 위한 4차 실무접촉을 의지 이유도 무산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특사를 無實化할 여지가 있으며, 셋째 核사찰은 미국 및 IAEA의 제원자력기구와 해결할 문제라면서 상호 사찰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현재 북한의 관료와 목판은 오직 후련 중지와 3단계회담을 염망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의지를 우리는 무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특사교환을 내세우지 않으면 저 남북이 합의한 非核化공동선언에의해 상호사찰도 이 지역의 핵무명정부를 환인한 다음에 人的 物的 교류와 협력, 통일문제 및 頂上회담개최 등 부수적인 진지하게 협의함으로써 핵을 모든 문제를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그 저 양쪽 특사가 실질적 합의없이 서울과 平壤을 오가며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은 나쁜 선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당초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남북실무접촉을 중단했다는 「특사교환」의 比重을 깬다 내리려는 책략이 분명하다. 북한의 속셈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그럴수록 정부는 특사교환에 있어 先決과제인 즉 남북상호사찰을 고수,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이 특사 교환을 그저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 경우 내일 조건부로 선언할 「특사교환」 후련 중단도 빠른 시일내에 취소, 再開

하고 3단계회담도 성사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남북대화는 결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특사교환의 IAEA와 함께 북한의 핵해결과 진상을 규명하고, 또 우리가 北核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絶好의 기회인 만큼 절망의 현실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對北 자세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混線을 주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특사교환」은 「實質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담준비와 戰略수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社 說

## 생산적인 南北대화 기대한다

오랜 동결상태의 남북대화에 힘겨운 시동이 걸리려 하고있다. 북한은 1일 상호 관문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3일 상호에 갖자는 수정제의를 해왔다. 이로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란 이름이지만 남북대화가 마침내 3일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약속대로라면 1일부터 이대화는 시작되었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은 이미 평양에 도착, 사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와의 실무대화에 응하고 우리는 94팀스피리트의 중지를 발표했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실무접촉일자 수정제로 지연된 것이다. 출발부터 북한측이 성의가 없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불만을 느끼게 된다.

북한측에도 사정은 있을 수 있고 얼마간의 단순한 시간지연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처음부터 미국에만 집착해왔고 우리와의 대화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해왔다. 이번 지연이 그러한 무관심에서 나온 의도적 행동의 결과라면 불길한 조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북한당국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은 말이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줄수있는 상대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사실이다. 식량과 에너지를 비롯, 북한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당장 가장 잘 해줄 수 있다. 북한의 붕괴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며 핵만 포기한다면 경제지원은 물론 美日과의 관계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차 다짐한바 있다.

특사교환등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대표단은 북한에 대해 그러한 사실을 적극 설명하고 성실성의 결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특히 文民정부의 달라진 모습과 善意의 진심을 보여주고 납득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남북대화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지나지 않은 同床異夢의 것이었다고 할수있다. 말하자면 무의미한 입씨름이요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새로이 시작되는 대화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라면 시작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일 시작되는 실무회담은 특사교환을 위한 것이다. 특사교환목적은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이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속한 특사교환으로 이어져 金泳三대통령이 추진의사를 밝힌 남북정상회담등의 본격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로 발전하길 우리는 기대한다.

# 社說

## 「特使교환」진전을 기대한다

정부의 對北제로부터 남북한 최초의 特使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됐다. 작년 10월 이후 실무협상은 중단된 후 4개월여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북측-미측 제3차 대화회담 개최의 선례가 마련된 것은 이 시기부터의 3월 중순부터이다. 첫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북한측을 제외한 남측과 북한의 실무협상은 미중회담이 재개된 이후부터이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북측-미측 제3차 대화회담 개최의 선례가 마련된 것은 이 시기부터의 3월 중순부터이다. 첫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북한측을 제외한 남측과 북한의 실무협상은 미중회담이 재개된 이후부터이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북측-미측 제3차 대화회담 개최의 선례가 마련된 것은 이 시기부터의 3월 중순부터이다. 첫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의 관해서는 북측의 주장이 거의 두 수 없게 태세이다. 미국의 대화 중단은 구실로 삼았던 톱스피릿 후원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특사 교환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것도 의도적이다. 계속되는 실무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측은 협상을 위해 모처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분위기를 키워준다면 남북화해의 큰 구실을 할 것이다. 특사교환의 실패는 남북한 사이의 불신을 키우며, 나아가 정상회담이론까지 어지러뜨리게 될 수 있다. 바란다.

조선일보 1994. 3. 4(3) ▽

# 社說

## 끝없는 북의 조건

북한측 특사교환을 위한 3명의 실무협상은 북측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화 중단은 구실로 삼았던 톱스피릿 후원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특사 교환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것도 의도적이다. 계속되는 실무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측은 협상을 위해 모처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분위기를 키워준다면 남북화해의 큰 구실을 할 것이다. 특사교환의 실패는 남북한 사이의 불신을 키우며, 나아가 정상회담이론까지 어지러뜨리게 될 수 있다. 바란다.

정부의 對北제로부터 남북한 최초의 特使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됐다. 작년 10월 이후 실무협상은 중단된 후 4개월여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북측-미측 제3차 대화회담 개최의 선례가 마련된 것은 이 시기부터의 3월 중순부터이다. 첫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북한측을 제외한 남측과 북한의 실무협상은 미중회담이 재개된 이후부터이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북측-미측 제3차 대화회담 개최의 선례가 마련된 것은 이 시기부터의 3월 중순부터이다. 첫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社說

北은 팀訓중단뜻 깊이 새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北韓核사찰팀이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때를 맞춰 板門店에서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우리정부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예정되었던 手順이긴 하지만 남북이 4개월여만에 대화를 재개했고 北韓이 1년여만에 IAEA의 核사찰을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또 우리정부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는 北韓이 앞으로 核사찰과 南北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정부는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IAEA의 北韓核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남·북간 특사교환을 통해 核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따라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은 재개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北韓측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北韓이 얼마나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핵사찰을 성의있게 받느냐에 따라 훈련 중단 또는 실시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팀스피리트중단과 IAEA의 北韓核사찰은 지난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갔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핵투명성의 보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北韓이 해야 할일은 이제부터이다. 우

선 IAEA의 核사찰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核개발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도 받아들여야 하며 남북상호사찰도 수용해야 한다.

남북상호사찰은 IAEA의 사찰을 보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韓半島의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민족끼리 어렵게 성사시킨 「韓半島非核化공동선언」은 死文化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협상에서 北韓의 상투적인 전략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北은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 싶으면 엉뚱한 트집과 핑계를 내세워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곤 했다. 이번에도 3월중 실시될 예정이던 팀스피리트훈련을 일단 중단시켜놓은 다음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시간벌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北韓이 또다시 상투적인 수법을 쓴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은 즉각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팀스피리트훈련은 北韓의 대남도발위협이 상존하고 있는한 필수불가결한 방어용훈련으로 北韓의 核문제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 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은 北韓의 核개발만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민족적숙원때문이다. 北韓당국은 우리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키로 한 그 깊은 뜻을 신중하게 헤아려주기 바란다.

社說

特使교환 이번엔 成事돼야

북북특사 교환의 실패는 긴대를 걸었던 지난해의 실패와 같은 쪽의 새 조건 제시로 무안으로 끝나고 9월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특사교환은 전반기 순환회담이 아니다. 북한의 미북회담 대화상대단과 기원연합회 전반기 회담이 전반기 대화 두가지 새 장을 가열한다. 나침반 때문이다. 지난 9월의 보성회담 북북회담은 자칫 北核사찰을 위한 韓美연합회의 시간표를 재조정해야 할 전반기 지날게 된다. 오직 보성 회담과 북중의 유관한 시간과 기원연합회 주장을 배려한다.

북한측은 기원연합회 회담이 새 장인 보성회담과 보성회담의 연장선에 있는 韓美연합회의 시간과 순환회담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진 자끼리 약속하지 않았던 보성회담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모두 무시하여 외의 특사 교환의 절차조차 보아야 할 것 거부

했다. 북한은 지난해 세차례의 실무접촉에도 核전쟁 명분상자와 국제공동체제의 포기를 요구해 대화를 깨버린 일이 있다. 거기다 이번의 회담을 보성회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전반기 주장을 무시한다. 북한이 계속 세 차례 회담을 할 것이니 순환회담이던 보성회담 보러 오라. 한미연합회 대화에서 추방부담 유관한 고지를 차지할만한 수완이 수도 있다. 또 특사교환 자체를 미북과의 인간적회담과 전반기 회담이 쓰기에 한 포섭의 하급회담이다. 北은 對美 대화정체화한 단절전까지 자기 발표회담을 상사시킬 뜻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원 연합회를 우선시하는 것은 회담이든 보성회담이든 회담이든 보성회담이든 보러 오라. 한미연합회 대화에서 추방부담 유관한 고지를 차지할만한 수완이 수도 있다. 또 특사교환 자체를 미북과의 인간적회담과 전반기 회담이 쓰기에 한 포섭의 하급회담이다. 北은 對美 대화정체화한 단절전까지 자기 발표회담을 상사시킬 뜻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을 회담으로 보았다. 북한은 지난해 세차례의 실무접촉에도 核전쟁 명분상자와 국제공동체제의 포기를 요구해 대화를 깨버린 일이 있다. 거기다 이번의 회담을 보성회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전반기 주장을 무시한다. 북한이 계속 세 차례 회담을 할 것이니 순환회담이던 보성회담 보러 오라. 한미연합회 대화에서 추방부담 유관한 고지를 차지할만한 수완이 수도 있다. 또 특사교환 자체를 미북과의 인간적회담과 전반기 회담이 쓰기에 한 포섭의 하급회담이다. 北은 對美 대화정체화한 단절전까지 자기 발표회담을 상사시킬 뜻이 없기 때문이다.

# 社說

## 北의 끌려다니기 언제까지

特使교섭을 위한 4차南北접촉이 성공하면 조선을 제시했던 북한의 5차 접촉에서 또다시 두가지 선택지를 한층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그것은 「외교원칙」을 전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협화음 부양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끌고다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만간 후방을 만지막아야 하며 뒤회전노선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남북교섭이 북이 빠지게 고쳐잡는 것은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정상이 합의한 주장을 내놓는 북한의 후방이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3월의 4차접촉 때 스위스 핵전정영수회담 제2차회의 「외교원칙」의 채택이 미사일 반일정지 및 금강강 3대협정(核안계발양호조항 제외) 등 북한이 5차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한편의 전제조건을 요구하자 이번엔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을 5개항으로 확대하여 「외교원칙」의 전제조건과 「자주적 평화협정」을 2개항을 추가한 것이다.

포함됐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합의, 發效시킨 기본합의서 채택과 7·4 평화협정에서 전면적인 自主平和민중대단결이란 조항을 「외교원칙」에 재확인한다. 「외교원칙」은 북한이 「외교원칙」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의 특담기피 태도는 姜錫柱의 「외교원칙」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외교원칙」은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외교원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두 차례 심층접촉과 북부부장의 「외교원칙」을 중언부언 보면 북한의 「외교원칙」은 「외교원칙」이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은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이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은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이다.

# 社說

## 그렇게 「절박」한가?

9월南北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의 서대포는 북측에 대해 『特使교섭』을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외교원칙」을 포함시킬 수 없다.

북측은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측의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명이다. 우리는 6차실무접촉에서 설사 특사교섭의 합의해도 실패한 협의회와 이전은 「외교원칙」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답을 받든 시연시켜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6차회담서도 특사교섭의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회부족을 면 절박성 면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 전담해서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측의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측의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원칙」의 전제조건인 「외교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社 說

일관한 北韓의 속셈

북사극화를 위한 실패한 노력에서 北韓의 무장해제 의지와는 정반대이다. 그러나 美 北韓의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3년차 회담은 美 北韓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김일성 주석은 16일 평양에서 10여명의 관료와 함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김일성 주석은 16일 평양에서 10여명의 관료와 함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경향신문 1994. 3. 13(3) ▽

社 說

北의眞意 제대로 읽어야

정확하게 결론해 보아야 한다. 南韓은 언제까지나 인내와 자제를 의무로 삼고 北韓은 그것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도 그들 관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韓美 양국은 북사극화를 이끌고 있다. 北韓은

대중 무장투쟁을 그들의 단호한 대처 행동을 통한 북사극화의 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북사극화를 통한 韓美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를 韓美 양국이 조정할 수 있다.

北韓의 3년차 회담은 美 北韓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김일성 주석은 16일 평양에서 10여명의 관료와 함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3년차 회담은 美 北韓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韓의 김일성 주석은 16일 평양에서 10여명의 관료와 함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北美 양국의 발표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다. 北韓의 3년차 회담을 전사시키지 못한 모양새가 아니다. 이를 보면 北韓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美 北韓 회담의 의도는 북-미 수교를 통한 남북 대화의 촉진에 있다.



# 社說

## 南北 또 迷宮인가

南北회담의 맥들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일 열린 제6차 실무접촉에서도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어떤 합의도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16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전담은 아직 없다. 북한측의 주장인 대노변화가 없�는 한 특사교환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지금의 정황이 너무 무뎠다. 이전의 특사교환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남북의 정황이 남북회담을 거듭함에 따라 특사교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단계 고위급회담은 남북회담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회담이 이루어진 후 특사교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12일 남북회담의 진행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그에게 아니다. 그들은 특사교환을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고위급회담의 고위회담을 더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고위급회담을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특사교환을 내자고 주장한 북한측의 태도만 보아도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없다.

저실현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우리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일말의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는 명제에 우리 정부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급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 정부가 아니다. 경제문제를 말할 여지도 없고 북한은 현재 여러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측이 새로운 제의를 해오면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우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노출시켰다. 그러다 보니 북한측의 의도한 대로 그들의 지연전략에 이끌려 가는 듯한 우려를 국민에게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는 인상을마저 강하게 풍겼다.

남북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추진전략이나 의지가 너무 막연하고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실무담

국가들의 발표내용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줄 모르는 것이었다. 물론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과 채찍을 갖고 있었다는 확신만이라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특사교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訪韓한 갈루치 미국 무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韓美 양국간의 입장차이에 대해서도 전담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또한 차례를迷宮을 헤쳐나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4. 3. 15(3)

# 사설

## 지지부진한 핵사찰과 특사교환 접촉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21일에 열릴 예정이던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남북한은 내일 7차 접촉을 갖게 되지만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지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못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도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오늘로 핵사찰 활동을 매듭짓고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핵사찰단은 핵심 시설물인 영변의 방사화합실험실에 대한 시료 채취를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6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좋은 출발로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지적하고 인내를 갖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를 남북한과 미국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특사교환 접촉과 핵사찰의 지지부진도 얼마쯤 예견됐던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찰 실패나 회담결렬이나 성급하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21일에 열리지 않게 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그것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게 사실이고 보면

남한이 두손 묶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특사교환을 못박은 사실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한 발언 등 4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도 이 점을 의식했음인지 12일의 6차 접촉에서는 '4개 요구사항'에 대한 남한의 '설명'에 '유의'하겠다고 일보 후퇴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번 접촉에서 남북한은 합의서 명칭, 전문 등 28개항 가운데 25개항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사의 임무, 방문의 순차문제, 체류일정 등에만 이견을 보였다. 진전이 있었다면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은 특사교환 문제에 좀더 진전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남한 당국으로서 특사교환은 그에 못지 않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남북문제에서 '장군' '명군'식으로 맞대응할 게 아니라 좀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북-미 고위급회담의 21일 개최 여부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말 그대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자리잡는 일이다.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한-일본 관계의 개선은 그에 이어지는 자연스런 귀결이다.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북한의 핵투명성 확인과 남북한의 실질적 관계개선이라는 민족적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社說

## 또 무산된 實務회담

특사교섭을 위한 실무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이번 실무회담의 실패였다. 그러나 실무회담의 실패를 거둬들이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 회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회담이 板門店의 실무회담이 아니라 판문점의 실무회담이었다. 판문점 실무회담은 1992년 12월 1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회담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회담이었다. 판문점 실무회담은 1992년 12월 1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회담이었다.

美-北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인 아리산회담이 실패하였다. 美-北 3단계회담은 美-北 3단계회담이 아리산회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리산회담이 실패하면 美-北 3단계회담도 실패한다. 아리산회담은 1992년 12월 1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회담이었다. 판문점 실무회담은 1992년 12월 1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회담이었다.

서울신문 1994. 3. 18(3) ▽

# 社說

## 北韓 호응시킬 방법 없는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남북대화에도 적극 호응하게 만들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IAEA 사찰과 특사교환에 대한 북한의 무성의를 보면서 자문해보는 온 국민의 답답한 생각일 것이다. 이번을 포함해서 작년 3월 북한의 핵확산방지협정(NPT) 탈퇴 후 지난 1년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의 확인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북한의 핵포기 및 투명성보장을 설득하며 대화에 응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고 겁도 내지 않는데 떡줄을 사탕줄게 들어라, 아니면 회초리를 들겠다며 타이르고 으르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같은 방법의 지속은 시간과 정력의 무의미한 낭비일 뿐일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설득의 당근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보다 큰 것을 제시하고 회초리도 북한이 정말 겁낼 무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당근은 팀스피리트 중단과 對韓·美·日 관계 개선 및 경제지원 등이었다. 회초리는 유엔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였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근은 구미가 당기

나 체제위협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경제제재의 회초리는 말려줄 중국이 있고挑發불사의 대항무기도 있어 별로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절대절명의 것은 體制 유지다.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와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逆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회초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먼저 북한의 체제 유지에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방해할 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제제재가 사실상 어렵고 위협하다면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쪽에서 대화를 끊고 방치해 버릴 수도 있고 세계에 북한의 인권과 이산가족 왕래 거부 등을 고발할 수도 있다. 개방과 개혁의 세계를 북한 주민에게 전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외면 말고 강력한 對北 협상 카드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자청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비위를 거스를까 전전긍긍만 하지 말고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발상 전환의 對北 정책 재검토를 시도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협상은 전제조건이 있다. 北 核 회담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은 전제조건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회담은 전제조건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회담은 전제조건이 없는 것이다.





# 社說

## 北核정책, 국민이 불안하다

北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94년 2월 25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94년 2월 25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社說

## 對北정책 재검토 당면한다

북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핵사찰 문제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핵실험 관련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對北전략 전면 재검토를

북한의 理性을 잃었다. 그들의 好戰性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 남북한족의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를 연어분노를 느낀다. 그들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대결을 뛰어넘어 전쟁불사'까지를 떠미고 있다. 그들의 과연 대화의 상대였는가 하는 의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19년 관공정에서 열린 남북특사교섭을 위한 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서울의 여기사'를 지냈다. 전쟁이 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우리측 대표에게 '전쟁이 나면 평안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20일 평안남도에서 열린 대치상대가 계속된다면 결국 평안남도에서 또 한 차례의 전쟁이 터지는 사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사교섭 실무접촉 대표단도 21일 오후 우리측이 전쟁국면이 될 줄 알고 갑자기 전쟁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북측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합계를 느낀다. 후회하는 말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는다 해도 한계가 있다. 사실은 일종의 시켜주어야 한다. 단명한 의지의 표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對北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社說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은 다소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북한측의 태도 변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게 잘못이었다. 그렇다고 정부의 대화노력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로 국면을 타개한다는 논리는 남북관계 해결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국면이 아니다. 국제적 추세의 관심사였던 IAEA의 北核사찰도 북한측의 방해로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北美회담의 합의 사항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사교섭을 위한 남북협상도 북한측이 중단을 선언하고 나감 시작했다. 北核문제에 안보리의 회부되는 것이 시간문제다. 미국인 유엔의 對北부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규정할 것이 당연한 일이다. 21일 긴급수상직인 안보정상회담에서 對北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진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둘 대목이 있다. 첫째는 국민불안 해소이다. 전쟁 불사라는 북한측 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은 분노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對北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北核문제가 안보리에 넘어간 이후의 우리 정부 대책이다. 자칫 우리 정부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것은 북측이 노리고 있는 사태전전의 방향이다. 그리고 앞으로 對北정책을 수립하는데 있

## 社說

민은 분노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對北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北核문제가 안보리에 넘어간 이후의 우리 정부 대책이다. 자칫 우리 정부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것은 북측이 노리고 있는 사태전전의 방향이다. 그리고 앞으로 對北정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강경파의 우세이다. 이를 패강경노선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강경이 앞선 강경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의 선을 확고히 하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북한이 이성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강경으로 대처하면 결국 국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강경하고 확고한 이성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북한의 침략군정이 이미 6.25남침을 분斷이라 자칭한 불법의 對南도발 행위들이 인공적으로 脫冷戰—大和解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남북간의 화해와 단교의 한 단계를 자라면서 北의 대표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공산화파 戰爭不辭의 暴行을 서슴지 않을 것」 「非禮의 전제강요」 「그들의 對南赤化수선을 노골시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血族의 同胞을 상대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북한이 對美·對日·對南의 전제강요인 特別고압의 선전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같은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공산화파 戰爭不辭의 暴行을 서슴지 않을 것」 「非禮의 전제강요」 「그들의 對南赤化수선을 노골시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血族의 同胞을 상대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IAEA 모두 배제시킨 채 오직 미국과 의 협상에서 끝까지 이용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IAEA가 北核을 유엔안보리의 이관해도 제재까지의 시간의 여유를 만들기 사이 미국과 단독으로 一括停戰하겠다고 제안의 걸려 있다. 여기에 안오르니 金正日의 核이란 韓美의 국제사회를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北核은 韓美의 對南의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이런 북한의 사색안정화파의 노골적인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공산화파 戰爭不辭의 暴行을 서슴지 않을 것」 「非禮의 전제강요」 「그들의 對南赤化수선을 노골시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血族의 同胞을 상대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對南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同族에 戰爭위협하다니 이 무슨 말인가.

결의 추진을 망치고 동도 없도록 사교화의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禁物이다. 이를테면 金大중의 이런 말은 나쁜 선전수단이다. 北核을 北核해결의 또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北核을 통한 北核해결을 위한 개방을 나서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해서는 核시설 운영 확충에 쓰이는 것이므로 日朝聯合승리에 대한 국제적 미사일용 전자제품의 필수품들을 만도 볼 수 있다.



# 社 說

## 頂上설득에 기대진다

행정기관개혁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개혁의 필요성을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으나, 행정개혁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행정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발견 대비 萬全부터

발견 대비 萬全부터. 이 말은 행정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제3차 행정개혁의 성과

제3차 행정개혁의 성과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개혁의 필요성을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으나, 행정개혁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행정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행정개혁의 과제

행정개혁의 과제는 행정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행정개혁의 전망

행정개혁의 전망은 행정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의 추진력은 개혁의 내용과 개혁의 속도, 개혁의 범위, 개혁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社說

韓日頂上의 北核저지 合意

북한 핵문제에 유엔 安理會의 회부  
됨에 따라 국제적 공조체제가 실현되  
고 있는 시기에 韓日 양국 정부  
가 북한 핵저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키  
로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訪日 첫날인 24일 오후 金泳三 대  
통령과 호소카와 일본 총리는 단독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남북대화 기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우려를 같이 하고  
장외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韓日 양  
국인들은 韓美日 3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  
다. 호소카와 총리는 지난해 慶州에  
서 있었던 韓日 정상회담과 지난 19일  
中國 방문에서 북한 핵저지를 위한 韓  
日간의 협조관계를 다진 바 있었  
지만 합의가 예상됐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양 정상간의 합의는  
시기적 중요성이나 내용의 적기성  
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단  
순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론에서 벗  
어나 구체적 행동의지를 담고 있기 때  
문이다. 북한 핵저지를 위한 유엔의  
제재가 시효할 경우 제재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면의 범위내」에서

일본이 책임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인  
을 다짐했다.

호소카와 총리가 최근 내각에 「對北  
경제 제재조치 준비」 지시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본이 이같이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일본도 한부 못지않  
은 이해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잘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  
기와 장거리 스킵 미사일을 개발한  
료할 경우 일본이 불가피하게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韓日 정상간의 이번  
합의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에 국한  
되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  
에 직결되었다는 공평인식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 핵저지를 위한 韓日 양  
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을 경우  
중·日 정상회담에서도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중·日 양국이다.  
최근도 일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원  
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다만 핵개발

▽ 서울신문 1994. 3. 25(3)

社說

脫北難民 버려둘 것인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비참한 실  
상을 전하는 보도가 잇달아 전해져 충격  
을 주고 있다.

어제 서울신문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별북장의 인권침해상황을 들어  
정치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망명을  
요청한 인부들의 숫자는 한국행 희망이  
180여명, 러시아거주 희망이 4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추산이다. 이가 데 공  
식적인 망명허용자는 4명뿐이고 대부분  
비공식 체류허가를 받고 북한측의 보복  
에 공포를 느끼면서 불안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작년 10월부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북  
한에서 중국쪽으로 넘어가는 북한주민  
들이 급증, 2천여명이 연변 연길 훈춘등  
을 유랑하고 있다는 최근 KBS 보도내용  
은 더욱 참혹하다. 1만여명이 넘는 것으  
로 추정되기도 하는 이들은 중국당국에  
적발되어 강제송환되면 화형에 처해지  
기도 한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월남파망후 전세제를 떠돌던 보트파  
플이나 냉전의 벽을 붕괴시킨 도화선이  
되었던 동독난민도 아니고 우리 동포인  
북한탈출 난민들의 유랑이라는 이 사태  
는 강건너 불보듯 할일이 아니다. 우리  
공관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정치적 망명  
자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별목장 인부들  
의 경우 신원확인 과 국제법 규정, 당사국  
과의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  
워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고 한다. 또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북한

주민들 역시 외교문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도주의 원칙에  
서나 동포애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정  
부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 생각한다. 북한탈출난민들의 유랑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정통성을 실증해야  
할 우리로서 우선 민족자존심이 용납하  
지 않는다. 더욱이 처형될 것이 뻔한 탈  
출난민들이 死地로 둘러보내지는 중대  
한 인권박탈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인권  
보호선진국을 지향하는 「신외교」 원칙에  
따라 소말리아에 파병까지 한 우리로서  
부끄러운 모순이다. 최근 외신들의 비  
관처럼 통일비용을 두려워한다거나 북  
한자국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국은 물론 유엔등  
을 통해 脫北난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러  
시아에 대해서는 별목장 탈출자들의 자  
유로운 거주를 허용토록 촉구해야 한다.  
또 그들을 한국에 받아들이는 문제도 검  
토하고 필요한 준비와 교섭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적어도 죽  
음의 길로 둘러보내는 일은 없도록 적극  
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난민수용소  
를 중국내에 설치하는 교섭도 검토할만  
하다. 물론 이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과 남북관계의 관점에서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통  
일과제의 예습이라는 면에서도 여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닌가.

저지를 위한 방편들의 서 제재보다 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재가 초래  
할 심각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부측의 생각이다. 유엔노의의 전  
조인도 명백한 사실이다. 韓日 정상간의 합  
의 내용도 기본조인인 대화론을 통한  
문제 해결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확고한 결의 표명으로 제재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전을 위  
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전쟁이  
라는 현안 의상대를 초래해서는 안 된  
다. 전쟁은 의제하며 핵개발 저지  
하는 데 국제적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  
이다. 북한이 이번 韓日 정상간의 합  
의가 핵개발 저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담긴 강력한 메시지인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社說

## 北核과 주변강국의利害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국들의 줄다리가 불안과 당혹의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對북한 제재 움직임과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지 전략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은 미국과 공조체를 유지하는 선에서 틀이 짜여 있다. 북한의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이어 러시아도 유엔 安保理 거부권을 발미로 적 극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北核을 둘러싼 양안이 더욱 복잡해져 간다. 냉전후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들이 각 각 국력의 결집의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 하겠다는 것은 국제정치현황이므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의의성이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저지는 평화적인 수단 을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의 고수가 불 가피하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전쟁으로 침략을 받을 때 朝蘇 군사 동맹 조약의 의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나선 것은 새로운 변수로 파악될 수 밖에 없 다. 이를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과 연관지어 보면 6.25의 아베이 새로운 원 진다.

러시아가 지난 24일 북한 핵문제 해 결을 위해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8 자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나온 이번 발 언은 다분히 강화된 중국의 對북한 영 향력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의 하나인 러시아 유 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지 금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양이로의 국제공조체제나 한반 도에서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했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엔 安保理가 북한 핵문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고 金泳三대 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러시아의 對北군사지 원 발언은 단순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 력 확보의 도를 넘볼 수 없다.

對北지원 천명인 러시아가 구소련 의 승계국으로서 북한과 군사협력조 약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韓蘇 수교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음을 감안할 때 그들의 기본의교노선이 변 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탈냉전과정에서 뒷전으로 밀쳐두었던 『대각주의』 「확장주의」가 되살아난 것 이다. 이리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 조되자 일본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영장이 아니라도 자위대가 적 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이 전례가

된 일본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 金대통령이 중국을 방 문중인 데도 『탑』 출판재개와 패트리어 트미사일의 한국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힌 중국의 對韓 태도도 간과할 수 없 는 사안이다.

핵문제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 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간의 실리경 쟁 내지는 파워게임 움직임인 그 책임 이 일차적으로 북한에 있지만 우리 정 부의 일관성없는 외교전략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지워져야 할 것이다. 우

리의 안보와 대북정책의 기초가 무엇 인지를 알 수 없게 한 黃秉燾 주중대사 의 회견 발언과 취소 소용도 같은 범주 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 이 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의 계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북한행위를 비롯한 한반도문 제에 대한 자주적인 정책의 정립과 추 진이 그것이라고 필연하다 고 본다.



時論

**경제발전 비전 열다**

▲ 우리 경제는 고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延河清



이러한 비전 열기란 단순히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對北 정책의 개방성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유정 (유리화학연구소 연구위원)

非核化와 핵주권

이러한 비전 열기란 단순히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핵화와 핵주권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핵주권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핵주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핵화와 핵주권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핵주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칼럼

白基範 本社 本設실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젠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존엄과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 카리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 時論

## 북한자세 주시해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鄭根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 한미정부의 핵카리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 상태라면 서방세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일성의 지각부 복제원자력  
기구(AREA)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데 썼다. 주요 핵시설에  
배치한 일부 지각의 사찰수용  
단을 약속했을 뿐이다. 이르면  
해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다소  
해소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  
이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지를 숙고해  
야 한다.

우선 인자에서 추정하듯  
북한이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  
개발을 가졌다고 가정하면서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주요  
사국의 입장과 행태를 검토  
해보자.



21일 열린 IAEA 특별회의  
사건과 북한의 지각부 핵  
의 방사화물질생산과 50기가  
W 원자로의 시료채취의 불가  
가능성, 핵개발의 진영이나 재  
조각해오, 영국의 정부  
를 제재지시했다. 그러나 사찰  
단의 보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과민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 文民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과다 응수할 수 없다.  
북한 핵무기에 대처할 위기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핵개발 자체가 북한정권의 안  
전문제에 불과하게 여겨지는  
정도는, 핵개발이 아니라 핵  
사찰과 핵무기 보유가 문제  
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 北核협상의 힘의 뒷받침 필요

핵협상에서 '신용'을 불타  
고 만들었다. 그러나 협상 사  
를 종사하고 김일성주체주의  
파티오트미사일의 조기 도  
입과, 핵개발의 진영이나 재  
조각해오, 영국의 정부  
를 제재지시했다. 그러나 사찰  
단의 보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과민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康仁德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과 더불어 뒷받  
침이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TIME  
本紙特約  
<2월28일주>

# 北核제임의 양면성

## 「채적보다 당근」 아직도 늦지않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호조치  
개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의  
확인이 정국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채적」 정책  
은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韓相 鄧 鈞 文.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and a suit.

對北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東 亞 鄧 鈞 文. Portrait of a man in a suit.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核 上 品 物 資 供 給 提 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 발

崔炳權 국제부장



평소 평범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다. 그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한국과 세계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다스려왔다. 그의 리더십과 외교 감각은 한국 외교의 큰 자산이 되었다.

그는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한국과 세계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다스려왔다. 그의 리더십과 외교 감각은 한국 외교의 큰 자산이 되었다.

# 유니언이 엉엉 울

한국에서 유니언이 사라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이후,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활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니언이 사라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이후,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활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니언이 사라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이후,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활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니언이 사라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이후,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활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니언이 사라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이후,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부활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東亞經濟



## 朴權相



최근 우리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기업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기업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 서울불바다설이 거둬내질

서울의 불바다 설이 거둬내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바다 설의 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서울의 불바다 설이 거둬내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바다 설의 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서울의 불바다 설이 거둬내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바다 설의 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서울의 불바다 설이 거둬내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바다 설의 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서울의 불바다 설이 거둬내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바다 설의 철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김우창  
고려대 교수

지난 19일 남북 실무  
자회담에서 북쪽의 대표  
는 서울이 불바다가 되  
는 전쟁의 가능성을 말  
하고 퇴장하고, 이에 따  
라 남쪽도 미국을 비롯  
한 서방세계와 발을 맞  
추어 강경 대응책으로  
맞서게 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결이 곧 파국 상태, 즉 전쟁과 같은 상태까지  
이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힘의 관계 조정에는 허  
허실실 강한 전략들이 여러가지로 동원되게 마련  
이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평형

### 남북평화와 체제적 사고

점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핵 전쟁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  
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공리가 되었다. 1950년대에 반핵운동  
을 주도하면서 버트런드 러셀은, 핵을 써서라도  
공산주의라는 악의 세력 확산을 저지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극단적 반공논리에 답하여, 가령  
소련 공산주의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핵전쟁을 무릅쓰기보다는 최악의 공산  
체제 지배 아래에서나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  
니지만, 논리는 인간이 살아 남는 한에서만 새로  
운 가능성, 반공주의자의 입장에서 비공산주의  
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 수행의 수단에는 정당한 목표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도 쓰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있다. 핵  
은 그 한가지에 불과하다.  
다시, 핵전쟁의 문제는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  
또는 남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의해서만 저울  
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 보유의 문제는 미  
국에도 해당하고 중국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당장  
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핵전쟁이나 거의 비슷  
하게 극한상황이 되는 전쟁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이다. 전쟁의 가공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건설의 고통도 적은 것은 아니다.  
80년대까지의 통계를 정리하여 만든 유엔개발계

획의 인간발전 지표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 된 13  
0개국 가운데 남한은 34번째, 북한은 45번째에 들  
어 있다. 이것은 대체로 구미의 소위 선진국이라  
는 나라들의 다음 그룹에 속하는 자리다. 이러한  
지표들이 삶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민족의 수와 6·25 이후 우리의 비  
참했던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그런 대로 우  
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할 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간 적극적 또 비판적 노력과 고통을  
돌이켜볼 때, 그것은 남북 어느쪽도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목표와 수단의 균형에 대한 섬세한 고려의 부  
재는 우리 사회의 명분주의에 관계되어 있다. 명  
분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적  
가치를 사사로운 이익의 위에 두려는, 수백년의  
도덕적·사회적 훈련으로 하여 얻어진 귀한 생각  
의 습관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관념이나 가치를  
절대화하는 정신적 습관은 명분주의에 관계되어  
있다. 어쨌든 우리는 혁명이나 정치체제나 국가는  
절대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정당  
화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최근에 멕시코의 치아파스에서 마야족 농민들  
의 반란이 있었다. 살리나스 정부는 놀라운 타협

을 통하여 여기에 일단의 해결을 찾았다. 정부는  
반란한 사파티스타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했을 뿐  
만 아니라 그 요구의 하나인 공정선거가 관철될  
때까지 반란군의 무장 유지를 수락하였다. 모든  
정부 권력의 핵심인 법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주  
장과 폭력수단 독점을 포기한 것이다.

80년대의 광주항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은  
있다. 그것은 어떠한 정부도 문제될 만한 생명의  
희생 위에 존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차  
라리 정부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것들이 말하여 주는 것은 국가나 체  
제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불가분한 것도 아니  
라는 것이다. 추상화된 이념, 또는 추상적으로 파  
악되는 체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중  
요하다.

혁명이나 체제는 핵으로 수호되어서는 아니된  
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대하여 또다른 체제적  
발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남북  
어느 쪽이나 그 나름의 정책이 있고, 그해그때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추상  
적 명분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생각되는 민족의  
삶에 대한 고려가 잊혀지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고려에서 볼 때, 어떤 종류의 정책  
수행 수단은 포기되어 마땅하다. 포기되는 수단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평화적 통일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가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요한 원칙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핵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전쟁을 예방하  
는 길이다.

한겨레신문. 전경. 1994. 3. 27(1) ▽  
중앙일보. 전경. 1994. 3. 28(5)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한 우려는 있다. 그러나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핵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전쟁을 예방하  
는 길이다.

### 北의 「戰爭협박」 잠재우려면...

## 對北 강압外交가 효과적



黃炳茂  
〈외교부 차관〉

외교부 차관인 황炳茂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 核투명성 보장 결연히 요구하고

### “안 응할뎐 반드시 응징” 알려야

외교부 차관인 황炳茂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  
고 전쟁을 협박하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  
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  
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  
고 있다고 지적하  
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야 한다고 말했다.





## VI. 其 他

### 1. 民主黨代表 新年 記者會見





# “李基澤대표 Pyongyang 평壤방문”

## 측근 7일파견 「實務준비중」 中國 거쳐 入北 金日成 면담 추진



북한인민군 구첵준이민 주  
민주당의 李基澤대표가  
측근 7일파견 「實務준비중」 中國 거쳐 入北 金日成 면담 추진

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일  
확인됐다.  
추진위원회의 임명 의  
중요 임무를 성사시킨다  
관찰의 파견 임명 7  
일 사전준비를 위한 특사  
를 10일 파견했다.  
이와 관련해 李代表는 오  
는 20일부터 25일까지 중  
터 訪北 및 金日成 주석 면  
담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李代表의  
중국 방문은 12일 中國  
12일 李代表는 中國 정부  
를 10일 파견했다.  
한고 임명된 李代表는 12  
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  
과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런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합된 3자회담이 북  
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中國 李  
대표의 訪北 방북에 李  
甲植(위원장) 姜昌成(부위원장)  
의 文惠相(비서실장) 등이  
10명 정도 수반한다.



민주당의 李基澤대표가 12일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가체제정비」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鄭夏宗기자>

북한인민군 구첵준이민 주  
민주당의 李基澤대표가  
측근 7일파견 「實務준비중」 中國 거쳐 入北 金日成 면담 추진

### 北核협상서 政府소외의 自主性의 문제, 李代表

이와 관련해 李代表는 12  
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  
과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런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 동아일보 1994. 1. 12(4)

## “統一 위해 訪北 李의 金주석에 核협결-經協 行爲 제의 할다”

### 李基澤대표가 中國 北京 訪北

李基澤대표가 12일 中國 北京을 방문했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에 核협결-經協 行爲 제의 할다를 제안했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에 核협결-經協 行爲 제의 할다를 제안했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에 核협결-經協 行爲 제의 할다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李代表는 12  
다. 李代表는 中國 정부  
과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런 협조 북한까지 들어갔  
위해 특사가 귀국할 때로

李基濬(李基濬)은 이 자리에서 '北北'을 소개하고, '北北'의 의미를 설명하며, '北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李대표 「訪北특사」 누굴까

북의사 표명, 북한은 평온 필요... 李基濬(李基濬)은 이 자리에서 '北北'을 소개하고, '北北'의 의미를 설명하며, '北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黨外인사” “재미교포”說

북과 조율단계 추측... 李基濬(李基濬)은 이 자리에서 '北北'을 소개하고, '北北'의 의미를 설명하며, '北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李基濬(李基濬)은 이 자리에서 '北北'을 소개하고, '北北'의 의미를 설명하며, '北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정치권의 「金日成면담病」

金 鎮 國 <정치부기자>

韓國의 박정희 역시 北韓의 金日成을 면담한 적이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면담을 거부했다. 李基濬(李基濬)은 이 자리에서 '北北'을 소개하고, '北北'의 의미를 설명하며, '北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訪北 발언

# 李대표·동교동 「미묘한 파장」

측근들 계획취소 건의  
李基澤 대표의 한 해 심층  
근은 13일 李 대표에게 訪  
北을 물음, 중무반란 계획

도 취소할 것을 건의했  
다. 訪北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 쏠리지 않  
다는 것이었다. 중무반란  
취소를 건의하면서 다른  
이유를 들었다. 동교동계  
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金大中 前 대표는 27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亞太재단 개소식 및 창립  
행사를 갖는다. 24일에는

亞太재단 창립에 따른 설명  
회를 가질 예정이다. 亞太  
재단은 金 前 대표가 창립  
후 1년 동안 각국의  
노련공이 단체를 결성  
「제외」했다. 개소  
식은 10월 15일 아노노  
빌딩에서 열린다. 아노노  
빌딩은 亞太재단이 아노노  
빌딩도 창립한다. 이 때에  
李 대표가 쿠나를 비유한  
것이 金 前 대표에게서  
간접적인 발언이었던 것  
이 李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는 것이다.

# DJ 「통일일정」 영향 「불편」 여지 KT 역할·차기大權과도 얽혀 계속 추진 불투명... 「訪中 결행」 여부 주목

나, 주변이 사들인 訪北후  
진에 따른 파문의 확산되  
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  
가 형성됐다. 동교동계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다.  
미묘한 파장이 나타나며 파  
적극적으로 시를 하는 것을  
꺼리하고 있는 것이다. 패  
문에 적어다 표점적으로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질 기  
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미묘함은  
이날 해심층근이 거론한  
나, 주변이 사들인 訪北후  
진에 따른 파문의 확산되  
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  
가 형성됐다. 동교동계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다.  
미묘한 파장이 나타나며 파  
적극적으로 시를 하는 것을  
꺼리하고 있는 것이다. 패  
문에 적어다 표점적으로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질 기  
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미묘함은  
이날 해심층근이 거론한

亞太재단 개소식 일정 등에  
있는데는 아니다. 본초는  
李 대표의 訪北 추진 그 자  
체가 講堂과 연결된 영향  
계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이 李 대표의 이른 아침에  
대표에게 설명했었다.  
동교동계는 金 前 대표가  
자신의 미래 계획을 잘 다스  
리도록 시를 전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서도 부  
한주석 金日成을 만나서  
영입 1차 李 대표를 뒤로  
미루는 방침을 李 대표가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  
런데 李 대표의 발언이  
단적으론 전진이다. 金 前  
대표의 스타일도 李 대표  
를 계속 분열시킨다.  
李 대표의 訪北이 金 前  
대표의 스타일과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李 대표  
의 기교와 그의 주변부의  
기를 만나는 데 있어할 수

멀지 않아 다칠 통일전국  
에서 「명실상부한 야당이  
李 대표의 訪北 추진 그 자  
체가 講堂과 연결된 영향  
계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이 李 대표의 이른 아침에  
대표에게 설명했었다.  
동교동계는 金 前 대표가  
자신의 미래 계획을 잘 다스  
리도록 시를 전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서도 부  
한주석 金日成을 만나서  
영입 1차 李 대표를 뒤로  
미루는 방침을 李 대표가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  
런데 李 대표의 발언이  
단적으론 전진이다. 金 前  
대표의 스타일도 李 대표  
를 계속 분열시킨다.  
李 대표의 訪北이 金 前  
대표의 스타일과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李 대표  
의 기교와 그의 주변부의  
기를 만나는 데 있어할 수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  
지만, 그의 탈탈하게 여  
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교동계의 한 의원은  
李 대표가 당내의 이런  
李 대표의 對北 접근 방식의  
도 의의를 제기했다. 美  
북한간 협상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2차의  
李 대표의 訪北 추진은 우선  
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다.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회  
시각에 있어서 동교동계와  
가으면 영향을 하겠다」

의지를 보였다. 이를 들어  
한측은 「결국 정부에  
있을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다.  
訪北카드는 차기大權  
제와도 연결 수 있는 사안  
이다. 金 前 대표가 그 때  
가장 신중하게 사안을 여  
전히 李 대표라는 게 양측  
에 정중한 인사들의 전신  
이다. 비주류층 사이의 전  
태할지는 미지수이므로 계  
한 訪北을 예정대로 강행  
하는지의 여부에서 1차  
드러날 것이다. <洪準浩 기자>

# 北 李 대표 訪北 환영

【서울=뉴시스】 15일  
李基澤 前 대표의 訪北  
을 환영하는 「환영」의  
【서울=뉴시스】 15일  
李基澤 前 대표의 訪北  
을 환영하는 「환영」의  
【서울=뉴시스】 15일  
李基澤 前 대표의 訪北  
을 환영하는 「환영」의  
【서울=뉴시스】 15일  
李基澤 前 대표의 訪北  
을 환영하는 「환영」의

# 北韓「환영」단학뒤 새국면

# “가긴 가되 서둘지 않는다”

## K-T 訪北

민족당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표단은 17일 오후 1시 30분경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민족당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표단.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단 제공)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 비판론 의식 “각계와 두루협의”

## 정부는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김대중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외신기자클럽 회견

# 북한제재는 전쟁 촉발 정계개편 가능성 희박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31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수정' 주장을 재확인하는 등 북한핵 및 자신의 방북문제 등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나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는데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한다는 뜻인가.

=어떤 제재도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이미 제재가 취해지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는 전쟁모험주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살부론 제재가 전쟁 위험을 재촉할 수 있다. 북-미의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성급한 제재로 북한에 구실을 주는 데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방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대표의 방북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대화를 중단해야 하느냐. 김 이사장도 가장 바람직한 경우를 말한 것이지만 남북간의 모든 대화를 그 이전에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 북핵 협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비핵화선언 수정 주장은 필요에 따라 남북한



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이 반대해서 남한이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남북이 함께했는데 당사자인 남한을 핵협상에서 빠뜨린 것은 북한이 잘못된 것이다.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남한이 소외된다면 이후에 남북교류 국면에서도 남한의 지위가 북한에 비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에도 금지돼 있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평화적 핵 이용을 하고 있다. 한반도만 금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대화를 통해 우방국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계개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재야인사 일부가 민자당에 입당하는 것을 정계개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계개편은 민자당이나 민주당 등 큰 덩어리의 이동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을 잘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크게 분열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이기택 기자

【워싱턴】민주당은 19일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핵북한제 재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당의 공식선언문을 당원의 90%가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21세기위원회에 참석한 민주

## 李대표, 클린턴에 親書

韓의 鄭大哲 趙淳昇의원은 이날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내는 李대표의 서한을 국무부 관계자를 통해 백악관에 전달했다.

李基澤 민주당대표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부에 촉구하고 防北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를 요약해 "북한 핵문제에 관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李基澤 민주당 대표 회견

정몽헌의 자료가 아직 많다. 경제위기와 타국와 체제유지를 위해 전쟁의 구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제3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의해 해결될 것 이므로 반대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패트리엇 배치 시기부적절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非核化선언” 수정해야

## 李基澤민주대표연설 南北정상회담 조속개최 촉구

### UR비준 반대·稅率 대폭인하 촉구



李基澤대표

민주·한·추진위원회의 18일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군제가 해

국행무기제중용이 아니라면 경제적 측면에서 국 제원자원기구(IAEA)의 사찰이라 해체처리를 할 수 있는 한라도 비핵화 선언 제언이 수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위한 국가주요정책 비전과 정부의 비핵화 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조속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1세기」를 위한 국가주요정책 비전과 정부의 비핵화 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조속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위한 국가주요정책 비전과 정부의 비핵화 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조속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정부가 재협상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개방이행계획서(UR)인정할 수 없으며 UR 협상안의 대한국회비준 등의 결과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송추기정 인사차관명

### 이기택 민주대표 일문일답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취임 1돌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권태세 강화를 위한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특히 강조했다.

-청와대 회담 뒤 냉각된 여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야관계는 영수회담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시대의 요청인 개혁과 과거청산에 대해 정부가 잘하면 돕고 못하면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시절 폐지를 주장했던 분인데 대통령이 됐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 도덕정치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보안법 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보안법 개폐에 대한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방북은 계속 추진할 것인가.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을 나는 선의의 충고로 받아들인다. 방북의지 변경은 추후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야당 대표가 가는 것이 최선이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방북을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간담회 내용을 보면 경제문제를 소홀히 다루는데, 앞으로 제도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인가.  
=경제문제는 당의 최대 역점 관심사항이고 제도개혁도 동시에

## 방북의지 변함없다

추진하겠다. 국민은 물가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는 실적위주의 경제성장을 위해 재발 위주 정책을 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축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의 김정은 유고설 언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북한 정보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김정일 유고설은 표현이 부족해 전달과정에서 과장된 것이다. 북한 정보를 얻는 고정채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와 기업가 등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는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자제인 김현철씨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권고위층으로부터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인가.

=여권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내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조강특위를 통해 당조직을 전국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예산회계제도를 실시하고 지자제선거 후보 등 당직자에 대한 국내의 연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당내 기강을 확립할 것이다.

-야권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추진할 것이다. 최소한 야당의 정통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부터 상당한 기득권을 양보할 생각이다.

김성호 기자

민중당의 추경호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당이 15일 취임 1주년인 만큼, 15일 1주 회견을 통해 당의 개혁과 기강확립을 특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李基澤대표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혁과 기강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保安法개폐 1 訪北 계속추진

### 李民主黨대표 취임1周 회견 在野등 망라 野圈 대통령합

추 대표 訪北 환영  
北 최고인민회의의 답화  
【서울 29일】 북한은 29일 추 대표의 방북을 기쁘게 환영하고 있다. 추 대표가 방북하는 동안에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의 방북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대표는 방북하는 동안에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방북하는 동안에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북초청은 이간책"

◇...통일원은 북한이 이기택 민주당대표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남북간의 통일문제 협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쌍방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의 제의는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정부와 야당의 이간을 획책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정통발사 발언으로 인한 이미지를 호색시키려는 불순한 동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통일원측의 반응이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대변인 담화가 '이 대표가 방북하면 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남북대화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이 대표 방북거른 않을것"

◇...민주당은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변인의 민주당 이기택 대표 방북관련 발언과 관련해 "우리 내부를 혼란케 하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스스로가

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현 상황에서 자신의 방북문제를 거론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기 정책위 의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면서 "이 대표로서도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할 경우 크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하순봉 대변인은 "상황이 어떻든 이 대표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 VI. 其 他

## 2. 金日成 新年辭 및 北韓 内部動向



### 北韓 金日成 주석 신년사 요약

30차 7개년계획기간(87~93년) 중 아군의 외상적 양상을 극적으로 극복한 것임을 자랑스럽게 회고하면서, 1994년은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담한 투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적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의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의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의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의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1994년은 "인민의 단결과 단결적 인민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의 단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 “핵암련맹과 국초래” 金日成

【서울 4일 AFP 통신】 김일성 북한 최고 지도자는 26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당 35주년 기념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北회담 통해 해서만 핵해결

#### 金日成 신년사 암련-강권맹과 국초래 주장

【서울 4일 AFP 통신】 김일성 북한 최고 지도자는 26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당 35주년 기념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정부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서울 4일 AFP 통신】 김일성 북한 최고 지도자는 26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당 35주년 기념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대책에 내용철반 할애

## 「金日成新年사」 내용과 전망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金日成

## 「核카드」 활용 對서방관계 개선 모색 한국정부 비난... 南北대화 회의적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 金日成 新年辭 무일 답았다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 經濟難타개·對서방 관계 개선에 의욕 南韓 고강도 비난... 對話의지 안보여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북한이 1994년에도 남북 6기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을, 1994년에도



# 北, 對美-日 관계개선 "미소"

## 金日成주석 신년사에 담긴 뜻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욕 3단계회담 앞두고 핵해결역설 「자본주의國家」 첫지칭우호강조 눈길

### 韓國정부엔 비판의 소리...對內的으로 경제 최우선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새해복귀와외의 친선협  
력강화를 소망하는 뜻을 밝힌  
다. 북은 이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가운데)이 12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朴濟均)

# 북한, 中國式개방 결정

## 核문제 3·4월前 매듭

### 金日成주재 회의의...北·中 회담 타진

#### 경제特區式 될듯... 黃長燁 특사 어제 訪中

【北京 15일路透電】 북한은 3월 4일까지 15일 이전의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中 회담은 3월 4일 이전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월 4일 이전에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中國의 끈질긴 설득 주효

【北京 15일路透電】 북한은 3월 4일까지 15일 이전의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中 회담은 3월 4일 이전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월 4일 이전에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도 "核카드" 효력 다했다 " 인식

### "작년 고위층 인사 사전포석" 시각도

【北京 15일路透電】 북한은 3월 4일까지 15일 이전의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中 회담은 3월 4일 이전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월 4일 이전에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1994. 1. 16(2)

【北京 15일路透電】 북한은 3월 4일까지 15일 이전의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韓의 「중국식개방」 결정 배경

외교관들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형」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중공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이끔계획이며, 黃長燁 특사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회담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부총리 孔鎭泰 임명



【서울 11路透】북부총리 임명... (Left column text)

원 자립을 매우 기원한 것... (Right column text)

北韓 권력 시열변동... (Main article text for the first page)

- List of names and titles: 1. 김도성, 2. 김정일, 3. 김일성, 4. 김정은, etc.

## 北, 새 합營法 마련

### 합작 확대-해외동포 세제혜택

【北京 11路透】북한은... (Main article text for the second page)

## 對南담당 姜柱日

### 북한노동당 對美 金容淳

【東京 11路透】지난 12월 북... (Main article text for the third page)

# 北, 러潛艦10척 추가구입

東京신문보도 「공격형」 4척에 이어

## 1척당 27만여弗 지급

【대진=북한종합통신】북한은 연안 방위와 해상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10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추가구입할 것이라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1989년 12월 10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10척을 더 구입할 예정이다. 1척당 27만여 달러(약 3300억 원)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4척의 공격형 잠수함 외에 6척의 수송형 잠수함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구입은 북한이 해상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9년 12월 10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10척을 더 구입할 예정이다. 1척당 27만여 달러(약 3300억 원)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4척의 공격형 잠수함 외에 6척의 수송형 잠수함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구입은 북한이 해상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北韓 開放 대비 3개小組 신설

玄達淳 金容燁 金長燾  
南韓國 美日本

北韓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남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대남 교류를 위한 3개 특구(玄達淳, 金容燁, 金長燾)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각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北韓의 대남 개방은 1994년 1월 18일(5)에 시작된다. 이 일환으로 대남 교류를 위한 3개 특구(玄達淳, 金容燁, 金長燾)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각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金容燁



黃廣燾



玄達淳

**核타결이후 南北정협등 관장 金達淳**  
**最高인민회의의 統一委員長 金容燁**  
**對日수교협상 주도한 「日本通」 黃長燾**

北韓의 대남 개방은 1994년 1월 18일(5)에 시작된다. 이 일환으로 대남 교류를 위한 3개 특구(玄達淳, 金容燁, 金長燾)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각각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3개 특구는 대남 교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금주석 비위 건드릴라

# 상황달라져도 쉬쉬

## 北韓 核임장 경진의 배경

北韓의 金日成 주석이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北韓 체제의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다.

50년 가까이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北韓에서는 金주석의 판단과 명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金주석들이 金주석에게 정확한 실상을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나 해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해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실무자들 착년말 「뉴욕 합의」 잘못 해석 보고

## 美와 대화해결 「낙관론」 심어주곤 속앓이

# 金日成 생존해있고 동양권

# 金正일에 權力전면 이양안해

日 교도통신

## 金英柱의 쿠인과 회담서 밝혀

【교도통신】북한 18일만 라고 말했다고 일련의 교의 부변인 金日成 주석의 1일 北京에서 金英柱 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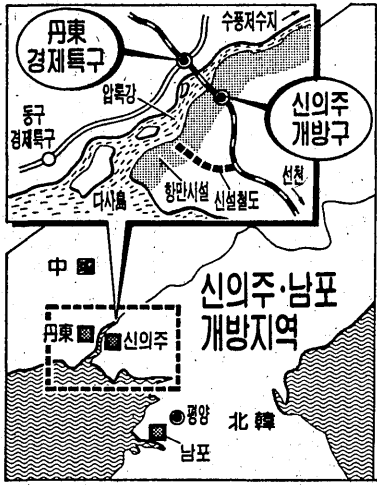
【교도통신】북한 18일만 라고 말했다고 일련의 교의 부변인 金日成 주석의 1일 北京에서 金英柱 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하고 있다고 비관하며서 핵화산(NT)로 불리던 북한을 철화시켰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金주석의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北韓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單文性」으로 회담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金日成의 金日成의 회담에서 회담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金日成의 金日成의 회담에서 회담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北新義州·南浦도 개방

## 先鋒·羅津이어 경제特區 조성 착수



같은 말하고 新義州는 지 노부내에 한때 이전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개방이 속사의 필요로 추 세며 개방을 하되, 단계적 으로 제한된 방식으로 추 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新義州에 3평방km, 南浦에 2평방 km 면적의 경제개방구 가 설치되며, 북한 정권 성립 기점인 1949 월 9일까지 최고인민회의 통과를 거쳐 이 지역의 개 방을 정식으로 선포할 예정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 최고 지도부는 내년에 新義州는 3개 구역으로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新義州의 對岸 도시인 丹東과 東北3省的 중심 도시인 瀋陽을 잇는 공업지대가 新義州 개방으로 연계할 태 세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과의 교역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新義州 개방에 비중을 크게 두 고 있다』고 밝혔다. 『新義州 개방과 관련, 북한·중국 간에 이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북한을 포함하는 서해 경제권 개발에 강한 의욕 을 표시했다.

이 전문가는 瀋陽·大連 간 3백80km 고속도로 이 외에 瀋陽에서 직접 丹東 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오는 10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한국전쟁 당시 中國軍의 전함몰자 공물트 로 사용됐으나 그동안 차 단됐던 瀋陽·鳳凰城·本溪와 북한의 清水面으로 이어지는 鴨綠江 제2철 교·철도 및 도로망도 지하자원을 실어낼 산업용 도로 재사용하기 위한 정 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두 70만명의 북한 제 2 도시인 新義州는 압록 강 沿江 지역인 北新義州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 되었으며 서부의 鴨綠江口 쪽은 수심이 20m 내외로 현재 5천t급 정박시설을 1만t급으로 확장하는 항 만 건설과 함께 新義州·平壤간 철도와 이 항만까 지 8km에 달하는 철도공 사가 진행중이라고 이 전문가는 밝혔다.

【北京=全權元 특파원】北 韓은 91년 12월 제1단계 로 先鋒·羅津지역을 자유 경제구역으로 개방한데 이어 제2단계로 新義州·南浦市의 일부 지

역을 개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대외경제관계인 사들과 절충적인 중화의 한 북한 전문가는 14일이

이 전문가는 『北韓은 北 韓의 개방을 추진하는 의 할 해왔다』고 전했다. 『新義州의 對岸 도시인 丹東과 東北3省的 중심 도시인 瀋陽을 잇는 공업지대가 新義州 개방으로 연계할 태 세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과의 교역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新義州 개방에 비중을 크게 두 고 있다』고 밝혔다. 『新義州 개방과 관련, 북한·중국 간에 이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북한을 포함하는 서해 경제권 개발에 강한 의욕 을 표시했다.

이 전문가는 瀋陽·大連 간 3백80km 고속도로 이 외에 瀋陽에서 직접 丹東 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오는 10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한국전쟁 당시 中國軍의 전함몰자 공물트 로 사용됐으나 그동안 차 단됐던 瀋陽·鳳凰城·本溪와 북한의 清水面으로 이어지는 鴨綠江 제2철 교·철도 및 도로망도 지하자원을 실어낼 산업용 도로 재사용하기 위한 정 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두 70만명의 북한 제 2 도시인 新義州는 압록 강 沿江 지역인 北新義州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 되었으며 서부의 鴨綠江口 쪽은 수심이 20m 내외로 현재 5천t급 정박시설을 1만t급으로 확장하는 항 만 건설과 함께 新義州·平壤간 철도와 이 항만까 지 8km에 달하는 철도공 사가 진행중이라고 이 전문가는 밝혔다.

# 金日成 4월 訪中

## 金대통령 訪中 직후 北核·中國式개방협약의



金日成 주석

北韓의 4월 중 中國 訪問할 金日成 주석의 中國 訪問은 91년 12월 제1단계 로 先鋒·羅津지역을 자유 경제구역으로 개방한데 이어 제2단계로 新義州·南浦市의 일부 지

역을 개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대외경제관계인 사들과 절충적인 중화의 한 북한 전문가는 14일이

이 전문가는 『北韓은 北 韓의 개방을 추진하는 의 할 해왔다』고 전했다. 『新義州의 對岸 도시인 丹東과 東北3省的 중심 도시인 瀋陽을 잇는 공업지대가 新義州 개방으로 연계할 태 세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과의 교역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新義州 개방에 비중을 크게 두 고 있다』고 밝혔다. 『新義州 개방과 관련, 북한·중국 간에 이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북한을 포함하는 서해 경제권 개발에 강한 의욕 을 표시했다.

이 전문가는 瀋陽·大連 간 3백80km 고속도로 이 외에 瀋陽에서 직접 丹東 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오는 10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한국전쟁 당시 中國軍의 전함몰자 공물트 로 사용됐으나 그동안 차 단됐던 瀋陽·鳳凰城·本溪와 북한의 清水面으로 이어지는 鴨綠江 제2철 교·철도 및 도로망도 지하자원을 실어낼 산업용 도로 재사용하기 위한 정 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두 70만명의 북한 제 2 도시인 新義州는 압록 강 沿江 지역인 北新義州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 되었으며 서부의 鴨綠江口 쪽은 수심이 20m 내외로 현재 5천t급 정박시설을 1만t급으로 확장하는 항 만 건설과 함께 新義州·平壤간 철도와 이 항만까 지 8km에 달하는 철도공 사가 진행중이라고 이 전문가는 밝혔다.



# 金正日 신변이상說

## 후계자금줄 「39號室」 폐쇄 심복잇단解任... 위치약화

**日 언론들 보도**  
【東京=李泰炯특파원】  
16일 52회 생일을 맞은  
金正日북한서기의 신변  
에 모종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서울발로 보도했  
다.

리를 담당해 왔던 조선노  
동맹중앙위원회의 재정  
경리부「39호실」이 폐쇄  
돼 자금줄이 차단되고  
金正日의 심복인 崔秀吉실  
장이 해임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는 등 김정  
일 신변에 이변설이 있다고  
통정당중앙「39호실」로  
불리는 이 비밀기관은 회중  
동무기수출대금, 조총련  
과 해외주재원이 보내는  
충성의 헌금을 모아 김정  
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했으나 최

근 이 기관과 관련된 부  
패가 만연되자 金日成주  
석이 친정체제 확립의 일  
환으로 폐쇄를 명령한 것  
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金正日의 심복인 崔秀  
吉실장의 해임은 최근 역  
시 金의 라이벌인 金達玄국  
가 계획위원장의 실각과  
함께 북한정권내 金正日  
의 위치약화를 의미한다  
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의한 사찰을 인정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핵  
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주도했던 金正日  
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  
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金  
正日서기의 개인자금처



**미사일리더인 金正日**  
총리 金日成(左)과 金正日(右)이  
북한 평양에서 만나고 있다. [중앙  
일보]

# 年初부터 “金正日 이상” 소문

## 李基澤대표가 밝힌 「有故說」

북한정보센터 한국대표인 위기근 부대표의 한마디로 제가 「정신이상」의 소문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위기근 부대표는 16일 아침의 서울을 밝힌 적이 있었기 때

북한정보센터 한국대표인 위기근 부대표의 한마디로 제가 「정신이상」의 소문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위기근 부대표는 16일 아침의 서울을 밝힌 적이 있었기 때



◇부상과 권력약화를 신변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 김정일의 최근 모습. 이 사진은 16일 그의 52회 생일을 맞아 공개된 것이다. 【홍광원=합】

## “총격이나 사고 : 짐부不能상태 美정보통에 들어 믿음을 만다”

이정호 부대표는 12일 한사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정신이상」의 소문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위기근 부대표는 16일 아침의 서울을 밝힌 적이 있었기 때

이정호 부대표는 12일 한사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정신이상」의 소문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위기근 부대표는 16일 아침의 서울을 밝힌 적이 있었기 때

## 주변인물 부패심해 일단 肅正 외교실패로 「후계자 資質」 의심

○...「주변인물」의 부패 심해... 「외교실패」로 「후계자 資質」 의심

○...「주변인물」의 부패 심해... 「외교실패」로 「후계자 資質」 의심

## 東京근보·朝總聯 등이 震源

이 소문은 「東京근보」와 「朝總聯」 등이 「震源」

이 소문은 「東京근보」와 「朝總聯」 등이 「震源」



金正日

## 生日에 일곱안보인 김정日

## 資金줄 폐쇄·事故說 등 소문 잇따라 黨·海外공관선 행사요란...動靜 측각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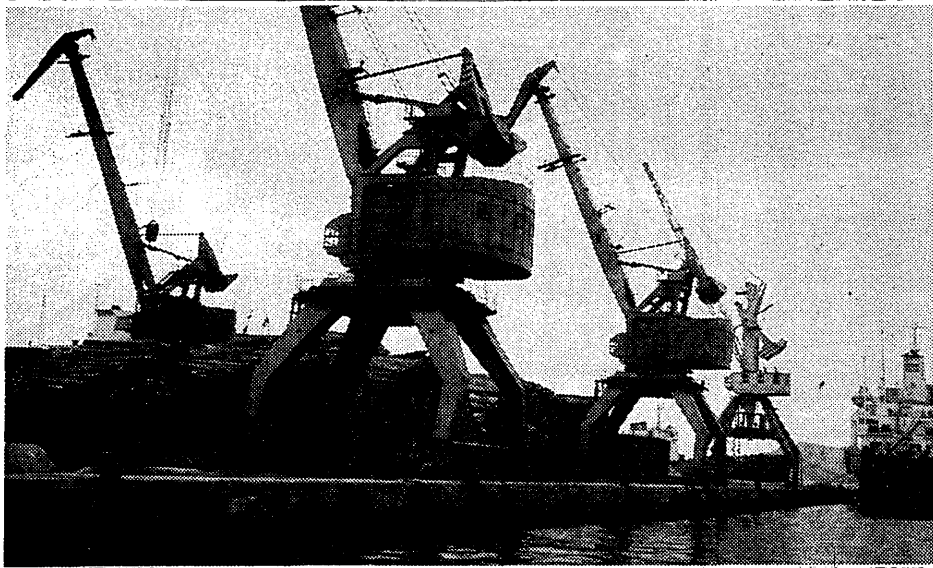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그날」 북한이 일어난 일... 「資金줄 폐쇄」 등 소문 잇따라

# 核이후 경제開放 예정된 手順

## 북한 「중국식 개방」 가속화 전망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함에 따라 중국식 경제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92년 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羅津항의 철강하역장면.

북한의 핵무제가 일단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면서 핵무제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제를 포기하면 중국은 북한을 경제개방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제를 포기하면 중국은 북한을 경제개방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제를 포기하면 중국은 북한을 경제개방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金주석 중국국成果 찬양: 노선발탁여 외국인투자法 정비: 시기만남아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의 최근 발언이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영연방에 중국의 개방성과를 찬양하며 중국이 78년 채택한 것과 비슷한 경제개혁노선을 택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16일 천안인민대표대회(全人大) 대표단을 만난 자민에서 김일성은 「중국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우선 개발하고 무식하고 중부의 개혁개발정책에 대해 찬양했으며 11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政協) 대표단과

이다. 김일성은 이를 통해 신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일성은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김일성의 9월 발언 이후 북한의 중국 방문단의 지방 시찰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사범기구대표단이 廣州, 珠海, 深圳, 그리고 廈門을 방문했으며 1월 黃長輝(黃長輝)도 역시 珠海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부 보수파의 영도 陳雲도 여태껏 발자국을 두지 않았던 중부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만나 「북한의 변화하는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발표하며 북부지역의 중앙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분야는 중부의 78년 개혁개방 초기에 채택했던 전략이다.

북한이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핵무제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 北 經濟부서장 잇단 경질

## 부총리 이어 올 5 개部 委員長 교체

경제정책 변화 관건

【서울 10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북한이 지난 10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주석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때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北韓은 지난 1월 8일 김 주석의 지시로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주석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변화시킬 때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 새 미사일 2種 개발중

## 英군사誌 보도 최대 3천5백 km 射程圈에

【런던 10일路透】 북한은 1천에 달하는 두가지 신형 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사정거리가 최고 3천5백 미사일을 개발중이라고 영 센티널이 9일 보도했다. 보스인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 T D 1, 2. T D 1, 3. 사정거리는 각각 2천km와 3천5백km라고 전했다.

# 北韓 '最低임금制' 도입 外國기업만 적용

▽ 문화일보 1994. 3. 10(8)

北韓의 외국기업의 최저임금의 도입이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최저임금 도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北韓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최저임금 도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최저임금 도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하 T D 1 미사일인 1은 본 오기나와를 비롯, 인민군 사정거리의 두 배 이상 있다고 보도했다. 이 북한 사정거리 2천5백 km, 14x1.3m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北 새달 초 최고인민회의 열거

## 核·對美관계 중대결정 내릴 듯

北韓은 오는 4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를 열고 核문제 및 對美관계와 관련한 중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北韓의 외교총재인 黃長權은 동양경제당 당비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對美관계를 개선한 결과와 경제협력을 재개한 절차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黃비서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관계자와 회담을 갖고

선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金日成 金正日부자의 권력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 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北·美회담 지연면 핵협상 중대사태』

北 노동신문은 『北』 최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 부진등으로 오는 21일로 예정된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의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미국의 합의 사항 이행을 지연·파탄시킨다면 『사태는 임박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당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북회담 협상을 앞두고 韓·美·日의 불순세력들이 미북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인민회의의 제9기 7차회의를 열고 核문제 및 對美관계와 관련한 중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北韓의 외교총재인 黃長權은 동양경제당 당비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對美관계를 개선한 결과와 경제협력을 재개한 절차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黃비서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관계자와 회담을 갖고

선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金日成 金正日부자의 권력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 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北·美회담 지연면 핵협상 중대사태』

北 노동신문은 『北』 최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 부진등으로 오는 21일로 예정된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의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미국의 합의 사항 이행을 지연·파탄시킨다면 『사태는 임박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당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북회담 협상을 앞두고 韓·美·日의 불순세력들이 미북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北韓 經濟조직 개편 바람

北韓이 과다적인 경제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北韓은 지난해 12월 8일 당중앙위 제6기2차전원회의에서 농업부의 경제개혁을 위한 개혁, 경제체제의 대폭개편을 예고했다. 이후부터北韓의 경제개혁은 부실기업의 정리, 관공기업의 정리, 대폭개편한 것으로 14일 밝혔다.

북한은 과다적인 경제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北韓은 지난해 12월 8일 당중앙위 제6기2차전원회의에서 농업부의 경제개혁을 위한 개혁, 경제체제의 대폭개편을 예고했다. 이후부터北韓의 경제개혁은 부실기업의 정리, 관공기업의 정리, 대폭개편한 것으로 14일 밝혔다.

## 무역·경영기업 확대...중공업업 축소 책임자 實務型 인물로 대폭경질

북한은 무역·경영기업의 확대, 중공업업의 축소, 책임자 實務型 인물로 대폭경질할 예정이다.北韓은 무역·경영기업의 확대, 중공업업의 축소, 책임자 實務型 인물로 대폭경질할 예정이다.北韓은 무역·경영기업의 확대, 중공업업의 축소, 책임자 實務型 인물로 대폭경질할 예정이다.

# 金日成 核·경제 직접 챙긴다

## 강성일변도 金正日행보에 제동 "분석 후계체제 부각 불구" "승계" 늦어질 듯

북한이 핵·경제를 직접 챙긴다는 소식은 강성일변도 김정일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을 낳았다. 후계체제 부각 불구, 승계 늦어질 듯... 金正日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은 낳았다. 후계체제 부각 불구, 승계 늦어질 듯... 金正日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은 낳았다.

〈具本永기자〉







# VI. 其 他

## 3. 其他 關聯動向



# 94 한미노

새해에는 한민도를 중심으로 한 북쪽이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 정세를 고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던 북한의 핵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의 가닥이 잡혀 관측될 때에 새로운 전세가 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북한 핵문제가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또한 남북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는 것인지를 전문가 10인에게 물어보았다. <편집자 주>

## 북한은 어떤 국면인가

북한은 1994년 초부터 중대한 정세변동을 겪어 오고 있다. 1993년 말부터 1994년 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석대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 실질적 남북 대화는 어렵을까

北·南韓 배제 전략 속 7개 핵사찰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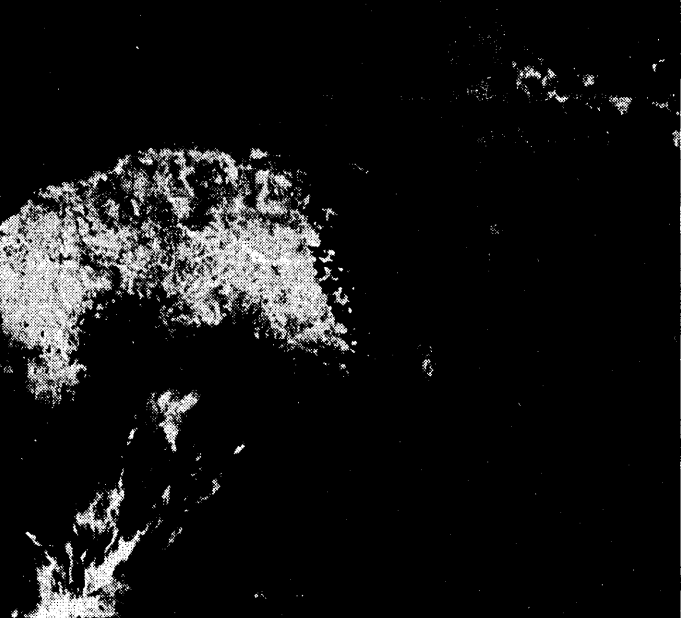
## 對美·對北 새 청사진 마련 시급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核투명성」-南北상호사찰문제 등 우리측 입장 분명히 밝혀야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美·北韓관계 개선...東北亞 새 충격」

# “核해빙” 조짐스런 對話기대

올해 남북관계는 일단 靑信  
號다. 지난해 12월말까지 계속  
됐던 北韓과 美國의 접촉결과  
올해 초 남북대화가 재개될 전  
망이 높다. 北韓과 美國의 접촉  
에서 양측의 중심은 남북대학을  
재개, 특사교섭을 하고 北韓-  
美 3단계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일치점으로 합의했기 때문이  
다.

사실 지난해 南北대학은 전  
적으로 北韓 美 대학에 이끌려  
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北  
韓이 남북대학을 美國과 대학  
의 카르텔로 사유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北韓 美 대학이 전  
적으로 南韓 美 대학의 장악하  
고 남북대학은 실질적인 협력기

## 새해 南北관계 전망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北韓과 美  
國의 접촉이 진전됨에 따라 올  
해 초 특사교섭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 특사교섭이 이루어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北韓은  
솔직한 카드를 美國과의 3단  
계회담으로 아껴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北韓은 핵문제보다는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가  
능성이 있다. 물론 北韓은 北韓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제 해결을 경우 남북정상  
회담까지 계속 진행할 가능성까  
지 점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정상 문제의 본질인 北韓  
핵문제 해결은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는 달  
리 北韓과 美國의 3단계회담  
이 장기전으로 갈 이유가 없  
는 관측도 있다. 이미 北韓  
문제가 해결의 대세를 타고 있  
는 데다 北韓도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사용할 시  
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美國도 北韓이 핵무  
명정확도만 확보한다면 北韓

# 北-美 회담 개최 원칙 합의의 靑信號

정경우 청와대 특사로 다뤄질  
사안이면서 핵문제다. 하지만  
북쪽에서도 불매 제대도 결심  
을 거듭해 오고 있는 지의 문제다. 北  
韓은 핵문제가 南韓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그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경우 유엔 핵문제에 대한 성  
과보다는 그 외의 문제의 모호  
의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  
측을 해 둘 수 있다.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 문제의 진전이 그것의  
조건이 될 수 있는 한 협의를 투  
사개별의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투사를 말한다.

일망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영역이 특사가 협의할 의제의  
이미 포함되었다. 때문에 적  
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양  
측의 합의가 공판 전까지 이  
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견과 함께 바깥으로  
北韓-美 회담을 통해 北韓

심할 것이다.  
결과 핵무기는 단기에 말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北韓과 美  
國의 불타는 기세를 北韓이  
단호히 인정할 수 없을 것  
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  
망이 아니라 그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이유가 없는 판개선과 결  
론 지향의 조건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핵무기  
문제가운데는 北韓의 핵  
드카 기점으로 對美 카르  
텔을 美國이 조건을 내놓  
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시발  
점이다.

## 特使교환엔 頂上 회담 가능성 北「시간 끌기」경색 계속될수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北韓  
문제에 대한 北韓과 美國의 고  
리가 풀려야 실질적인 남북대  
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은 분  
명하다. 따라서 94년의 남북  
제도 정착이 아니라 지난해의  
마찬가지로 北韓과 美國의 대  
화에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그러나 北韓 美 대학을 통해  
北韓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관계는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대학 재개  
위기에 남북 정상회담 실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  
고도 정상회담에 따라서는 올  
해 초 남북 정상회담의 실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北韓 내부의 「중  
대한 변화다. 金正日의 「중  
대변화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그  
것이다. 이럴 경우 南北 韓  
을 통일시키지 않고도 남북  
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朴濟均)



# 북-미 북-일 관계 급진전될듯

## 권력승계작업 지속...대외무역 강화등 경제개방 활발 예상

### 올해 북한변화 전망

올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느때보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내내 북한의 대외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던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미·대일관계의 개선과 함께 북한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올해 핵문제는 그동안 계속되던 북-미 협상의 진전에 따라 곧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영변지역 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이 재개되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3단계 고위급회담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호전은 북-미 수교의 전단계로 상호 무역대표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선행조처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된다.

북-미 관계개선은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전쟁배상금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호소카와 정권은 친북 성향의 사회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쪽의 수교일정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이고 있는 핵문제의 진전이 올해 안에 반드시 북-미 수교에까지 이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특별사찰의 수용 등을 통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소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 결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긴장된 대치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개선 이상으로 관심을 모으는 북한의 변화는 권력승계 문제다. 올해는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데다 지

난 91년 이래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후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올해도 이런 방향의 움직임은 있을 것 같다.

관측자들은 김정일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리는 당 총비서 및 국가주석직과 더불어 현재 김일성이 맡고 있는 세가지 직위 가운데 하나다. 물론 김정일이 군사위원장을 인수하더라도 이는 김 주석이 살아 있는 한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당 정치국원 겸 부주석에 기용된 김 주석의 동생 김경주의 움직임이 하나

의 변수가 될 것 같다. 김의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경우 이는 후계체제 완성까지 좀더 시일이 걸릴 것이며 동시에 당간 김정일로의 상징적 지위가 양자 미뤄질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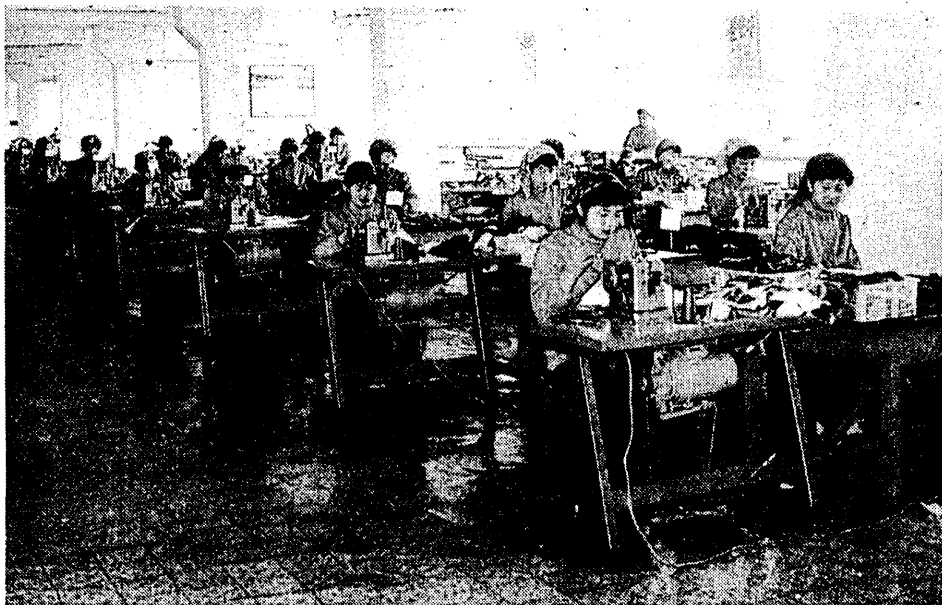
권력문제 이상으로 북한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개방화 작업이다. 김 주석의 올 신년사는 북한이 올해 특히 수출 등 대외무역의 신장에 진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주석은 이를 위해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북한은 이미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법령정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개방의 영향은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대외 개방 움직임과 함께 최근 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대남한 관계는 올 들어서도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남한을 대미 종속적인 비자주국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에서 남한이 보인 '동족배신적' 태도가 북한을 더욱 자극했기 때문이다. 김 주석의 신년사는 남북대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단합이 아니라 북남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남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올 한해 한편으로는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대외적 움직임을 활발히 하면서, 동시에 내부 문단속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국환 기자



북한은 올해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천연 털가죽으로 된 외투와 모자, 장갑, 목도리 등 4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평양 모피수출품가공공장의 모습.

# 北기독인 서울 오게되나

북한 기독교계인사들이  
분단후 근 반세기만에 처음  
으로 남대양성서울을 방문하  
게 될것인지에 비대한 판  
심이 쏠리고 있다.

한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총부 權皓景(權  
사)총의 서울방문 초청장  
에 대해 북한의 조선기독교  
도교협의회(이하 북기교협)가  
대답이 각시화되자 북기교  
다들 북기교협이 초청장을  
까지 판가름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남기교협이  
도할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문제라는 걸림돌의  
연계점 돌파가 마련될지

## KNCC 초청장 발송 안팎

북한평화고교추진위원회  
가 2월 2일 일요일 오전 10  
시 30분 서울을 방문하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라고 다시 정중히 서울방문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  
측 대표단의 최종 입장까지  
연락할 수 있는 편이다.  
다만 북측이 그간 중개인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  
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북  
기교협의 초청장 발송이  
유해 북한의 조선기독교도  
교협의회(이하 북기교협)가

사양이든 보면 서한에서  
'을 2월 2일 일요일 오전 10  
시 30분 서울을 방문하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라고 다시 정중히 서울방문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  
측 대표단의 최종 입장까지  
연락할 수 있는 편이다.  
다만 북측이 그간 중개인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  
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북  
기교협의 초청장 발송이  
유해 북한의 조선기독교도  
교협의회(이하 북기교협)가

## 交流분위기 성숙·統一 노력 가속화

남측 초청장 발표가 남북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공을 세웠다고 평가된다.  
다만 북측이 그간 중개인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  
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북  
기교협의 초청장 발송이  
유해 북한의 조선기독교도  
교협의회(이하 북기교협)가

로 불어날 명목이 없다는  
판단이다. 북측이  
당초 정부내에서 이를  
두고 종교교류는 인도적인  
차원의 것이므로 해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  
도 있었지만 아직 북한의  
해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남북교류와 해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상  
황이므로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  
심부 접촉에서 활영기자들

행문제와 통신3회선 사용  
보장문제 등 세부사항에 이  
점을 보며 결국 북측이 성  
사되지 못했다. 당시 북측  
은 金正日의 생일(2월 16  
일)과 날짜가 겹쳐 주민들  
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  
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과  
담합과를 우려해 이를 무산  
시켰다.

## 核-北태도-정부許可등 "첩첩산중"

시키고만 것 같다는 분석  
도 있었다. 물론 이번엔  
생일잔치 후이기 한다.  
남북한의 교회관계자들  
이 스위스 클리프에서  
남북교회가 통일운동  
하는 것은 신뢰의 중요과  
제 99회를 '회'이므로  
고선포한 이후 교회차원의  
통일노력이 한층 가속화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평화통  
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추진  
과 KNCC의 8.15 남북인  
간피이기대회의 성사여부  
도 관심이 되고 있다. 북  
한해문제가 타결되면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단  
49년만에 시도되고 있는 의  
사적인 남북기독교교류가  
이번에 실현될 것인지도  
향후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두고 볼 일  
이다.

〈韓炳權기자〉

# 北기독교대표단달서 울음물

### 분단 49년만에 처음 정부,核 최악 상황 없는 한 허용 방침

## KNCC 해외연행사 참석

북한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해외연행사 참석  
한 이번 분단 49년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남북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북한기독교인  
들의 해외연행사 참석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허용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북한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해외연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허용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북한기독교교회계 인사들이  
다들 21일 서울에서 개  
최된 KNCC 해외연  
행사 참석을 환영했다.

북한기독교교회계 인사들이  
다들 21일 서울에서 개  
최된 KNCC 해외연  
행사 참석을 환영했다.

북한기독교교회계 인사들이  
다들 21일 서울에서 개  
최된 KNCC 해외연  
행사 참석을 환영했다.

북한기독교교회계 인사들이  
다들 21일 서울에서 개  
최된 KNCC 해외연  
행사 참석을 환영했다.

북한기독교교회계 인사들이  
다들 21일 서울에서 개  
최된 KNCC 해외연  
행사 참석을 환영했다.

# 美-러, 북한 핵사찰 촉구

## 頂上회담과 NPT연장등 공동성명 채택

### 우크라이나-러 동반자협력 합의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북·러 정상회담이 14일 북한 평양에서 개막했다. 양국은 14일 북한에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있는 핵 시찰에 대해 국제사찰을 수용토록 촉구한다. 모스크바는 핵사찰을 채택한 뒤 이 분야의 정상회담을 골렘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이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등 대량 살포에 대해 핵사찰수령을 비롯한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전 세계 국가들에 NPT 체제 가입을 권유하고 핵무기 등 대량 살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의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이틀에 걸친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NPT 체제를 95년 이후에도 무조건 무기한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5월 30일이 전까지 상대방을 겨냥한 전핵미사일의 배치량을 단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대통령회담이 양국 관계자 회담에서 북·미 동맹주의 세력 균형에 대한 서방측의 우려를 의식,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량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14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천8백개의 핵탄두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폐기 협정에 서명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5월 30일이 전까지 상대방을 겨냥한 전핵미사일의 배치량을 단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대통령회담이 양국 관계자 회담에서 북·미 동맹주의 세력 균형에 대한 서방측의 우려를 의식,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량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14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천8백개의 핵탄두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폐기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핵폐기 조인  
북·러 정상회담(중)·페어뱅크의 핵폐기 조인  
우크라이나 핵폐기 조인  
핵폐기 협정 체결을 위한 북·러 정상회담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 美-러 頂上 12일 北 핵 논의

## 모스크바회담 NPT복귀등 주요 의제로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북·러 정상회담이 14일 북한 평양에서 개막했다. 양국은 14일 북한에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있는 핵 시찰에 대해 국제사찰을 수용토록 촉구한다. 모스크바는 핵사찰을 채택한 뒤 이 분야의 정상회담을 골렘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이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등 대량 살포에 대해 핵사찰수령을 비롯한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이틀에 걸친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NPT 체제를 95년 이후에도 무조건 무기한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5월 30일이 전까지 상대방을 겨냥한 전핵미사일의 배치량을 단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대통령회담이 양국 관계자 회담에서 북·미 동맹주의 세력 균형에 대한 서방측의 우려를 의식,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량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14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천8백개의 핵탄두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폐기 협정에 서명했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2001년 5월 30일이 전까지 상대방을 겨냥한 전핵미사일의 배치량을 단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대통령회담이 양국 관계자 회담에서 북·미 동맹주의 세력 균형에 대한 서방측의 우려를 의식,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량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李長勳특파원】 양국은 14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천8백개의 핵탄두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폐기 협정에 서명했다.

# 日商社 北에 미사일部品 수년간 밀수품

## 코콤 규제 물자 「노동1호」에 장착 추정

### 日警, 電子업체 수심곳 수사 서류압수... 회사가간부등 소환

【도쿄=추진원특파원】일본 경찰청의 대공안수출통제위원회(COCCOM)의 규제대상 전자부품자인 일본 제 주파수부품사가 지난 몇해동안 북한에 밀수출된 혐의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부품사는 북한제 「노동1호」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추적을 받고 있다.

일본경찰청 대공안수출통제위원회(COCCOM)의 규제를 위반한 전자부품사 14곳을 2백여명의 경찰을 동원,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기계무역과 도쿄에 있는 대형 전자업체를 실수개소에 대한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하고 군도 마사히코 요코하마기계무역사장을 관계자들을 소환, 수색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공안부 조사의 의하면 요코하마기계무역(이하) 주파수부품을 8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통산성의 허가도 받지 않고 증류를 거쳐 북한에 부정수출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경찰청 관련기업을 이 불신성의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의 대한 조사도 하고 있으며 통산성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요코하마기계무역은 북한측과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문의에 주파수부품사가 중 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산케이신문은 주파수부품사가 증류를 통해 북한에 밀수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자메이커 수개사가 제조하고 있는 주파수부품기는 한대에 3백여만 엔으로 일반전지로는 불신 기연구 개발에 사용된다. 그러나 미사일의 명중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적 목적과 원자로 제어장치의도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 밀수출된 주파수부품기는 초고주파를 수의 10차까지 분산할 수 있으며 미사일 발사할 때 이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이의 전파를 표적에 발사한 다음 되돌아오는 전파를 高精度로 분석하여 목표까지의 거리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COCCOM의 규제를 위반한 일본의 부정수출은 지난 87년 도시바기계가 고성의 잠수함 스프링클러 제작하는 공장기계를 續 소련에 수출한 것과 지난 91년 일본항공전자공업이 이란에 미사일부품을 수출한 것이 있다.

# 亞太의원포럼 北에 核査査수용 촉구

## 18개국百명 年例총회 核개발은 지역不安 초래

【서울 15일路透電】亞太의원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ians Forum)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15일차 총회에서 北의 核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했다. 이 포럼은 18개국 100여명의 의원이 참가하는 연례총회를 열고 있다. 이 포럼은 1987년 창설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北의 核개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北의 核개발을 중단하고,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北의 核개발을 중단하고,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미사일 부품밀수」치밀한 계획

日本무기공업사의 의해 北朝鮮에 불탄수출된 미사일 부품이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품들은 미사일 엔진, 추진기, 발사관 등 미사일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이 부품들은 1993년 12월 15일 일본에서 北으로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日製 北반입」과정과 파장

일본무기공업사(이하 무기공업사)가 北朝鮮에 불탄수출된 미사일 부품 100여개를 1993년 12월 15일 일본에서 北으로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부품들은 미사일 엔진, 추진기, 발사관 등 미사일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콤규제 中 예외 허점 파고들어서」

## 日 10여社 관련 安保구멍 당혹... 北 美核협상 새장에

北朝鮮이 10여개 기업에 대해 COCOM(국제통제위원회) 규제를 우회하여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부품들은 미사일 엔진, 추진기, 발사관 등 미사일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COCOM 규제를 우회한 미사일 부품 수출은 北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품들은 미사일 엔진, 추진기, 발사관 등 미사일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품들은 北에서 미사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의 미사일 개발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北의 核개발을 중단하고,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北의 核개발을 중단하고, 北에 核査査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東京 李東寅)



◇ 빌리 그레이엄

【北京=林勝俊기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평양에서 남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의곡인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北京의 종교계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북한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도할 예정이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오는 22일 북경에 도착, 다음 주 중에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으로 갈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를 북한 당국 이 이미 허가했으며, 북한은 오는 3~4월 초에 선연현 중구식 개방정책 실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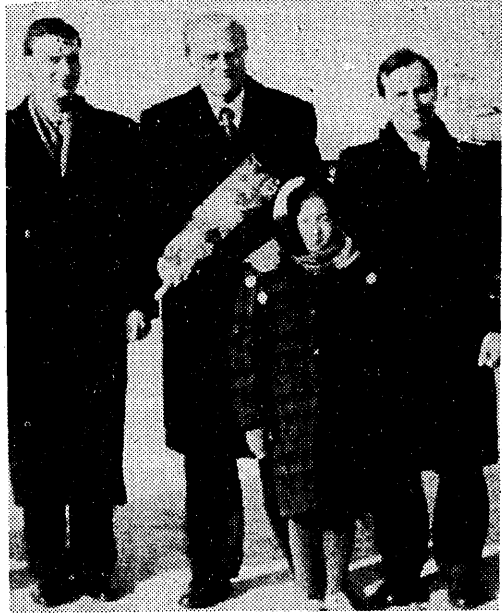
지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의곡인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의 개최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엄 목사는 92년 3월 31일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부흥회를 여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또 앞으로 인정기간 동안 의곡인 목사의 예배를 허가한 뒤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공화식 대외개방정책 이후 단계적으로 대외 종교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도할 부흥회 후 최초의 부흥회는 평양 시내 북수교회나 반석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 시내에 기존의 북수교회·반석교회 외에 새로운 대규모 교회의 건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 외국인 목사론 처음... 내주 入北

# 빌리 그레이엄 주壤서 부흥회



그레이엄 平壤도착 美國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7일 일행들과 함께 平壤에 도착, 北韓측의 환영을 받고 있다. (평양 AP 聯)

金永南 외교부장 만나 訪北 그레이엄 목사 [東京 AP 聯] 北韓을 방문 중인 美國의 세계적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8일 북한의 金永南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고북한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北韓 방문을 통해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총연합회 소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2월말까지 회가 끝난 후 정권이념을 北 北선정철자를 방문할 것이라 고 거듭 강조했다.

# 그레이엄 목사 27일 방북

## 김일성 주석과 면담 시사

【베이징=로이터 연합】 미국의 유명한 부흥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은 23일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북한 방문이 분단된 한반도의 화합과 재통일 과정을 촉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6일 동안의 이번 방문에서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한 고위 지도자들과 만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기독교단체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할 그레이엄 목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방문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에서는 성경 말씀이 종종 잘못 이해돼왔다”고 말했다.

지난 92년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 주석과 면담한 바 있는 그레이엄 목사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지난 92년에 만났던 친구들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김일성 주석과 다시 만날 것임을 시사했다.



# 북, 문목사 조문단 파견 제의

## 정부선 거부

북한은 20일 고 문익환 목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는 22일 5명의 조의방문단을 서울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통일원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백인준 북쪽본부 의장은 이날 통일원장관과 '문익환 목사 장례대책위원회' 앞으로 각각 전화 통지문을 보내 이렇게 밝히고 "조의방문단이 서울에 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10

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범민련은 국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방문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혀 북쪽의 제의를 거부했다.

백인준 의장은 이날 장례대책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22일 아침 백 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조의방문단이 관문점을 통과해 문익환 목사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오후에 서울을 출발해

귀로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문익환 목사 장례위원회는 북한 당국의 조문단 파견 제의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조문은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랜 관습"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김주석, 유족에 조건

북한 김일성 주석이 20일 고 문익환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건을 문 목사의 유족들에게 보내 왔다고 '문 목사 장례위원회'가 밝혔다.

### 한국일보 1994. 1. 21(2) ▽

**문목사 조의방문단의 정부선 거부**  
북한은 조의방문단 파견 제의를 정부에 거부했다. 통일원 대변인은 20일 오후 문목사 장례대책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범민련은 국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방문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인준 의장은 이날 장례대책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22일 아침 백 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조의방문단이 관문점을 통과해 문목사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오후에 서울을 출발해 귀로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4. 1. 21(2) ▽

**金日成 弔電 보내와**  
북한 김일성 주석은 20일 밤 12시 30분 故 文益煥 목사 사를 애도하는 조문장을 보냈다. 조문장은 "문 목사님의 고귀한 생애와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조문단을 파견하여 조문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문단은 22일 오전 10시 관문점을 출발해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1994. 1. 24(1) ▽

**두만강 개발 뉴욕실무회의**  
**南北韓 등 5개국 31일 개최**  
UNDP(유엔 개발계획)가 주관하는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실무회의가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3개 협정 체결 문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남한 등 6개국이 참가한다. 회의는 유엔 개발계획과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가 공동 주관한다.

# 北, 潛艦 40척 구매 시작

**NYT 보도**  
【뉴욕=연합통신】북한이 일본회사의 승객을 통해 러시아 태평양함대로부터 40척의 고속 잠수함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소식은 북핵협상의 진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북측은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남측은 핵무기 불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 협상은 지난 12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북측이 고속 잠수함 40척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고속 잠수함은 핵무기 운반 능력이 뛰어나고 잠수할 수 있어 해상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북측은 이번 구매를 통해 해상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 36基 美, 한국 實戰배치 계획

## 北노동성 1·2회 방어영

### 클린턴, 駐韓美軍 요청 긍정 검토

#### 정부당국자, NYT 보도 사실

美國은 北韓이 개발중인 미사일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스킵미사일 노동성 1·2회 駐韓미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정부당국자가 2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미국』에 "이 당국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美외교, 北核저지 주력

#### 클린턴 年頭교서

【워싱턴=연합】 클린턴 대통령은 2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2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발표에 앞서 손을 들어 의원들의 박수에 답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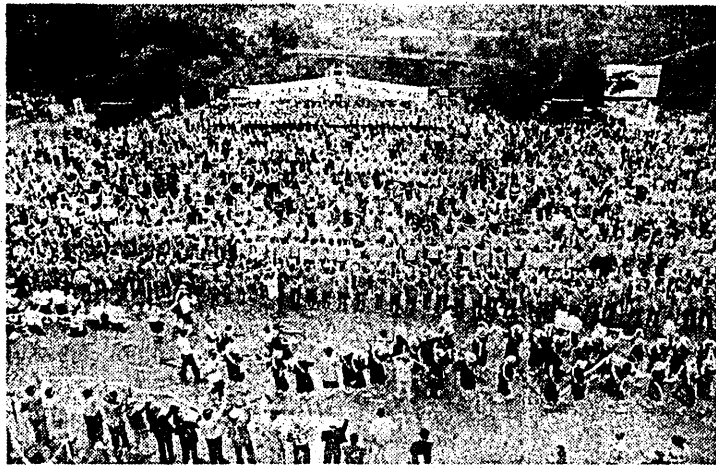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엔軍縮회의의 「核실험 금지特委」 구성

동아일보 1994. 1. 28 (4) ▽



남북인간띠이기대회가 범사학단체 주관으로 대田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田 모습.

## 條約타결진전기대

### 北韓등會議참석여부싸고 논란

#### 제네바서 개막

【파리 27일 AP통신】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등 세계 38개국은 28일 유엔군축회의에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유엔군축회의는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날 시작된 유엔군축회의는 5대 핵보유국들이 1993년 8월 24일 채택한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CNTBT)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 대전·남북협상정형화추진

### 올 남북인간띠 대회

#### 기독교교회協 결정

### 宗敎界·시민단체 공동주최 「범국민행사」로 북한 「포삼연」 표명...준비위한南北협약의 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로 지난해 8월 15일 열린 남북인간띠 대회가 올해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는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KNCC는 27일 이 행사를 국민적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으로 서울에서 열린 10개 단체인 남북인간띠대회추진위원회(이하 남북인간띠대회추진위)에 이의 전달했다. 현 재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개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남북인간띠대회추진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이같은 발의는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를 하나로 묶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KNCC측의 이같은 발의는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를 하나로 묶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이런 유엔회의의 개최와 함께 CTBT 협상을 위한 유엔군축회의가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핵실험금지특위의 회의를 시작한다.





지난 27일 북한군 군함에서 북한군 2명이 표류할 때 발견된 전마선. (小川=兩相仁기자)

### 북한병사 일문일답

북한병사들이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그동안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 북한병사의 순환결정

### 자녀이월 사망... 北송뒤 처벌김이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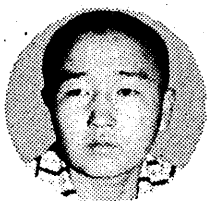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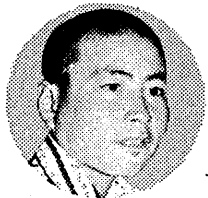
# 구조된 北韓병사 돌려보려다

## 북한병사의 순환결정 정부, 대학부의기 조속위해결정

### 북한군 소식통이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김철진



김경철

북한군의 소식통이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 북한군 2명 순환결정 배경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 北核과 별개의 人道的 차원

### 이들만에 신속결정 정치적 의미도

### 김정일총통 부처

김정일 총통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의 소식통이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 북한... 사인한사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북한군은 이라크에 끌려간 병사들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 소식통이 대답했다.

# 東學현명 1백周 南北공동행사

## 天道教측 실무접촉 조건부 허용

李부총리

정부는 北韓과 東學현명 1백주 기념 共同행사를 위한 天道教측의 실무접촉을 2월 3일 板門店 실무접촉을 전제로 대 해 정지시킨 바 있으나 허 용할 방침이다.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연 락회 부총장은 27일 오후 本 社와 가진 인터뷰에서 天道教의 실무접촉을 전제로 2월 3일 板門店 실무접촉을 전제로 대 해 정지시킨 바 있으나 허 용할 방침이다.

장관인 방정환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李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의 기존 核-總務-교류 연 락회(核-總務-교류연 락회)의 개편과도 관련이 깊 은 것으로 보인다. 李 부총 리의 발언은 天道教의 개편 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 인다.

정부는 北韓과 東學현명 1백주 기념 共同행사를 위한 天道教측의 실무접촉을 2월 3일 板門店 실무접촉을 전제로 대 해 정지시킨 바 있으나 허 용할 방침이다.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연 락회 부총장은 27일 오후 本 社와 가진 인터뷰에서 天道教의 실무접촉을 전제로 2월 3일 板門店 실무접촉을 전제로 대 해 정지시킨 바 있으나 허 용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1994. 1. 25(2) ▽

### 東學현명 1백주 기념

#### 北韓의 조선전교회의 영향

北韓의 조선전교회의 영향은 24일 2월 24일 板門店 실무접촉을 전제로 대 해 정지시킨 바 있으나 허 용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1994. 2. 2(2) ▽

### 東學현명 1백주 기념

#### 北에 3월초의 제의

北韓은 3월초에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1994. 2. 2(2) ▽

金日成이 56년간 장기집권 하고 있는 북한이 아직도 의국의 정치가 인본인정부 관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가 하면 15만명의 정 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탄압 국가라고 2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 「93년 세계인권보고 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도 철저한 폐쇄사회로서 인 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발원지 인기가 정보기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하여 이 같은 실태를 전한다고 밝히 고 매년 인권문제에 수십편의 기사를 실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

### 美 국무부 발표 '세계인권보고서'

# 北韓 정치범 15만명 가장 열악

# 韓國 개선불구 「保安法」 그대로

북한은 56년간 장기집권 하고 있는 북한이 아직도 의국의 정치가 인본인정부 관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가 하면 15만명의 정 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탄압 국가라고 2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 「93년 세계인권보고 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도 철저한 폐쇄사회로서 인 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발원지 인기가 정보기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하여 이 같은 실태를 전한다고 밝히 고 매년 인권문제에 수십편의 기사를 실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

경향신문 1994. 3. 11(2) ▽

### 서울 동화현명 1百周 기념식

#### 北한도 대표 15명 참석키로

北한도 대표 15명 참석키로



# “金日成 메시지 백악관 전달”

## 그레이트 북평 회견 “수행원 먼저 歸國” 긴박성 암시

“3시간 이상 회담... 개방 가능성 있다”

【북평=합】 지난주 북평에서 열린 사발란 그레이트 북평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북평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3일 밤 회담은 3시간 이상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다. 이 회담은 3일 밤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이 회담은 3일 밤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3시간 이상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그 회담은 3일 밤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3시간 이상 회담이 4일 밤 열린 뒤 美대통령을 위한 메시지인 북평 회담의 비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고



# 南北 인권攻防 가열

## 위장선거拷問등 비판 南側 保安法폐지 공식 요구 北側

### 유엔인권위원회서 잇단 거론 論爭 증폭

南北韓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잇따라 거론하면서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측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남한측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남한측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측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측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측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남한측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남한측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측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측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환기자>

수용소의 가혹행위 △실종자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측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 정부가 유엔서 北인권척거론

## 민간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촉구

### 제네바 인권위원회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월 28일 제50차 연례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3월 7일 제51차 연례회의에서 남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양측의 인권攻防이 가열되고 있다.

# 8월 15일 남북 인간띠 잇기대회

## 주요종단·사회단체 공동 개최

관문점, 대전, 목포, 부산 연결

### 법조인·민생활운동 "승화"

#### 내달 8일 발기인대회

을 남북 인간띠 잇기 공동 국내 주요 종단과  
대회는 개신교를 비롯 카 사회 단체들이 참가하는  
를 린, 불교, 천도교 원불 가운데 8월 15일 개최된

다. 오 중앙교회 협회 회장, 표  
용 중앙교회 감동 회장, 권  
홍경 기독교 방송 사장, 강  
원웅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  
장, 강영규 대한 YMCA  
요명사 부총장, 주선애 Y  
WCA 회장, 박형규 목사  
등 개신교 지도자와 김수

환 추기경, 이대식 조계종  
교 육부장, 서정기 유교 문  
화 연구원장, 오인제 천도  
교 회장 등 각 종단 대표들  
은 15일 오전 서울 엠배  
서 더호텔에서 모인 후 갖  
고 올해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다는 데 합의하고 각 종단

국내 각 종단 대표들이  
모임을 가진 것은 3:1  
독립운동 이후 이번이 처  
음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중의 화해와 통일을 위  
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합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선 올해 남  
북 인간띠 잇기 대회를 관  
문점에서 대전, 대전에서  
판주, 목포, 대전에서 대  
구 부산까지 총 9백35km  
에 걸쳐 펼친다는 데 원칙

과 사회 단체에서 파송한  
실무진들에게 맡겨 대회  
를 준비해 나가도록 했  
다.  
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북  
한의 공동 참여도 관계기  
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청  
하기로 했다.  
특히 인간띠 잇기 대회  
가 남북 사이의 막힌 담  
을 열고 평화 정착을 위  
한 교류와 협조, 인도주의  
의적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통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  
고 추진하는 법조인·민생  
활동가들도 화해해 나가  
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 본부는 오는 4월 8  
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 附 錄

남북관계 주요일지





# 남북관계 주요일지 ('94. 1. 1 - 3. 31)

1994. 1. 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 올해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
1. 1 김일성 신년사  
— 조-미 사이에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이행한다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1. 4 미-북한 실무접촉
1. 5 이영덕 부총리 기자회견  
—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되어야 할 것
1. 6 김영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문제 등 몇가지 문제의 해결이 전제
1. 7 제1차 IAEA-북한 실무접촉  
— 사찰범위, 횡수, 사찰단 규모, 방북일정 등 논의
1. 10 제2차 IAEA-북한 실무접촉
1. 12 이기택 민주당 대표 연두기자회견  
—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
1. 14 미-러 정상, 모스크바선언 채택  
— 북한에 국제핵사찰 수용 촉구
1. 15 북한 양형섭 의장, 이기택 민주당대표 방북의사 환영 성명
1. 15 아·태 의원 포럼  
— 대북한 핵사찰 수락촉구 성명 채택
1. 17 제3차 IAEA-북한 실무접촉
1. 19 제4차 IAEA-북한 실무접촉
1. 20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 통일원장관 앞 대남전통문  
— 문익환목사 조의 방문단 파견 관련 실무접촉 제의
1. 20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문목사 장례대책위원회 앞 대남전통문
1. 20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문목사 조의 방문단 파견 관련 논평  
— 「범민련」은 국내법상 이적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우리측 지역 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1. 24 조선 천도교 류미영 위원장,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문제 협의 관련 오익제 천도교 교령 앞 대남전통문

- 1. 24 제5차 IAEA-북한 실무접촉
- 1. 25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
  -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대화 재개방안 등 주요현안 논의
- 1. 25 제6차 IAEA-북한 실무접촉
- 1. 25 UN 군축회의 개막(제네바), 북한 핵사찰 거부 비난
- 1. 27-2. 1 미 빌리 그레함 목사 방북
- 1. 31-2. 2 두만강 개발회의 개막(뉴욕 UNDP 본부)
  -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참가
- 2. 1 천도교 오의제 교령,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행사 관련  
조선천도교 류미영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 2. 1 서해해상 구조 북한군 2명 「판문점」 통해 북한 송환
- 2. 2 북한 손성필 주러대사, 북한의 NPT 탈퇴 유보 취소 시사
- 2. 8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상황 정세보고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 2. 11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체제 문제 등을 담은 친서 전달
- 2. 11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워싱턴)
  - 북한 핵문제 협의 및 제재 논의
- 2. 14 한·일 정상, 북핵문제 전화협의
- 2. 15 제7차 IAEA-북한 실무접촉
- 2. 15 미-북한 실무접촉
- 2. 16 주돈식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IAEA 핵사찰 수락 관련 환영 성명
  - 북한이 대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알찬 남북대화가 있기를 기대함
- 2. 18 이영덕 부총리, 남북합의서 발효 2주년 기념세미나 발언
  - 특사교환 성사시 현재 중단중인 핵통제위 재개를 북한에 제의 방침
- 2. 19 민주당, 북핵문제 관련 이대표 서한을 클린턴 미대통령에 전달
- 2. 21~23 IAEA 정기이사회 개막
- 2. 22 미-북한 실무접촉
- 2. 23 미-북한 실무접촉
- 2. 25 김영삼 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될 경우 남북정상 회담 추진
- 2. 25 미·북한 실무접촉

- 4개항 동시조치 시행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 28 송영대 수석대표, 제4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제의 대북전통문
  - 남북 특사교환은 최고당국자의 뜻에 따라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것
- 3. 1 박영수 북측단장, 실무대표접촉 일자 수정제의 대남전통문
  - 「국제공조체제」를 포기 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실무대표 접촉 제의에 동의
- 3. 1 IAEA 사찰단 평양도착
- 3. 2 송영대 수석대표, 북측의 일자 수정제의 수락 대북전통문
  - 실무대표접촉 중단 책임 전가에 대해 유감 표명
- 3. 3 제4차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개최(「평화의 집」)
- 3. 3 국방부 대변인, '94 T/S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 3. 9 제5차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개최(「통일각」)
- 3. 12 제6차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개최(「평화의 집」)
- 3. 14 IAEA 사찰단, 북한핵 사찰일정 종료(3. 3~3. 14)
- 3. 16 제7차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개최(「통일각」)
- 3. 16 IAEA, 북핵사찰결과 발표
- 3. 17 외무부 대변인, IAEA 북핵사찰 결과 관련 성명
  - IAEA 사찰이 지체없이 실시될 것을 촉구
- 3. 18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 IAEA의 북핵사찰 결과 발표 관련 담화
- 3. 19 제8차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개최(「평화의 집」)
- 3. 19 이영덕 부총리,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결렬 관련 성명
  - 실무대표접촉 결렬에 대해 유감 표명
- 3. 21 송영대 수석대표 성명
  -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변함 없음
- 3. 21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 3. 21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의안 채택
- 3. 21 외무부 대변인, IAEA 대북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 3. 22 「조평통」 대변인,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결렬 관련 성명
- 3. 23 국회 외무통일위, 북한 핵사찰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 3. 24 김영삼 대통령 일본 방문, 호소카와 총리와 정상회담
  - 양국간 선린관계 구축 및 북핵문제 대처방안 협의

- 
- 3.28 김영삼 대통령-강택민 국가주석 정상회담  
—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
- 3.30 김영삼 대통령 중·일 방문 귀국 연설
- 3.31 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의장성명 채택